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1월 15일(음력 9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603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병원 법당 일손없어 포교 '포기'

스님 · 자원봉사자 턱없이 부족
봉사 의무 · 호스피스 교육 필요

본사 13곳 조사… 타종교의 10% 수준

"스님들조차도 병원 법당을 영안실로 여기고 기도나 해주면 되는 곳쯤으로 생각합니다. 포교 포교 하는데, 이건(병원법당활동) 포교 차원이 아니라 불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병원법당 운영현황에 대해 묻자 서울아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홍 스님은 자조섞인 탄식을 했다. 서울보훈병원 법당 지도법사 선문 스님의 말은 차라리 넋두리에 가깝다.

"70세가 넘은 자원봉사 보살님을 쉬게 해 드려야 하는데, 사람(자원봉사자)이 없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환자들 보시금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도 가슴 아프고…."

불교계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 법당들이 인력과 재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가 전국의 17개 병원 법당 중 동국대 일산 · 경주 · 포항 병원, 건국대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보훈병원, 영남대의료원, 건양대병원 등 13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병원 법당이 법당을 운영할 스님과 자원봉사자 부족, 그리고 열악한 재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스님이 법당 3곳 '관리'

실제로 이번에 조사한 13개 병원 법당 중 2명 이상의 스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상당 기간 지도법사가 없어 법당 운영이 되지 않았던 곳도 있었다.

건양대병원 법당의 경우 올해 성원 스님이 오기 전까지 지도법사가 자주 바뀌고 그 와중에 공석인 경우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고, 올해 초 개원한 울산대병원 법당은 맡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 폐쇄됐다고 한 스님은 전했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는 종립 동국대 경주병원 · 경주한방병원 · 포항병원의 경우는 한 스님이 세 곳의 법당을 맡고 있고, 동국대 일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의 법당들도 스님 부족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중제 스님의 경우 직원 친절교육과 정신과 병동 프로그램 참여, 외부인사 접견 등 업무가 과중해 환자들을 돌아볼 시간마저 없을 정도여서 병원 재단 측에 인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법당 지도법사 견허 스님은 "암 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스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워했고, 다른 병원 지도법사들 역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하소연한다.

개신교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원목실(법당과 같은 개념)에 15명의 관계자가 일하고 있고, 가톨릭의 강남 성모병원 원목실에서 7명의 신부와 수녀가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불교계 인력수치는 10% 수준을 밑돈다.

병원 법당 지도법사들은 "환자들을 돌아보고, 상담에 응하고, 법당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최소한 2~3명은 돼야 병원 법당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성 떨어지는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부족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개원한 건국대병원 법당은 자원봉사자가 없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 영남대의료원과 50~6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법당들은 10~40명 정도로 자원봉사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종교에 비해 활동력이 뒤쳐지는 이유로 작용한다.

또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활동이 도서대여나 환자복 세탁 등 단순한 노력봉사에 그칠 뿐 가장 필요한 호스피스나 종교봉사(환자들과의 상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양대병원 법당 지도법사 성원 스님과 견허 스님 등 병원 법당 지도법사들은 한결같이 "호스피스 등 종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병원 지도법사들은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스님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동국대 종비생(학인스님)들과 강원 학인들이 의무적으로 사회봉사(병원법당 포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삼선승가대가 호스피스 강좌를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 30명의 학인들이 서울 보훈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환자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자원봉사인력은 병원 법당의 지역사찰과 연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불광사 신도들이, 삼성서울병원은 능인선원 신도들이, 영남대의료원은 영남불교대학신도들이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특히 호스피스 등 종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병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이다. 영남대의료원 불자회는 이를 위해 '병원불교학교'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 운영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병원불교학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맞는 신행과 환자 간 토론 및 나눔 시간, 의학지식 정보교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와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해 병원 법당이 필요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영남대 의료원 지도법사 정법 스님은 "병원법당이 스님 개인 원력에 기대는 반면, 개신교나 가톨릭은 지역 교회나 교구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맛있는 김치 따뜻한 세상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과 대한성공회관구장 박경조 주교(맨 왼쪽) 등이 11월 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가,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SK 텔레콤이 후원하고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총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00톤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1만 세대에게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시방세계 9면
현등사 진신사리 이운하던 날

도반의 향기
윤재황 문화재 해설가 17면
군산에 국보급 성보 온사연 7면
수행지도자에게 듣는
생활 속 수행, 어떻게? 18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백운 스님 '법화경' 24~25면

내년 군포교 예산 올해의 '두배'

군종특별교구 상임위 16억9천만원 확정

2007년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예산이 대폭 증액돼 군불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1월 2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교구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2007년도 사업 예산을 16억 8951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7억 9538만원보다 8억 941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 군종특별교구 출범에 따른 대외활동으로 후원금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단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2억 5천만원 수준이며 만인동참 등의 후원금이 9억원으로 늘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보다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 활발한 군포교 지원사업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로 군종교구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설 · 추석 합동 다례법회 봉행, 연대급 법사 포교 활동 지원, 법회 시청각 교재 구입, 수계불자 안심통지문 발송, 군종병 집체 교육, 군포교 연구실 운영, 군불교지 발행 등을 확정했다.

특히 군포교 연구실 운영은 군포교 경험이 풍부한 정선진 예비역 군법사를 실장으로 임명해 군현실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어서 군포교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군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관음회 불자 수련회, 예불회 관리 지원은 물론 군불교 관련단체와 군포교팀, 예비역 법사단 수련회 등도 지원할 계획이며 군법사 자질함양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해 내년 군종교구의 활동이 기대된다.

일면 스님은 "그동안 종단과 사부대중의 도움으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며 "군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11월 11일 사무실 옮겼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기존의 청운동 사옥을 연수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신문 제작 · 광고 등 제반업무는 11월 13일부터 종로구 안국동 새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편집국 · 광고영업부(6층), 구독 · 관리부(10층)
대표전화(02)2004-8200, 팩스(02)737-0697
편집국(02)2004-8234~55, 팩스(02)737-0698
광고영업부(02)2004-8213~7, 팩스(02)737-0696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통광 스님
원각경/11월 18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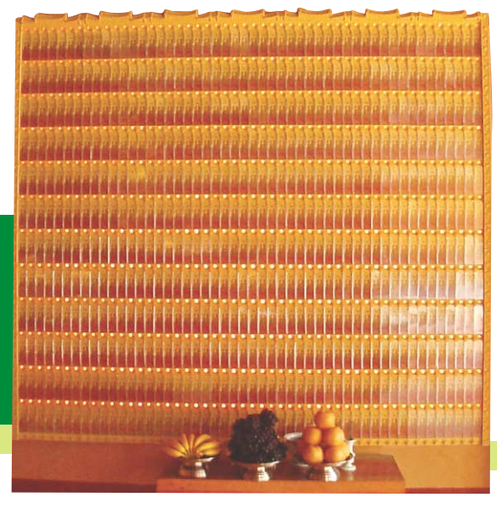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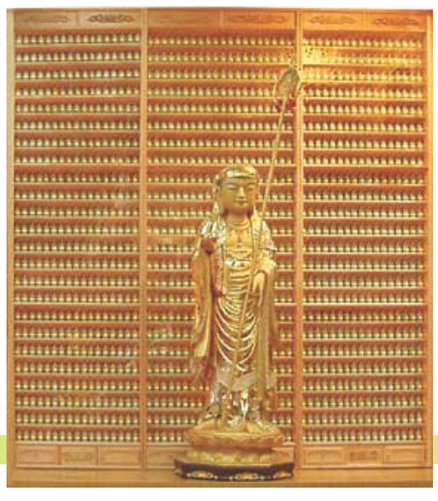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11월 15일 오후 7시, 통광 스님 '수하항마상'

찬덕연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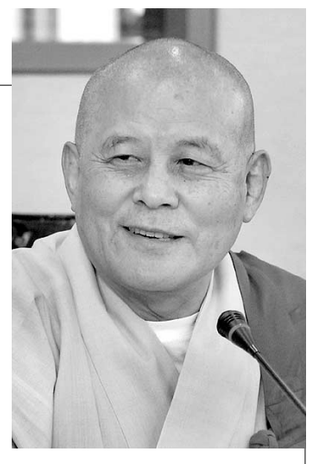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종풍쇄신 열쇠는 수행과 포교"



"수행승가 진작과 대중공의 회복이 종단의 미래 좌표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의제를 설정하고 향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행 승가를 토대로 한 종풍진작' '대중원융살림의 회복' '포교와 복지 진흥' '대사회를 향한 승가의 역할 증대'를 종단 중흥을 위한 4대 의제라고 밝히고 상세한 세부 지침을 피력했다.

"수행승가가 바로 서야 불교가 바로 설수 있다"고 강조한 지관 스님은 수행대중이 평생 의지할 소의삼장(경율론)의 집결과 유통, 계정혜 삼학수행을 위한 대중 평생교육체제의 설치와 운영, 종장회의의 설치와 삼장 및 선장(禪藏)산림 상설 운영을 기초로 종풍을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화, 익명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원융살림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며 대중공의제도인 포살과 자자의 정례화, 대중공사제도 회복과 사회화, 수좌위주의 안거의식을 대중원융안거제도로 회복, 기본수행기간 대중소임 의무화 및 원융살림 전통 확립, 말사대중을 포함하는 교구중심 결계(結界) 시행, 청규 및 대중운력으로 대중일용사 회복, 사찰거점지역인 농촌지역 지도공동체로서의 역할 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포교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출재가대중의 평생 정법도량 섭수와 해외전법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고 대사회를 향한 승가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대중승가의 공의제도와 원융살림 회복 및 사회화, 정견창출협의체로서의 대사회포럼을 상설 운영키로 했다.

지관 스님은 또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사업방향은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조로 운영되며 어린이 포교 활성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대안 개발, 종무행정 지방이양, 중앙종무기관 중무혁신 방안 마련,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 건립, 종단 망실재산 환수, 간화선 대중화 연구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올해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감하고 내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활성화, 한국불교 세계화 및 국제포교 역량강화, 저출산 고령화대비 불교사회복지 강화, 간화선 대중화 및 수행환경 조성, 교구종무행정이양 확립, 승가복지제도 구축, 수행승가와 원융살림 회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앙승가대 학인들이 강남 봉은사를 재정 지원 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계종 총무원, 중앙승가대 학인 및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의를 모아 이 문제를 조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사찰 재정 투명화와 관련 "여러 사람이 함께 사찰 재정을 운영하는 원융살림을 산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계종 중흥위한 4대 의제

- 수행승가를 토대로 한 종풍진작
- 대중원융살림의 회복
- 포교와 복지 진흥
- 사회를 향한 승가 역할 증대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중앙승가대 동문 · 재학생 "봉은사를 지원사찰로"

봉은사 보우당서 28명 9일부터 '단식' … 주지에 명진스님 임명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정념) · 대학원 원우회(회장 각명) · 총학생회(회장 법공)가 서울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11월 6일부터 봉은사 보우당에서 무기한 집단기도정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각명 · 법공, 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뒤 9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에는 정념 · 각명 · 법공 스님 등 28명이 동참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정념(앞줄 가운데), 대학원 원우회장 각명(앞줄 왼쪽), 총학생회장 법공(앞줄 오른쪽) 스님 등이 서울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9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단식에 들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앙승가대 운영예산 가운데 60%를 종단에서 지원해 왔다. 사찰재정 악화로 분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중앙승가대 예산을 전적으로 종단이 담당해 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술 및 교육 목적사업 예산배정이 어려우며, 매월 종단전입금 수입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승가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승가교육투자 △중앙승가대 발전 위한 재정확보 △신임주지 임명 철회 △공개토론 등을 종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8일 "1996년 중앙승가대 개원 이래 경상비만 124억 4000만원, 김포학사 이전 비용 350억원 등 종단 내 다른 기본교육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전제한 뒤 재정지원사찰 요구는 "종단 회계단일화 원칙과 종단 기본교육기관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기본 교육 과정 중인 예비승까지 동원하는 비교육적 자기모순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봉은사 신도회인 청정공덕회 또한 6일 "중앙승가대 육성과 발전에 대한 논의의 주체는 봉은사가 아니라 총무원이며 그 대안을 담보하는 곳은 종단 전체"라며 지정사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청정공덕회는 또 "물리적 행동을 통한 해결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봉은사 문제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 중앙승가대 학인 및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의를 모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봉은사 새 주지에 명진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 임명됐다.

김두식 · 남동우 기자

전국승가대 교직자 29일 동학사서 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제6회 전국승가대학(강원) 교직자 연수를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주 동학사에서 실시한다.

연수는 전국 강원 교직자 총회를 비롯해 '교직자의 사명과 자세' '사회 변화의 흐름과 불교의 역할' 주제 특강, 치문 · 선요 · 도서 · 교재에 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연수대상은 전국승가대학(강원) 강주 · 강사 · 중강스님 총 81명이다.

전국승가대학 교직자 연수는 교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하고 상호교류 및 승가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선관위원장 징계 청원서 제출

실천불교승가회 중앙종회에

제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징계와 위원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중앙종회에 제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는 11월 9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가섭 스님을 청원인으로 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청원서에서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업무 진행으로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점 △파행적인 선거업무를 진행해 혼란을 부추긴 점 △동일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청원이유로 제시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에 대해 "중앙선관위 업무를 공정하게 이끌어야할 책무를 지닌 위원장은 중선위 질서를 문란케 한 당사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제주 관음사 29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23교구 제주 관음사(주지 직무대행 용주 스님)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관음사 포교원 보현사에서 열린다.

승랍 25년, 법계 3급 이상의 비구 스님이어야 입후보를 할 수 있으며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19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다. 김두식 기자

호법부장 서리 심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1월 9일 심우 스님(사진)을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했다.

심우 스님은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89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해인사 말사 거창 포교당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김두식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602호 2면 '누가될까' 기사에서 혜총 스님은 지관 스님의 상좌가 아니라 조카 상좌로 바로 잡습니다.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12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공 고

大韓佛教 佛入宗 前 總務院長 金鏡岩은 宗正 중심제(宗憲 제41조: 住持는…… 宗正이 임명한다)의 宗憲도 아랑곳없이 그동안 적지 않은 인사문제에 宗正[本人]과의 사전 상의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追認마저 생략한 채 人事權을 남용하는 등 월권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宗憲上 人事權이 있는 本人[宗正]이 엄연히 현존하는 상황에도 이러할진대 宗正 有故時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9일 創宗主 太虛 · 泓宣 大法師의 열반추모법회 때 本人의 제자인 도명 스님에게 宗正 有故 後의 종단안정 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宗正 有故 後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스님들의 반대가 있었고, 또 사흘 후 스님 몇 분이 大韓佛教 佛入宗 總本山인 華光寺로 來寺하여 위촉장 취소를 권유하여 本人[宗正]은 흔쾌히 승낙하고 곧 위촉장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탐 · 진 · 치 三毒心에서 우러나온 독기 어린 野慾을 지니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前 總務院長 金鏡岩은 本人의 有故 後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수여한 위촉장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여, 宗正의 동의를 얻어 종회의장이 소집하기로 되어있는 비상종회를 종회의장이나 現 宗正인 본인에게 한 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不法的으로 소집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현존하는 宗正을 有故로 선언하면서 宗正職務代行을 자칭하며, 새 종정을 추대하고, 또 總本山을 자신이 창건하여 住持로 거주하는 松華寺로 지정하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害宗行爲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本人[宗正]은 大韓佛教 佛入宗을 통할하고 대표하는 宗正의 체면도 있고 하여 金鏡岩이 자신의 잘못된 野慾을 참회하며 원상회복을 도모하기를 그동안 무척 기다려왔으나 상황은 그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金鏡岩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敎界 언론 등에 宗正 有故라는 공고를 내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간과해서는 宗團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될 상황이므로 賞罰法 제6조 3항[宗正 또는 중진 敎職者에 대하여 不敬 및 모욕적 언동이나 행위를 감행한 자]과 4항[徒黨을 만들어 宗團 和合을 파괴한 자] 그리고 6항[宗憲 및 宗法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행위가 있는 자]에 따라 大韓佛教 佛入宗을 통할하고 대표하며[宗憲 제9조] 總務院長 任命權[종헌 제14조]을 지닌 宗正의 권한으로 이번에 害宗行爲者 金鏡岩을 褫奪度牒과 아울러 그가 住持로 거주하는 松華寺도 大韓佛教 佛入宗에서 제적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害宗行爲者가 자기 野慾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종단의 존립기반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宗憲 제12조[宗正은 宗旨 및 宗風에 違背되는 宗會의 決議를 護法院의 再審을 거쳐 거부할 수 있으며, 不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宗會의 解散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中央宗會를 해산하고 동시에 本 宗團行政에 직위를 부여받은 종도들의 직위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종단의 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단이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宗正인 本人은 사부대중의 중지를 모아 大韓佛教 佛入宗 總務院을 새로 지정하고 總務院長도 물색하여 宗憲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겠습니다.

그동안 害宗行爲者 金鏡岩의 野慾과 煽動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害宗行爲를 한 분들도 더 이상 害宗行爲에 가담하지 않으면 "교단의 화합을 생명으로 삼으라."는 가르침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 종단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佛紀 2550년 11월 8일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禹 鏡 照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19일 안양본원서 봉행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제 18회 수계대법회를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봉행한다.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스님을 계사로 신도5계를 수지하는 이번 수계대법회는 안양 본원 및 전국 지원의 등록 신도와 희망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연태 기자

남양주 봉선사 삼존불 10일 복장 · 21일 점안식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는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청풍루에서 새로 조성한 삼존불 복장의식 법회를, 21일 오전 10시30분에는 삼존불을 모시는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삼존불 복장의식 법회에서는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이 참여해 작법 의식을 펼친다.

철안 스님은 "설법전인 청풍루에는 상주 설법을 하시는 비로자나불을, 운허 스님의 기념관이 들어설 서암에는 아미타불을, 그동안 어린이 법회 등 각종 법회가 열렸는데도 불단만 있었던 방적당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채플 자율화운동 확산 될까?

기독교재단 숭실대생, "종교자유 침해" 시정 촉구

종립대학 대부분 해당종교 필수과목 지정 '주목'

숭실대학교의 채플(예배)교육이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재단 설립 대학들이 해당 종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이들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심을 모은다.

이승욱(컴퓨터학부 3년)군 등 숭실대 학생 12명은 11월 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고 찬송하는 장소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기도를 행하는 등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며 학칙 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독교 의식과 찬양행위에 참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종교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침해이며,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음에도 학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욱 학생은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은 물론 강제적인 채플로 인해 반감을 가지는 학생들도 권리를 보호받아 모두가 이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채플 학칙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은 학교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11월 6일 채플 자율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가운데는 학측변경을 요구하는 이승욱 학생.

발표 직후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실에 학칙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칙 변경을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정부시책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학자연)은 교육당국의 소신있는 종교교육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사립학교의 선교 자유는 '교육'이라는 본질적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허용돼야 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그 개선 책임이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관련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주저 없이 나서라"고 압박했다. 또 두 단체는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숭실대 채플 학칙 개선을 촉구한 12명의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숭실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71.5%에 달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7%의 학생들이 '종교의식 참여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채플이 자율화되면 숭실대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는 22.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7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목탁소리

대선 나선 불교뉴라이트

11월 6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불교계 보수우익단체를 표방하며 불교뉴라이트가 창립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조계종 법 규 위 원장 천제, 부산 불 교 사회복지협의회장 혜총 스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발기인명단이 공개된 이후 일부 인사들이 "참여를 수락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있다"고 밝혀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 중에는 종교의 정치참여도 포함된다. 불교뉴라이트 창립준비위원장 장산 스님은 "내년 대선에서 우파 지도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당면 목표"라며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밝혔다. 게다가 전국의 각 시 · 군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성시화운동의 핵심 인사인 김진홍 목사와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직 · 간접적으로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관련돼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9일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기조는 같이 가지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불교뉴라이트의 해명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더욱이 불교뉴라이트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로 인해 불교계가 안아야할 부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봉영(취재부 기자)

안국선원, 美 하버드에 장학회 설립

5년간 기부금 50만불 조성

안국선원(원장 수불)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한국불교학 연구생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했다.

안국선원은 10월 30일 하버드 세계종교학회 소장 도날드 스웨이어 교수 등 조계종 미동부승가회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학 연구를 위한 안국장학회(이하 안국장학회)' 창립식을 봉행했다.

안국장학회의 이번 발족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 유지에 따른 것으로, 안국선원은 앞으로 5년간 총 50만불의 기부금을 조성해 현지 대학에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철우 기자

민주평통 종교인포럼 창립 발기인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함께하는 종교인포럼이 창립될 전망이다.

민주평통 종교위원회와 KCRP는 11월 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또 이를 기념해 '동북아 평화와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평통 종교인포럼은 창립발기취지문을 통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의 종교적 상황에서 민족사의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모든 종교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박경서 국제인권대사와 변진흥 KCRP 사무총장의 주제발표,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 나핵집 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 부위원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봉영 기자

원주 고판화 박물관 축제

고판화에 관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의 장이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1월 17~19일 고판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2회 원주 고판화 축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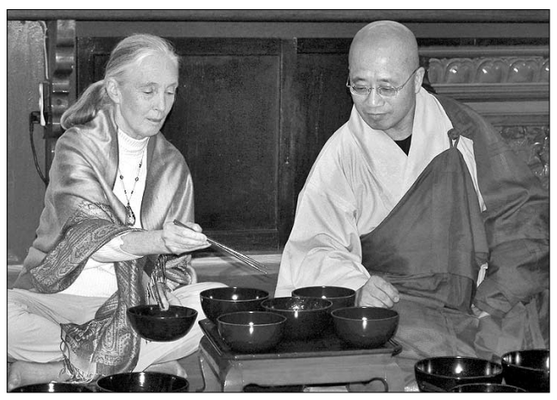
고판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지역 문화 축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중국 고판화 특별전(17~19일), 한 · 중 고판화 학술대회(17~19일), 산사음악회(19일) 등 다양한 문화 · 학술 행사로 진행된다. 고판화 특별전에는 이제까지 접하기 힘들었던 한 · 중의 고판화 100여점이 전시되며 산사음악회에는 성악가 유미애씨, 인기가수 신범석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김종헌씨 '조신의 …' 대상

제3회 불교문화디지털콘텐츠 공모전 대상에 플래시애니메이션 부문의 김종헌씨 작품 '조신의 꿈 그리고 애별리고'가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1월 9일 부 · 실장스님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한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우수상은 플래시애니메이션 부문의 최경씨 작품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와 캐릭터 부문의 최진주씨 작품 '안녕하세요? 부처님'이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이 제인 구달 박사에게 발우공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발우공양에 반했어요"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템플스테이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이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정성과 소중함을 가슴에 새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생명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72) 박사가 11월 8일 서울 화계사에서 서툰 젓가락질로 불교식 식사법인 발우공양을 체험한 뒤 밝힌 소감이다.

화계사 국제선원 무심 스님으로부터 발우공양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듣는 그의 모습은 진지했다.

죽비소리와 함께 시작된 발우공양. 낯선 환경과 체험이 낯설었지만, 발우공양에 담긴 의미를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식이 여기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음식냄새를 맡고 찾아올 숲속의 동물들을 위해 자신의 밥알을 나누어 베푸는 마음을 전해들은 구달 박사는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물속의 미생물까지도 배려하지 않았던가.

"음식 밥상에 오르기까지 정성 · 소중함 마음에 새겨"

열심히 설명하는 무심 스님에게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은 좀 더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해달라며 초대 손님을 배려했다.

앞서 열린 '희망의 밥상' 강연회에서 구달 박사는 500여 불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아닌 어린이들을 위해 환경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은 수질과 토양, 공기를 오염시키며 얻은 대가인데, 이마저도 다국적 기업과 일부 국가 국민들만의 일이라는 것.

"유전자조작 식품과 대량 사육 · 학대로 키워진 동물들이 밥상에 오르는 것은 지구의 비극"이라는 구달 박사는 "어떠한 파괴에도 스스로를 회복하는 자연의 치유능력과 인간의 뛰어난 두뇌, 열정을 지닌 젊은이와 불굴의 인간정신이 있는 한 암울한 상황을 극복할 희망은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봉영 기자

월정사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연구과정 개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성보박물관 문화대학이 연구과정을 개설했다. 연구과정은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이다.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이뤄지며 현장 실습을 기본으로 한 경험 위주로 진행된다. 학제는 2학기(1학기 5개월) 월3회로 이뤄지며, 매년 3월 개강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주 내용은 민화그리기와 도자기 만들기 등.

한편 월정사 성보박물관 문화대학은 2007년 3기생을 모집한다.

(033)334-1817 남동우 기자

불교서울전문강당 제 3기 수학생 모집 안내

개설 취지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종단 최고의 강백 스님들을 모시고 전통 강원 교과목에 대한 출 · 재가자의 교육욕구를 해소하고자 원전 강의를 개설하여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님 뿐 만 아니라 재가불자 들에게도 본 강당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승가교육의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취지를 두고 그 동안 1기와 2기생들을 원만히 배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 3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

1. 승 려 : 총 50명 내외
   구족계를 수지한 본종 비구 · 비구니 스님
2. 일반인 : 총 20명 내외
   5계를 수지한 재가불자(포교사 또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우대)

모집 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교육 시간 및 장소

1. 학 제 : 2년제 4학기, 학기당 수업 32회
2. 수업시간 :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6시~9시
3. 교육장소 : 법련사(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수료자 특전

1. 사찰 주지인 경우 당해연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 면제
2. 01년 이후 구족계 수지자인 경우 '2년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2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교육 과정 (2년제 4학기)

학기	과 목	교수사	교수사 이력	수 업 기 간
1학기	초발심자경문	의룡	前 직지사 강주	3. 6 ~ 3. 21
	서장	백운	前 범어사 강주	3. 6 ~ 3. 21
	도서	지안	은해사 승가대학장	5. 29 ~ 6. 27
2학기	육조단경	설우	전국 선원수좌회 위원	8. 21 ~ 9. 19
	선요	의룡	前 직지사 강주	10. 2 ~ 11. 7
	원각경	혜거	서울 금강선원 원장	11. 13 ~ 12. 12
3학기	능엄경	각성	화엄학 연구원장	('08년) 3월~ 5월
	금강경	통광	쌍계사승가대학장	('08년) 6월~ 7월
4학기	기신론	지오	前 해인사 승가대학장	('08년) 8월~ 9월
	화엄경 1	혜남	통도사 율주	('08년) 9월~10월
	화엄경 2	무비	前 교육원장	('08년)11월~12월

※ 교수사, 교육일수, 수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소정양식) - 1부
2. 반명함판 사진 - 3매
3. 포교사인 경우 포교사증 사본 첨부
   불자인 경우 신도증 사본
   또는 수계증명,
   불교교양대학 졸업증 사본 첨부



등록금

1. 스 님 : 1학기당 700,000원
   재가불자 : 1학기당 1,000,000원
   ※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입처는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접수기간

2006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원서 교부 및 접수처

조계종 교육원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 02) 2011-1810 Fax) 02) 732-4926
홈페이지 :http://www.buddhism.or.kr
E-mail : eunga@buddhism.or.kr

불기 2550(2006)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청 화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5강 : 설산수도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수진 스님(부산 해인정사 주지) / 11월 8일

부처님의 처절한 수행, 오늘날 시사하는 바 커

치열한 고행, 거짓된 나를 버리다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도는 깨달음을 얻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는 기업을 해야 하고 학문을 얻기 위해서는 학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업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업(業)'이 있습니다. 업은 까르마로 '행위'입니다. 학업도 농업도 기업도 업이고, 노는 것도 업입니다. 노는 업에 길들여져 있으면 공부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업을 잘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천오백여년전 화사한 봄날 룸비니 꽃동산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천상 천하에 오직 나 홀로 위대하니(天上天下 唯我獨尊)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一切皆苦 我當安之)." 여기에는 당신의 깨달음과 미래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면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 처절하게 수행할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고통받는 중생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위안만을 위해서 수도를 하는 것은 소위 소승에 빠져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자리와 이타가 함께 합니다.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성장하시면서 생로병사와 우주의 성주괴공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2월 8일, 마부 차익을 앞세워 거룩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국왕을 포기하고 법왕이 되고자 첫발을 옮기신 것을 '설산수도'라고 합니다. 국왕으로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여도 모든 백성을 궁극적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왕이 되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행복하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설산으로 구도의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무상을 깨닫지 않고는 출가해서 수도를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무상을 깨달아야 수도가 됩니다. 육체만 출가했다고 한들 진정한 출가이겠습니까. 인생과 우주가 그대로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출가해서 수도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수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무상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수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출가는 위대한 포기이고, 수도는 처절한 전쟁입니다.

수도의 전제조건은 우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고서는 절대로 수도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맺어진 모든 인연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출가는 위대한 포기입니다. 왕위도 버리고, 아름다운 부인 아쇼다라도 버리고, 하나뿐인 아들 라훌라도 버렸습니다.

'믿음 · 용맹심 · 정진'은 수도자의 삼대요건
쉽게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수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여야 출가 수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고, 소중한 것이 남아 있고, 부인, 아들, 돈, 명예가 남아 있는데 출가해서 수도가 되겠습니까.

설사 수도를 한다 해도 도를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는 처절한 것입니다. 민중을 위한 처절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을 위한 처절한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깨달음을 얻고 대 해탈과 자유를 얻는 수도의 길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돈 벌 수 있나요? 할 짓 다하고는 기업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윤 남기는 기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갈 곳 다 가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박가바' 칼라마, 라마풋다 등 소문난 성자를 찾아다니면서 도를 닦아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라는 고도의 선정삼매에 들어갑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계 안의 일이지 삼계를 초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것을 아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성자나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다가 어느날 니르선하에서 목욕을 합니다. 돌아오던길에 수자타라는 소녀가 공양올리는 유미죽을 드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수자타 소녀에게 유미죽을 얻어드시는 순간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던 다섯 비구가 부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다섯 비구는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에게 유미죽 얻어드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고행을 이기지 못한 낙오자라고 비난하며 녹야원으로 떠납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선정에 들어 삼칠일동안 처절한 수행 끝에 12월 8일 새벽, 샛별을 보고 깨달으십니다.

이 순간 부처님은 일체가 유심조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생즉종종법생 심멸즉종종법멸(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種種法滅). 내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유심의 조작이라는 겁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 안에 있고, 성공 실패, 지옥 극락, 중생 부처도 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 이 셋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조작입니다.

이 마음을 한번 탁 돌리면 극락세계가 목전에 있고,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님 세계가 눈앞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이 게송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가장 먼저 설파하신 <화엄경>의 요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실체를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법계의 일체는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처절한 수행 끝에 '유심조'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은 우주실체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면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아는 것이 되고 그 부처님을 알았다는 것은 곧 부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월 8일 열린 '빛고을아카데미'에서 수진 스님은 "부처님의 처절한 설산수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깊이 사유하고 진지한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하는데 첫째 조건은 확연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 둘째가 대 용맹심입니다. 용맹이 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 없듯이 용맹심이 없는 수도는 제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부단한 정진입니다. 확연한 믿음과 대용맹심으로 끝없이 정진하게 되면 결국 깨달음의 세계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용맹심, 정진은 수도자의 삼대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 명의 수행자가 삼십년 수도를 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 스님은 안거를 앞두고 "이번 안거에서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죽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세명분의 한 철 식량과 칼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에 앞서 남루한 노인이 찾아와 함께 정진하겠다고 청해요. 식량이 삼인분밖에 없어 세 스님은 노스님을 쫓아내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삼개월 동안 장좌불와를 하기로 하고 수행중에 졸면 사정없이 장군죽비로 내리치기로 했어요. 결제가 시작되고 첫날부터 노스님의 몸은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노스님을 쫓아내기 위해 죽비를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반전이 됐어요. 노스님이 세 스님을 때리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세 스님은 노스님에게 얻어맞지 않으려고 억지로 잠을 참다보니 순식간에 한철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해제 당일 노스님이 걸망을 메고 떠나면서 세 스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식량도 모자라는데 함께 한철을 살겠노라고 해서 미안하고, 한철 공부 잘 했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를 한바퀴 휙 돌리고 떠나는데 그 주장자가 푸른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세 스님이 탁 알아차립니다. 삼십년 수행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부처님은 숙세의 인연 때문에 육년 고행이지만 이 세 스님은 숙세 인연이 열악해서 삼십년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깨침이 부처님을 뛰어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나름대로 자유 행복을 그 순간에 얻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사유와 관조가 부족합니다.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똑같습니다. 깊이 사유하고 성찰함이 부족합니다. 고민하고 고뇌함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인지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유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처절한 수행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육년을 설산에서 수도하셨고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구년면벽 하였습니다. 수행을 하신다는 분은 기본이 육년 이상 수행을 합니다. 모든 것을 쉽게 빨리만 추구하는 오늘날 부처님과 수도자의 수행은 또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요, 무상합니다. 영화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없고, 권력 돈 명예도 영원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줄 알고 부처님께서 처절하게 수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을 냉혹하게 진단하고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산수도 모습은 처절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만 얻으려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처절한 수행을 보며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드리면서 법문을 마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우 리 의 입 장

현대 사회는 다변화, 급변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나아가 이러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불교상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종단은 어떠한 모습인가.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단을 이끄는 스님 가운데 몇몇은 개인의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종단은 물론 불교의 미래를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도나 탓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14대 종회의원 선거에서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오늘의 혼탁한 종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다. 교육의 부족에서 오는 우치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가의 교육을 통해서 청정승가, 시대를 선도하는 승가, 미래를 준비하는 종단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불교에서 승보의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비젼이다. 찬란한 불조혜명을 밝히는 근본인 것이다. 불교의 근본인 청정승가에 대한 교육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불교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설정된 3대 종책사업을 완수해 나아가는 첫걸음 또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94년 개혁정신을 구태로 망각해가는 작금에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승가인이 경책의 죽비를 들지 않을 수 있으랴.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우리 1500여 동문은 오늘 분연히 일어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지금까지 승려 인재를 양성하며 종단과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기관으로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승가대학교의 운영예산 가운데 60%를 종단에서 지원하여 왔다. 종단의 예산은 거의 90%를 분담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찰재정의 악화로 분담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분담금에 의존하는 종단예산의 세입 증가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중앙승가대학교의 예산을 전적으로 종단이 담당하여 학교를 발전시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단의 상황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술 및 교육 목적사업의 예산배정이 어려우며, 편성된 예산에 따른 사업의 진행이 아닌 매월 종단전입금 수입에 따라 사업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승가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학교의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의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봉은사는 종단의 각종선거와 정치세력간의 경쟁에서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종단과 봉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정치거래의 대상이 되다보니 종단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봉은사의 안정과 발전에도 장애 되어 한국불교 발전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봉은사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단초는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교육불사 근본도량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함으로서 종단과 봉은사,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단에는 예산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정치적으로도 맑아질 것을 확신한다. 또한 봉은사는 그간 정치적 변화로 겪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사중의 안정을 가져 올 것이며, 아울러 기도와 수행과 불법홍포에 전념함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며, 인적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봉은사와 중앙승가대학교의 사학협력이 이루어지면 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찰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승속이 함께하는 운영 모델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불교 발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수직적이며 획일적인 종무행정구조를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공동의 공개운영으로 사찰운영의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불교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수 · 대학원생 · 학부생 등의 인적자원과, 학교 부설 연구소의 학술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봉은사를 신도교육과 승가교육의 중심지, 문화와 수행포교의 거점 도량, 사회복지와 승가복지의 핵심센터로 자리매김하여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승가인은 청정승가 구현에 앞장서자.

◇ 종단은 미래를 대비하는 승가교육에 투자하라.

◇ 종단은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 종단은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라.

“어른의 ‘자리’ 함께 생각해요”

전국최초 노인학대 주제로 연극 공연



부산 용호복지관의 ‘햇빛연극단’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연극 ‘새는 둥지에서 날개짓을 배운다’의 공연 모습.

용호복지관 ‘햇빛연극단’ 주축
배역 바꿔가며 상대 입장 이해
개금·기장·전포복지관서도 공연

“맨날 눈만 뜨면 아프다고 노래를 하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나이 오십인 나도 여기 저기 아프다고 신호가 오는데 연세가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참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와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주는 밥 챙겨 드시고 집에 얌전히 계이소 마!”

11월 8일 용호복지관 강당에 마련된 무대에서 연극이 시작됐다. 연극을 지켜보던 용호복지관 노인대학 학생들은 며느리와 아들이 하는 대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배우들의 대사와 동작을 따라 때론 며느리의 입장도 돼 보고, 때론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노인의 입장에서 웃고 울면서 연극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노인학대’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이번 연극은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김영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연극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새는 둥지에서 날개 짓을 배운다’는 제목으로 50분간 공연된 이번 작품은 가족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실상을 연극으로 풀어내고 관객들에게 노인학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 연극을 만든 극단은 연극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용호복지관의 ‘햇빛연극단’의 멤버가 주축이 돼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의 ‘오아시스’연극단과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극을 직접 만들었다. 이 같은 시도는 불교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두 기관이 내적 자원을 서로 연계해 보다 풍부한 복지 사업을 펼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박동민 연출자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상황들을 모아 직접 대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벌어지는 정서적, 언어적, 심리적 노인학대 상황들이 연극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그래서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감정이입도 크다. 연출자인 박동민 씨는 “최대한 감정이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노인학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면을 이용했지만 관객들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노인학대 문제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보편적인 문제로 부각됐다는 방증이다.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는 부산 시내의 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에 공문을 보내 신청이 들어오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용호복지관의 공연에 이어 11월 17일에는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세미나’와 함께 2부 행사로 공연을 연다. 이 밖에도 11월 28일에는 부산시노인복지관, 30일에는 개금복지관, 12월 15일에는 기장군노인복지관, 12월 19일에는 전포복지관 등 곳곳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극을 기획한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정선경 팀장은 “연극을 보면서 노인학대를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선악의 양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받고 이해해야 할 가족의 큰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돼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51)867-911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리 성년 됐어요

대불어 20주년 기념식 및 연수회 개최

‘연꽃’ CD 제작, e-book 시연도
10여권 앨범 모아 20년사 정리
법회 프로그램 체험 강의 마련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법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불어의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어린이 포교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한다.

대불어의 이번 전시는 11월 11일 조계사에서 열린 어린이포교 전진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고 11월 25일과 26일 충북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대불어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전국의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을 만난다.

1928년 용성 스님의 대각 일요법회로 시작된 어린이 포교의 태동부터 전국 조직화 움직임, 대불어의 창립, 어린이 포교 활성화, 어린이 포교 전성기, 미래를 향한 어린이 포교 등 열장의 전시판에 어린이 포교사를 정리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불어의 20년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상영하며, 통권 330호를 맞이한 ‘연꽃’지의 발전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983년 최초로 발행된 연꽃 1호지부터 정리 전시한다. 또한 최근 CD로 제작되고 있는 연꽃지와 웹진, e-book 시연 등의 행사도 갖는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시연과 3D 영상도 제작 선보인다.

대불어가 20주년을 맞아 마련하는 20주년 기념식은 4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와 함께 열려 현재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은 물론 20년 동안 어린이 포교 현장에서 함께 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25일 3시 50분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어린의 포교의 터전을 일구어온 이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된다.

20주년을 맞은 대불어가 준비한 선물도 푸짐하다. 10여권이 넘는 앨범 속에 차곡차곡 간직돼 왔던 20년간의 어린이 포교 활동사진 들을 200쪽 분량의 <어린이 포교 20년사>를 엮어 선물한다. 또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찬불가, 강의 등의 베스트 모음 동영상 CD와 다양한 법회 일지를 기록할 수 있는 불기 2551년 다이어리도 3천부 제작, 배포한다. (051)864-4570

천미희 기자

“포교 위해 도량·인재불사 원력 모을 것”

부산 홍법사 개원 3주년 문화행사 및 기념법회



외국인문화기행을 통한 외국인 포교, 토요일 휴업일의 토요체험학습 등 앞서가는 문화 포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개원 3주년을 맞았다.

11월 5일 홍법사가 위치한 드넓은 농원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 법회로 풍성했다.

이날 개원 3주년을 기념하며 홍법사 대웅전에서는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청한 법회가 열렸다. 법문에 앞서 심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홍법사가 이뤄낸 많은 결실들은 모두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을 비롯 신도님 한분 한분의 정진 덕분”이라며 “앞으로 포교 도량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도량 불사와 인재 불사를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영 스님은 “우리의 마음자리는 본래로 부처이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굳건한 믿음의 힘으로 정진을 늦추지 말고 정진해 본래면목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2부 행사로 홍법사 관음연못에서 남순동자 점안식을 봉행했으며 오후 1시부터는 잔치 한마당을 열어 개원 3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경내 곳곳에 개원 3주년 기념 나무 연필 전시회, 홍법사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진전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이 부산불교계 복지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선양복지원에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사진). (051)508-0345

천미희 기자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통도사성보박물관서 열려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 11월 10~11일 양일간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8회 불교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일 오후 2시 불모 석정 스님의 이름을 따서 제정한 석정학술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강소연 홍익대 교수의 ‘온불존의 회통, 조신시대 전범양식의 창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열렸다. 제2회 석정학술상 수상자로는 송은석 리움미술관 연구원이 선정됐다.

송 연구원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불좌상 연구’ 주제의 논문을 통해 아미타 삼존불이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 졌다는 종전의 설을 반박하고, 고려말 조선초에 유입된 중국화한 티베트양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불상양식을 결합하여 창출해 낸 새로운 도상과 양식의 결과물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지운 스님 자비수관 강좌 부산서도 열기 ‘후끈’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자비수관 수행법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 수심회 주최로 11월 9일 부산 소림사에서 부산 불자들을 위한 자비수관 강의가 열렸다. 자비수관 법회에 앞서 영도 화방다래원에서는 지운 스님의 다선 강좌도 열렸다.

지운 스님이 직접 쓴 <깨달음으로 가는 길> 교재를 사용한 자비수관 강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열어온 자비수관 법회는 4주째를 맞았으며, 다선 강좌는 두 번째.

이번 강좌는 6개월 동안 자비수관에 관심이 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선과 자비수관은 오후 4시30분과 오후 7시 소림사에서 매월 2, 4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051)413-6261 **천미희 기자**

창녕 인양사 술정리 동탑제

경남 창녕군 인양사(주지 혜일)는 국보 34호 술정리 동3층석탑 보호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탑제를 11월 7일 술정리 동탑 앞에서 봉행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동탑제는 발원문 낭독, 문화유산헌장 재창, 축사 순으로 봉행됐으며 부산 장애아동시설 성우원 원생들의 찬불가 합주가 축제의 분위기를 더 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 비교되고 있는 술정리 동탑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65년 해체, 복원 작업 중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은 사리공과 사리병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은아 기자**

성파시조문학상 시상식

성파시조문학상 제정위원회(위원장 정해원)은 11월 4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제23회 성파시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염동근, 하순희 시인이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성파시조문학상 창시자인 통도사 서운암 주지 성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절제된 시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또 다른 포교이며 구도의 한 방편”이라며 “앞으로 시조시인들이 더욱 깊이 있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 달라”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 홈피 자원봉사자 모집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산옹)가 월간 <등불> 기자, 통도사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관련분야에 종사자 또는 분야별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이력서, 증명사진 1매. 각 분야별로 2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5)382-7182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우리는 왜 승가인 대회를 하는가?

- 주지 임명에 즈음하여 -

중앙승가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원 원우회, 그리고 총동문회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제대로 된 교육만이 담보할 수 있다는 시대적 소명감을 안고 승가인 대회를 가진지 3일이 지났다. 종단의 유일한 승려전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침체된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고지순한 뜻이었다.

이러한 순수한 요구와 의사전달을 위해 봉은사에서 승가인 대회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승가인 대회를 통해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교의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교육이념이 있는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절이나 빼앗으려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종단 지도부의 안목과 한계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절박하였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에 매진하여야 할 학인스님들이 나서야 했을까? 살펴보고 대화하여 해결하려는 상생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종단의 현실이란 말인가. 종단 지도부의 사고에 암담함만이 더한다.

종단의 지도부가 승가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한계성을 갖다보니 오늘의 불교가 도시에서 밀려나는 종교가 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신도의 주축을 이루던 노인인구 마저 불교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져 이 땅에서 불교는 제3의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 어쩌다 한국불교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이는 타종교와 교육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종단이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갖추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의 흐름, 사회의 변화, 시대의 요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가교육이란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스님이 총무원장스님을 면담하여 학교발전방안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동문회에서는 『21세기 불교위상 제고를 위한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종단에서 승가교육의 비젼을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관심조차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종단을 이끌어 가는가.

중앙승가대는 타종교의 전문교육기관과 경쟁력이 뒤떨어진지 이미 오래이며 지방의 소규모 대학보다도 열악한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종단은 오늘(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승가대 학인들의 학비는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비불교적이며 전근대적인 삼류 천민자본주의적 생각에 사로 잡혀있음을 선언하였다.

중앙승가대학교는 종단 유일의 승려전문 교육기관으로 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동국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승려를 위탁 교육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묵과하고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고 있다. 교육이념과 목적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계를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승가대는 전통 교육방법으로 사찰에서 운영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급되는 재원은 지원금이요, 승가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자금이다. 이것도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어찌 종단 지도부의 안목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종단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학교의 학인 통계와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본교의 1학년 학인 65명 가운데 15명만이 조계종 승려라고 발표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자료를 발표하라. 15명을 제외한 학인이 조계종의 승려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학인에게라도 배워야 할 것이지 스스로 무지를 소리칠 것까지 있겠는가.

총무원 집행부가 이러하기에 불교의 교세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종단의 현실을 현 집행부가 끝까지 고집 한다면 우리 불교는 머지않은 장래에 화석화되고 말 것이다.

16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니 그 역사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임을 연기법으로 설명하면서 어찌 현실과 미래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인가. 오히려 과제를 제시하는 순수한 학인을 매도하는가.

우리는 종단을 위해, 불조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출가 수행자로서 이 한 몸 바쳐 불교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랴. 영광스런 구종을 위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 정진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종단은 미래를 대비하는 승가교육에 투자하라.
◇ 종단은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하라.
◇ 신임주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불사에 전념할 스님을 임명하라.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 작업 몰두

수성 스님(대구 정토사 주지)

세로 편집·글자 크기 등 옛것과 똑같이 입력
제책도 전통 방식으로
현재 3만 6천여장의 고려대장경 교정 마쳐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작업을 하고 있는 대구 정토사 주지 수성 스님. 스님은 컴퓨터를 이용해 옛 목판본 경전을 고스란히 옮기며 한자 한자 교정하고 있다.

"인쇄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강원에서는 옛 목판본 인경한 것을 복사해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자도 많고 목판본의 마모로 글자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워 학인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수성 스님(대구 정토사 주지).

수익성도 없고 한 두 해 작업으로 될 일도 아니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지만 "누가 해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16년째 강원 교재 교정 작업을 하고 있다.

스님은 강원에서 공부할 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교재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처음에는 붓글씨를 익혀 직접 쓰려고 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됐다.

<반야심경> <천수경>부터 입력하기 시작한 작업. 스님은 세로쓰기가 되지 않는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그러나 스님의 '작업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예전 책과 똑같은 세로 쓰기의 모양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다. 페이지며, 글자크기까지 심지어 테두리선까지 똑같이 만들어 옛것과 비교하기 쉽게 입력하고 있다.

스님은 지금까지 <능엄경>(10권짜리를 3권의 제본으로 만들었음) <대승기신론>(4권), <원각경>(6권), <금강경오가해>(상하)를 책으로 만들었다. <능엄경>과 <금강경오가해>는 통도사 목판본으로 만든 것이며, <대승기신론>과 <원각경>은 하동 쌍계사 목판본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서울 봉선사, 봉녕사, 동학사, 순천 선암사에서 이 책을 학인스님들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책은 각 200부씩을 만들었는데,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한지에 한 장 한 장 인쇄하고, 제책도 옛기술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페이지며, 글자크기며 모양이 예전 목판본 인쇄본과 꼭 같다.

스님은 동국대 역경원에서 만든 <고려대장경영인본> 축소판 교정 작업도 시작했다. 48권 중 3권에 대한 교정 작업과 자판입력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불사비가 없어 아직 책으로 만들지는 못한 상황이다.

가본으로 만들어 <신편 고려대장경>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역시 <고려대장경영인본> 축소판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작업을 사비로 충당해온 스님은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면 그 돈을 털어 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미 장경연구소에서 팔만대장경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다지만 스님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료만 입력한 상태여서 오자가 많고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경의 내용도 알고 한문도 잘 아는 사람이 교정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성 스님은 옛 목판본과 똑같은 모양으로 입력해 언제든지 쉽게 원본과 대조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편리하다. 스님은 현재 3만 6천장 정도의 <고려대장경> 목판본 교정 작업을 마친 상태다. 목판은 양면에 새겨져있으니 책으로 보면 7만장 분량의 교정 작업을 마친 셈이다. 스님은 또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해온 <대장일람집>도 교정정리하고 있다. 이는 일본 목판본을 인경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스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필독서다. 종이 578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장경을 일람한 후 축약한 '해례서'라고 할 수 있다. 교정 입력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월운 스님의 감수를 거쳐 곧 책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세수 68세 법랍 50세의 수성 스님은 불영사로 출가해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강원을 나왔다. (053)761-8676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소리로 마음의 눈 밝혀요

맑고향기롭게 소리봉사 모임

99년 결성 후 회보·경전 등 불교도서 녹음
한 평 남짓 녹음실서 최고의 목소리 위해 진력

11월 6일 저녁 7시, 대구 수성구 맑고향기롭게 대구법당 한 켠에 마련된 작은 녹음실에 불이 켜졌다. 불교도서녹음 봉사단체인 '소리봉사모임' 회원들이 불교도서녹음을 시작한 것이다. 임선지(30·노동법률상담)팀장이 먼저 녹음실에 들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녹음하고, 김영미, 황분택씨가 이를 지켜보며 컴퓨터를 조작하고 잘못 녹음되는 곳이 있는지 살폈다. 녹음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편안하면서도 단정하다. 일반인이 듣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데 임 팀장은 한 문장을 세 번 네 번 반복 녹음했다.



"소리녹음, 정말 재밌어요. 다만 글을 소리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님의 글이 왜곡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가 걱정일 뿐입니다."

김영미(42)씨도 속내를 보였다. 법정 스님의 글이 좋아 스님의 책을 녹음하는 소리봉사모임에 가입했다는 김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스님의 글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뜻은 빼고 내용이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녹음을 시작했다.

"혀 짧은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녹음실에 들어가기 전 황분택(52)씨가 다른 회원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구했다. 좀더 매끄럽게 녹음하고픈 마음에서다.

맑고 향기롭게 법당에 와서 설거지 봉사부터 시작해 이곳 녹음실까지 들어왔다며 자랑스러워하는 황씨는 처음 녹음을 시작하면서 입이 다 헐었단다. 50대의 연륜이 묻어나는 황씨의 목소리엔 독특한 매력이 풍기는데 황씨는 그저 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울리지는 않은지 혹은 끝을 길게 빼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안달했다.

"몸 풀고, 입 풀고, 혀 풀고." 정성을 다해 시작하는 이들의 녹음은 밤9시~10시를 넘기며 이어졌다.

소리봉사모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독교계 녹음도서가 주를 이루는 반면 불교계 녹음도서는 전체 녹음도서의 5%가 채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김은영(초대팀장)씨의 제안에 따라 1999년 10월 결성됐다.

처음 7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소리봉사모임은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에서 발간하는 <첫마음> 회보를 녹음해 대광맹인불자회와 운전전불자연합회에 전달해 큰 호응을 얻고 지난해에는 <돈오입도요문론> <고봉화상선요어록> <불교 선수행의 핵심> <서장공부> 등의 불교도서 녹음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김은영 초대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회원들마저 빠지면서 해체 위기를 맞았다. 소리봉사모임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원을 모집해 지난9월 재결성식을 갖고 매주 월요일 모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다.

현재 녹음봉사회원은 3명, 편집회원을 포함해도 5명이 전부인데다 신입회원을 이끌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지역유일의 불교도서녹음봉사단체라는 것을 잘 아는 회원들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나온 아나운서용 발음 낭독교육테이프를 통해 스스로 발음 발성법을 익히며 모임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다.

임선지 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작된 불교도서녹음이 시각장애인들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역대 조사 진영 17점 공개
예천 용문사 성보유물관 개관



경북 예천 용문사(주지 청안)가 11월 5일 성보유물관 낙성식을 봉행했다.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0평 규모의 목조한식구조로 건립된 성보유물관은 전통사찰과 어울리는 외관을 자랑하며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용문사 성보유물관은 이날 개관을 기념해 용문사 초창주 두운선사 진영을 비롯한 청허 휴정선사 진영 등 용문사가 소장하고 있는 역대 조사 진영 17점을 모두 공개했다. 또 팔상탱(1709, 보물 제1330호)과 천불탱, 시왕탱, 사자탱 등 불화와 불상 공예품, 서지류 등 용문사 소장 유물 192점 중 80여점을 전시했다. 특히 대장전과 같은 단청과 내포를 갖춘 실내로 조성된 제2전시실에는 윤장대(회전식 불경보관대가 실물과 같은 비율로 복원돼 모든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선 기자

'추억의 경주 신혼여행' 유적지 답사 및 한방체험 등

"자, 날 좀 봐요~ 어디, 상감마마 같은가."

11월 8일, 옛 신라의 궁궐터 경주 안압지에 '왕'과 '왕비'가 납시었다. 신라문화원(이사장 진철)이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는 '추억의 경주 신혼여행' 시범관광에 나선 참가자들이 왕과 왕비 옷을 입고 기념촬영에 나선 것. 대례복에 금관을 쓰고 금목걸이까지 착용하니 TV 사극에서나 보던 왕과 왕비의 모습인데, "여봐라" 호령하고 팔을 뻗는 모습이 어설프기만 하고 터져 나오는 웃음은 참을 길이 없다. 신라문화원이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관광에는 60세 이상 노부부 9쌍이 참가했다.

이들은 2박3일간 여행가이드 2명과 간호사 1명 등 진행요원 5명의 안내를 받으며 경주의 추억을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경주박물관과 천마총 불국사 등을 둘러보며 경주역사문화에 대한 해설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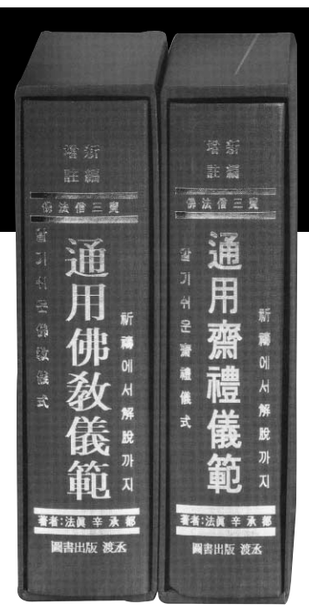
'추억의 경주신혼여행'은 신라문화원이 '2007 경상북도 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로부터 수탁받아 60~70년대 각광받던 신혼여행지였던 경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도록 기획 개발한 고품격 여행상품이다.

(054)774-1950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불교유물 불모지 군산에

국보급 문화재 돌아왔다

대구 고미술가, 성흥사에 삼존불 등 유물 15점 기증

불교관련 지정문화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산의 한 사찰에 백제 관음보살상과 쌍사자 석등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 15점이 한꺼번에 모셔져 화제다.

화제의 사찰은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

성흥사는 개산 162주년을 맞아 11월 2일 소장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보문화재는 고려 청동관음보살 삼존불(1010년), 백제 관음보살상(7세기), 금동여래불입상(8세기), 쌍사자석등(9세기), 금동 9층불탑(고려시대), 금동금강저(13세기), 금동반가사유상(15세기), 청동범종(조선시대) 등이다.

이 유물 가운데 청동관음보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물은 대구에 거주하는 고미술 전문가 유성철 씨가 기증했다.

이날 유성철 씨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구입한 청동관음보살 입상의 명문을 연구하던 중 예전에 성흥사에 소장된 삼존불 가운데 한분임을 발견하고 가족회의를 거쳐 기증을 결정했다"며 "군산지역에 불교유물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성보문화재를 함께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가 기증한 불교유물 가운데는 국보 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관음보살상과 토지박물관에 소장된 금동 9층불탑과 쌍을 이루는 불탑, 통일신라시대 석등, 삼국시대 금동여래불입상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희귀한 성보문화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일부 유물은 공주대로부터 성분분석 등 과학적인 감정을 거쳐 백제,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추정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은 "유물은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해 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성보박물관을 건립해 친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준엽 기자



우리차 문화 한자리서 체험
해남 대흥사 초의문화제 성황

다성(茶聖) 초의선사를 기리고 우리차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제15회 초의문화제가 11월 4-5일 양일간 해남 대흥사(주지 몽산)와 일지암, 해남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렸다(사진).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는 4일 일지암에서 초의선사 열반 140주년 추모제를 시작으로 조사다례, 육법공양, 초의상 시상, 서예대회 등을 개최했다.

초의문화재가 열린 대흥사 경내에는 들차회, 컵등 만들기, 서각, 어린이 차 문화교실,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졌으며 부대행사로 차음식 한마당, 도자기 작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대흥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불교전통문화원장 석혜 스님과 한국차문화협회 수석부회장 최옥련 씨를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어 대흥사는 초의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산사의 울림, 소리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원형 테이블에서 우리 차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은 "해마다 열리는 초의문화제를 통해 우리차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수행 가풍 살려 포교 주력"

interview 백양사 신임 주지 성오 스님



열린 종무행정 추진
'우화루' 참배객 쉼터로

"밥은 굶을지언정 포교는 굶지 않겠습니다"

11월 20일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에서 주지 진산식을 여는 성오(사진) 스님은 "'수행으뜸' 백양가풍을 되살려 수행과 포교가 어우러진 총림이 되도록 대중과 가람외호에 힘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는 근대들어 환응 · 만암 · 서옹 스님 등 많은 선사와 조계종 종정을 배출한 수행우선의 가풍을 지니고 있다"며 "역대 선사들의 수행의 빛이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장스님과 문중 어른스님을 중심으로 화합, 열린 종무행정, 포교강화"를 3대 목표로 제시한 성오 스님은 "종무회의에 총무, 포교, 재무 등 7직 소임은 물론 선원장, 강주, 율주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열린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참여하는 종무행정으로 내적으로는 총림의 위상을 구축하고, 외적으로는 사중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포교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스님은 "강원에도 전통 불교의식과 현대 포교를 강화해 포교 선봉장 배출을 위한 '전천후 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화루'를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어 백양사를 참배하는 이는 누구나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안하고 다시 찾는 백양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양사 전체 문도의 추대로 28년간 주지를 맡아 수많은 일화를 남긴 봉하 스님의 맏상좌인 성오 스님은 "은사스님이 펼친 원융살림 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1959년 봉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백양사 승가대와 광주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11대 ·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전남 지방경찰청 경승, 광주 광산불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2004년, 광주 광산구 신시가지에 도심포교당 마하보리사를 창건해 지역포교에 앞장서 왔다.

이준엽 기자

interview 유성철씨

'성보박물관 건립 희망" … 추가 기증 약속



"백제 관음보살상과 탑을 백제땅에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 공덕으로 영, 호남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 군산 성흥사에 백제 관음보살상과 금동 9층불탑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 15점을 기증한 고미술 전문가 유성철(47 · 사진) 씨는 "성보문화재가 전무하다시피 한 군산지역에 성흥사 불교유물은 지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우연히 수집한 청동관음보살상이 성흥사에 소장되었던 관음보살 삼존불의 하나임을 발견하고 유물을 기증하게 됐다"며 "문화재 감정을 거쳐 군산에 불교성보박물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군산은 일제 때 일본인에 의해 수많은 문화재가 수탈당해 불교유물이 거의 없는 불교유물 불모지로 알려져 있다"며 "성흥사에 성보박물관이 건립되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관련유물을 더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니르바나 불교사진전 개최
광주 덕림사, 시왕재 봉행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가 개최한 제1회 니르바나 불교사진 공모전에서 윤연자(서울)씨가 출품한 '바라춤'이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덕림사는 11월 5일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금상, 특별상 등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했다.

불교사진 전시회를 겸해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무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200여명의 사진애호가들이 6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해 불교사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며 "정적인 사진의 우수성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년 불교사진전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봉규 국전초대작가는 심사평에서 "첫 대회였지만 전국에서 골고루 참석해 전국대회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다양한 소재와 독창성 높은 작품들이 많아 전시장에서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덕림사는 명부전에서 시왕을 통해 업장참회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제2회 시왕재'를 봉행하고 불교예술축제 한마당을 펼쳤다(사진).

이준엽 기자

'가을밤의 음악여행' 자선음악회
진각종 대전교구청 심인합창단

진각종 대전교구청 심인합창단(단장 일상주)은 11월 2일 대전 연정국악원에서 '가을밤의 음악여행' 자선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진각종 총금강회 대전지부와 진각복지재단 대전지부가 주최한 음악회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훈련소 군악대, 우송대 소울리즘, 오카리나연주단, 소프라노 민진기씨, 테너 박용기씨 등이 출연해 공연을 축하했다.

진각종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는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올 겨울을 맞자"고 격려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모금된 성금은 전액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됐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전남도청불자회 창립 5주년



전남도청 공무원 불자회는 10월 3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백양사 주지 성오,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등 도내 각 사암 스님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물러섬 없는 용맹심으로 지역발전과 포교를 위해 실천하는 직장 불교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청불자회를 대표해 문정금 불자는 발원문에서 "게으름 없는 정진과 자비심으로 도정을 수행하고, 일하면서 부딪치는 고뇌는 부처님 혜안으로 녹여져 궁극에는 전남발전과 나아가 나라가 편안해지기를 기원"했다.

한편 전남도청불자회는 70여명의 회원이 정기법회와 사찰참배를 통해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안, 강진, 해남 등 지역시 · 군청 불자회와 연합법회를 갖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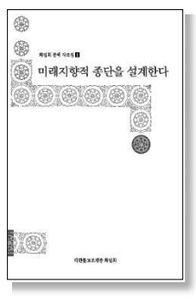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화엄회 종책자료집 배포



◀ 종책자료집 1

종책자료집 2 ▶


올 3월과 9월, 화엄회 세미나 개최와 아울러 종책자료집 1권과 2권을 간행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자료집 요청이 끊임없이 쇄도하였기에, 화엄회에서는 종책자료집 1권과 2권을 재판(再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교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화엄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화엄회는 앞으로도 종책 개발과 입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엄회 자료집 요청 문의
사무국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 6층
전 화 02)515-9351 팩 스 02)518-8998

대한불교 조계종 화 엄 회

“소수정예 엘리트 대학으로”

interview 개교 10돌 맞은 진각종립 위덕대 한재숙 총장

진각종립 위덕대가 10월 18일 개교 10돌을 맞았다. 위덕대는 대한불교진각종 산하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지난 1996년 경북 경주에서 개교했다.

개교 당시 입학정원 400명으로 출발한 이 작은 대학은 현재 22개 학부, 31개 전공(야간 3개 전공포함), 5개 대학원에 3, 286명의 재학생과 219명의 교직원을 갖춘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위덕대는 2004년까지 신입생 충원율이 50% 선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는 85%로 늘어나 학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덕대 한재숙 총장.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해 등록금 의존도 낮출 계획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2004년 3월 취임한 영남권 대학 유일의 여성총장인 제 3대 한재숙(59 ·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회장) 총장의 노고가 컸다.

한 총장은 취임이래 지난 몇 년간 부진한 신입생 입학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자구 노력에 심혈을 쏟고 있다.

11월 6일 위덕대 총장실에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힘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위덕대호’ 선장 한재숙 총장에게 위덕대의 비전을 들어봤다.

▲신입생 입학률이 떨어지고 재정자립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지방 사립대학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덕대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총장직을 맡고보니 위덕대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대단히 건실한 대학이더군요. 하지만 재정수입의 85%가 등록금으로 충당될 만큼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내 테니스장과 인도어 골프장, 볼링장 등을 만들어 외부 대여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또한 외식산업학부 등도 크고작은 지역 행사에 참여시켜 수익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위덕대는 지방 대학이지만 올해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환경개선도 부문 평가에서 201개 대학중 10위를 기록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위덕대는 교수확보율이나 교지확보율, 교수진의 캐리어와 자격요건 등에서 우수합니다.

특히 교수들이 대체적으로 젊다보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또 각 전공마다 정원이 적어 소수정예로 온 정성을 다해 엘리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취업률도 69.3%로 지방대학중 상위권에 속할 만큼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학과는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 음식문화 콘텐츠 전세계 시장에 선보일터

▲취임 후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과는?

–지역에 적합하고 수요에 맞게 전공과를 몇 개 바꾸었습니다. 가까운 울진과 영덕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북유일의 전기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멀티미디어과를 분할해서 게임학과를 만들었으며, 외식산업부와 문화컨텐츠 등 지역의 타대학과는 차별하여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전공을 개설했고, 교육부문에는 유아교육, 초등특수교육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특수교육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장님이 취임해서 국제화 교육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7+1프로그램’과 ‘2+2프로그램’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입니까?

–2년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5개국 14개 대학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이 교류대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7+1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뉴욕공대(NYIT)와 미국 웨스트대, 일본 탓쇼 종립대, 필리핀 앙헬레스대, 중국 신양 체육대 등에서 56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0여명이 한 학기동안 공부를 마쳐 어학공부와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5개국 14개 대학과 협정 해외대학서 공부 기회 제공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2+2프로그램’을 만들어 2년은 위덕대에서, 나머지 2년은 해외 교류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덕대 학과중에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 더 집중육성시킬 것들이 있다면?

–경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다 보니 관광경영학부와 관광영어학부, 사회체육학부, 외식산업학부 등 범관광계열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설로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동해권의 관광 · 문화 콘텐츠를 우리 대학 출신들이 담당하도록 집중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경주=김주일 기자


태고종은 11월 9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도 자정결의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불미스런 일 참회” 종도 자정결의정진법회 열어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1월 9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도 자정결의 정진대법회’를 개최했다. 이 법회는 최근 황룡사 사건과 선암사 사태 등 종단 안팎으로 크고 작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 종단의 기강 확립과 종도 화합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운산 스님은 “12월 중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위해 새로운 인사와 직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3부원장(교육, 재무, 행정) 중심 체제의 팀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그동안 불미스런 사태를 통해 종도들에게 걱정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머리숙여 참회하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울일 것 △수행종단의 풍토를 조성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확립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11월 10일 낙성법회를 봉행한 인천 천태종 황룡사 전경.

천태종 황룡사 10일 낙성식 주말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인천에 위치한 천태종 황룡사(주지 무원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가 5년여의 공사 끝에 11월 10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000년 남북통일과 인천불교의 중흥을 발원하며 첫 삽을 뜬 황룡사는 총공사비 90여억원을 들여 4700평의 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000평 규모로 세워졌다. 1층은 향적당과종무실, 2층은 설선당, 3층은 대법당 4층은 대불보전과 적묵당 등이 들어서 있다. 무원 스님은 “불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주말 템플스테이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를 상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서울 도심사찰 군포교 ‘왕성’

신병 생일 축원 · 노래 공연 등 정기 지원활동

서울 도심 대형 사찰들의 군포교 지원 활동이 왕성하다. 정기법회 지원은 물론 위문공연, 수계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군불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반야법회, 대승법회, 거사법회, 문수법회, 중부 지역 법회 등 산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군법당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승법회는 매주 넷째주 일요일 1사단 신병교육대를 정기적으로 위문해 생일자 축원 및 대형 케익을 선물하고 청년회 노래동아리인 ‘소리마루’의 공연도 함께 펼친다.

반야법회는 심원사를 찾는 불자 장병들에게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주고 있고 중부지역법회는 경전 해설 법회를 봉행해 불자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중에서는 자비의 단주와 봉축 위문품 전달, 좌복 보시, 논산훈련소 연무사 수계법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도 지역법회에서 직접 군법당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채납 하는 등 왕성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19일 불광사 신도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1사단 15연대 2대대 법당 점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고 1사단 내 세곳의 군법당 건립에 힘을 보탰다.

분당구법회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병실 위문을 통해 몸이 아픈 장병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고 경기도 파주 문산 지역 다수 군법당에 신도들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명진)는 신도회와 지역법회 위주로 군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정기법회 지원이 주류지만 법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군법당은 법회 동참 인원에 따라 매달 10만원에서 50만원씩 현금 지원을 하고 있어 법당 운영의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도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와 함께 현재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는 포교 게시판을 장병들이 병영 생활하는 휴게실, 화장실 등에 부착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무반 및 화장실 등에 부착된 포교게시판을 전액 지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일면 주지 스님은 “서울 도심 대형 사찰에서 군포교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며 “군포교가 불교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사찰	지원 단체	지원 사찰	지원 내용
조계사	반야법회	심원사	매월 넷째주 정기법회
	대승법회	1사단 신병교육대	매월 넷째주 정기법회 생일축원 등
	거사법회	1공병여단 군법단	매월 둘째주 정기법회
	문수법회	7사단 연승사	년2~3회 정기 위문
	중부지역법회	76사단 신남법당	경전법회
불광사	분당구법회	국군수도통합병원 군법당	환자위문
	송파6구법회	1사단 16연대 1대대	월 1회 정기법회 및 간식지원
	송파13구법회	1사단 16연대 2대대	월 20만원 지원, 분기별 위문
	동대문구법회	1사단 16연대 3대대	월 1회 정기법회 및 간식지원
	대원2구법회	6군단 6포병여단 37대대	월 30만원 지원, 법사 파견
봉은사	포교부	한행사	매월둘째주 토요정기법회
	신도회	호국천보사, 호국사, 맹호부대, 911정부대, 칠성사, 연승사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지원
	강남을	보타사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17연등	용주사	3개월에 20만원 지원
	34연등	수경사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30연등	화랑사	분기별 정기 위문
	32연등	향로암	행사시 지원, 매월 10만원
도선사		17전투비행단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 지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어산어장 원명 스님의 고증으로 현등사 3층석탑 부처님 진신사리가 '연'에 봉안돼 조계사 특별상단으로 이운되고 있다.

영롱한 빛으로 '제자리'에 오셨네

현등사 3층석탑 진신사리 이운하던 날



가평 현등사 3층석탑 진신사리 모습. 구슬모양의 사리함 옆에 조그마한 진신사리(원내)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한용외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에게 인계서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진신사리를 참배하는 모습.

30년전 도난당했던 현등사 3층석탑 진신사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현등사 3층석탑 진신사리 이운법회가 봉행된 11월 7일 서울 조계사. 아침 일찍부터 법복을 곱게 차려입은 불자들이 경내에 모여들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한량없는 육바라밀 수행공덕으로 생기는 영적인 정신의 영골(靈骨)이기에 진신사리를 뵙는 일은 부천님을 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40분, 드디어 삼성리움박물관으로부터 이운돼온 진신사리가 조계사 일주문 앞에 도착했다. 미리 준비된 '연(輦,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가마)에 정중히 봉안되자 이를 지켜보는 신도들은 합장 반배로 대환영을 표했다.

조계종 어산어장 원명, 조계종 어산학교 학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 차려진 상단에서 전통방식의 염불로 이운을 알리고 곧바로 조계사 경내로의 이운의식이 진행됐다.

#"용단 내려준 삼성문화재단에 감사"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의 삼신번 및 동서남북 방향을 알리는 오방번과 과거 7불의 7여래불번을 선두로 대한불교조계종 종명기, 조계사 사명기, 용기, 순기 등의 기가 행렬의 뒤를 이었다.

법라, 나발, 북, 재금을 연주하는 취타대와 부처님의 진신사리 행렬을 알리는 의장 양산인 일산(傘蓋), 연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총무부장 현문, 봉선사 회주 밀운, 주지 철안, 조계사 주지 원담,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실 국장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사부대중이 뒤를 따랐다. 그 장면은 마치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행진을 하는 듯 경건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특별 상단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운되자 사리 공양의식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의 축원에 이어 곧바로 이운 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이운법회는 지난 9월 25일 조계종과 삼성문화재단의 합의에 의해 봉행된 것으로 이날 삼성문화재단 한용외 대표이사는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에게 인계서를 전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천만 불자의 염원대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한용외 대표이사는 "불교계와 뜻을 함께 하며 신앙의 대상인 사리를 제자리로 안치하는 이운법회를 봉행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은 현등사 진신사리가 삼성문화재단과 연(緣)이 닿아 있었지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많은 불자들이 친견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법어를 통해 용단을 내려준 삼성문화재단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처님의 사리는 경전 그대로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의미의 법신사리이며 화장 후 육신에서 생긴 생신사리, 생신사리에서 분화된 분신사리가 있다"고 설명한 지관 스님은 "30십년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현등사 3층석탑 부처님 진신사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듯 우리도 자신의 진심세계에 망상을 일으켜 육도를 윤회하지 말고 수행을 통해 원래의 신심자리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입동을 알리듯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참배하겠다는 불자들의 마음은 뜨겁기만 했다. 사리친견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15일부터 현등사서 친견법회 후 탑에 봉안

이운 법회에 이어 일반 신도의 진신사리 친견이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일찍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신도들은 100여미터 넘게 줄을 서며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차례 친견을 했다.

일반인 가운데 제일 먼저 친견을 한 조계사 신도회장 이대각심 보살은 "영롱하고 맑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그동안 어딜 그렇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대중들에게 나투셔서 희망을 심어주니 한량없이 기쁘기만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8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아침일찍부터 조계사를 찾은 고무량수 보살은 "평생 한번 볼까말까 하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지금이라도 친견하니 더 이상 소원이 없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견해 무량공덕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보제자리 찾기 운동' 종단차원서 지속

현등사 3층석탑 진신사리는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현등사에서 친견법회를 갖고 다시 3층석탑에 봉안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사리를 모시기 위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이운법회를 가지니 부처님 제자로서 할 도리를 다한 듯하다"며 "향후 도난 등으로 소실된 문화재를 찾아내어 제자리에 다시 봉안하는 성보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종단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현등사 사리' 반환 되기까지

현등사 3층석탑 진신사리는 언제 도굴된 것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2004년 봉선사가 현등사 성보문화재 일제조사를 하던 중 현재 삼성문화재단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05년 8월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을 했으며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서모씨가 봉선사로 자백 편지를 발송해 용서를 빌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2006년 3월 문화재청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같은해 7월 사법부가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제자리 찾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민사조정 신청 → 법원서 패소
→ 삼성측, 조계종과 협의 반환

그러나 9월 25일 삼성문화재단이 조계종과 협의를 거쳐 현등사에 진신사리를 봉안키로 해 불교계로 돌아오게됐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 30×40cm
달마 4호-그림: 40×50cm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철저한 시장 분석과 산·학·종 연계 필요

(産 學 宗)

■ 불교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은… 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재 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11월 9일 '불교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미래지식기반산업으로 꼽히는 문화콘텐츠산업은 해를 더해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불교적 소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됐다. 불교문화콘텐츠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제시된 세미나의 갖가지 의견들을 정리했다.



불교문화를 콘텐츠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수차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룡사 9층탑 모형. 불국사 3D, 메트릭스의 한장면, 오세암 비로자나불 3D.

동국대 전자불전 · 문화재 콘텐츠연구소 세미나

불교 소스 3D 등 개발하면 디지털 매체 활용도 높아
양질의 콘텐츠 확보 통해 누구나 사용토록 제공돼야
연기론에 근거 대중에 행복줄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

◇원소스-멀티유즈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불교문화콘텐츠. 형상화된 성보문화재를 비롯해 불교교리, 수행법 등 무형의 불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산이다. 이를 디지털콘텐츠화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금석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화콘텐츠의 기본 개념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불교설화나 교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면 교육과 포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3D로 제작된 불교 캐릭터나 문화재 등은 게임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매체의 소재나 배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불교문화콘텐츠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콘텐츠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소재 발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을 근간으로 양질의 불교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를 보급, 이를 통한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증진시킴으로써 불교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 수요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금석 교수의 지적과 상통한다.

◇불교장점 살려 콘텐츠화

불교문화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활용 또는 성공 가능성은 이미 기획단계에서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황순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문화콘텐츠가 디지털화 되었을 때 확실하게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를 문화콘텐츠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황룡사9층탑, 해인사 장경각, 석굴암 등 주목받으면서도 접근이 어려운 소재를 기획한다면 산업활용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다 불교적 가치가 내포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도 제시됐다. 이재수 동국대 전자불전 · 디지털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은 "기획자가 불교와 전통문화, 역사, 철학 등 인문학적인 소양은 물론, 창조적인 지식 생산과 다양한 산업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문화'에 주목하고 업계는 '상품'에만 주목하는 현실에서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아울러 이재수 연구원은 "불교문화콘텐츠는 연기론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삶'을 위한 불사"라며 이를 실천하는 '콘텐츠법사'가 될 것을 주문했다.

◇매력적인 소재 적극 발굴

불교문화를 콘텐츠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분야에서 이뤄져 왔다.

불교계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2004년부터 불교문화 디지털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문화원형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불교계 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미 놓여있다. '만다라' '화엄경' '동승' '달마야 놀자' 등 십수편의 영화와 '은하철도999' '드래곤볼' '이누야사' '오세암' 등 10여편의 애니메이션, '임진록' '공작왕' '서유기' '탄노피' 등 10개의 게임은 불교 소재 문화원형을 활용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활용도 높은 불교문화원형 소재에 대한 분석과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신 전주대 영상예술학부 교수는 "직 · 간접적인 포교전략과 홍보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관련 시장분석과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선재동자 이야기, 미륵, 윤회, 업, 구도설화, 수호신장 등 매력적인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콘텐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불교계와 대학, 기업이 서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개발할 수 있는 산 · 학 · 종(産 學 宗) 연계 네트워크 구축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활용사례의 조사와 수집, 활용사례의 산업적 성과 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 One Source-Multi Use 관점에서 활용 방안 검토, 저작권과 관련한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산업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영화 '달마야 놀자'의 한 장면.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6

디지털 캠코더는 VCR 모드로 전환

영상 캡쳐하기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한 내용은 6mm 테이프나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를 컴퓨터로 옮겨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캡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리미어에서는 필요한 영상만을 골라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다양한 캡쳐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캠코더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1394카드나 영상보드가 필요한데 이미 앞서 설명한바 있다.

우선 디지털 캠코더 구입 당시에 제공된 DV케이블을 컴퓨터와 캠코더 단자에 연결한다. 디지털 비디오장치 대화상자가 팝업으로 뜨면 영상을 캡쳐할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디지털 캠코더는 VCR 모드로 전환해 놓아야 한다.

프리미어가 실행되면 File 메뉴의 Capture - Movie Capture를 선택하면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대화상자 좌측에는 디지털 캠코더의 영상이 그대로 표시되고 그 아래에 영상제어버튼이 있다. 이 버튼은 디지털 캠코더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캡쳐할 때 Record 버튼을 눌러 동영상 파일로 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면 우측편에는 Logging 탭과 Settings 탭이 있다. Logging 탭은 디지털 캠코더에서 캡쳐할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여 캡쳐한다. Settings 탭은 영상의 프레임 크기와 품질 오디오 세팅값을 표시하며 Edit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 캡쳐 이전에 Settings 탭을 눌러 환경 설정을 마친 이후 캡쳐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Movie Capture 대화상자에서 하단부의 빨간색 Record 버튼을 누르면 대화상자 상단에 캡쳐된 프레임 수가 표시된다. 원하는 장면을 모두 캡쳐받았다면 정지버튼을 누르면 파일 이름 대화상자가 표시되는데 이때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만약 꼭 필요한 부분만 영상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캡쳐 화면에서 Logging 탭을 클릭해 하단의 Set In과 Set Out을 설정해 Capture In/Out 버턴을 눌러 영상을 캡쳐 할 수 있다. 이때도 영상 캡쳐가 종료되면 File New 대화상자가 표시되는데 동영상 파링 이름과 주석을 입력하면 된다.

이같은 작업을 다중으로 하고 싶을 때에는 File Name 대화상자에서 동영상 이름과 주석을 입력해 OK 버튼을 누르면 Batch Capture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Batch Capture란 동시에 여러개의 화면을 캡쳐하는 기능을 말한다. 캡쳐할 부분이 지정되었다면 시간대별로 영상을 정리하기 위해 Sort by in point 버튼을 누른다음 녹화 버튼을 누른다. 캠코더에 녹화 테이프가 있는지 확인하는 Insert Reel 대화상자가 표시되면 OK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캡쳐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Batch Capture 대화상자에 캡쳐된 부분은 v마크가 표시되며, 캡쳐가 종료되면 동양상 파일로 영상이 자동 저장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 매일 백단향



매일 백단향은 오랫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온 대표적인 고급 선향입니다.
특히 최고 품질이라는 인도의 흰색단과 생약계 향료를 살린 중후한 향을 냅니다. 기를 고르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종류는 장향과 단향이 있습니다.

가격: 7만원

관세음 여의주 수진언 향로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영험의 가보 중 하나!
99% 청동만으로 만든 영험의 명작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수진언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수진언은 큰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왔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를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복권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달이 있는 해에는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동서남북의 보배재물이 들어오며 소망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 가피로 성취된다.

관세음보살 수진언 향로는 99% 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무게 2.5kg 높이 22cm 가로 17cm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회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언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제례시 또는 예불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관세음 여의주 향로의 비방은 원하는 소망의 방향에 놓고 소원기도를 하며, 평상시 사용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며 우체국 특급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신용카드 분할 구입 또는 현금 구입할 수 있다. (가격 2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예불시 제례시 향피우고 사용!
소원 성취 비방 향로 놓는 방향

- 업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의 비방은. 동쪽
- 중대한 시험을 앞둔 합격의 비방은. 서쪽
- 자녀를 기다리는 잉태의 비방은. 북쪽
- 승진과 취업을 기다리는 비방은. 서쪽
- 중대한 병고로 소생의 비방은. 북쪽
- 송사문제의 승소의 비방은. 서쪽
- 인연의 짝을 찾는 결실의 비방은. 동쪽
- 가정의 위기와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지갑
음양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님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롱나노 장지갑
(적색, 모라색)

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면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몸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몸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힘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공사에서 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무료강좌
(제 1기 모집)
명리,작명,풍수,육효,자미두수
종합반(기초반,중급반,고급반)
3개월 또는 6개월 완성
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사찰행사문의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학인모집 . 실전위주교육
범음 · 범패
017-556-5691부산 장전동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천명리강의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12월 6일 (수)낮2-5시첫강의
사맹격법주	12월 7일 (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각종 불공 행사 해드립니다
범음 · 범패
각종 불공 해드립니다
예수재 · 수륙재 · 천도재 · 49재 · 바라 · 승무춤
010-2200-8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경전공부
● 과목: 천수, 반야, 미타, 금강, 법화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문의 041)662-9489
011-9937-7667
반 야 암 주 합 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기공지도자
전문과정모집
행자모집
30년전통불선도(佛仙道)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사주 고급 통변반 모집
실제 감정 위주 통변
철학관 개업 후 상담방법
060상담 프로그램 판매
2개월 완성 (100만원)
꼭 수강하실 분만 전화주세요
010-2207-1638(청명)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054)772-7171
전화 011-538-3879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제1기 불교 마음 수련생 모집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마음을 찾으면 육신 또한 평안하리라....
일시: 2550년 양 12월 5일
1. 일주일반 : 10명
2. 일박이일반: 10명
선착순 접수 후 2기 편성
접수 및 문의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불교 마음 수련원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미만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3)313-59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1-699-4842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011-9571-6479

숙식가능하신 공양주 보살님 1분, 경리보살 1분 (PC가능자)구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신심이 돈독하신 분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사무장(女) 급구
사찰에서 숙식 가능한 분으로 컴퓨터와 회계를 하실 수 있는 분
지참서류: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불국사
031)719-04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41)542-4669
010-5222-4669

1.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운전가능한자)
2. 남 · 여 행자 스님 구합니다
011-9803-6301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02)387-321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5세 미만 / 대구근교
011-9387-0385

공양주 구함
하늘과 산만 보이는 사찰입니다
▷월보시 100만원
재 모실때마다 5만원씩 추가
(55~63세까지)
033)482-33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인지역
011-746-8698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60세 전후
전북 익산소재 사찰
063)836-8047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상담을 통해 중생의 실제 고통을 원력으로 꽃피울 한국-스리랑카 불교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도량을 제공해 주실 거룩한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경기)
스님1 : 심리치료사, 상담심리박사과정
스님2 : 스리랑카, 산스크리트석사과정
011-436-7529

공양주 보살, 화주 보살, 스님이 되실 행자스님 구함
설악산 불탑사
033)671-7751~3
주지직통010-4373-8316

(급)부전스님 모십니다
천년고찰성지 용국사에서 재의식에 능한 스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외보시금: 약 100만원 이상
(시다림, 희향재, 안치재등)
경남 의령군 의령읍 용국사
055)572-0012,0022

거제도 바닷가 조용한 토굴입니다. 무보시로 함께 하실 지식인 공양주 보살님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40대)
055)633-6108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저는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여 복지사업에 원력을 가지고 정진하는 50세 비구승입니다 . 자금 1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시면 평생토록 은혜 갚음은 물론이며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되돌리겠습니다. 간절히 인연 기다립니다
010-4602-4916

30년간 역학 공부한 스님입니다. 보살님이 운영하는 어려운 사찰이나 시내 포교당에서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불사 이루어 드립니다
010-5574-566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서울 30분)
● 대지: 175평 (주차장 30대)
● 법당 1채, 요사채 2채, 삼성각 1채
● 특징: 기도와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중심가 산의 위치)
● 가액: 3 억
016-510-3455

사찰안내
● 위치: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가창골
● 대지: 339평, 전 425평
● 2층건 60평, 단층건 45평 각1동
● 가액: 3억 (융자 8500 포함)
018-514-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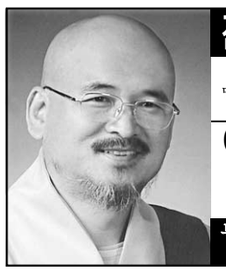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180만원
● 시설비: 약간 절충
010-6374-0034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방위와 사주보는 방법을 1:1로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기도 발원 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복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42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시주문

11면	한분	200만원
42수	1손	200만원
천 수	1손	20만원
본 불	1분	3,000만원
남순동자, 해상용왕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 협 729-02-117074(예금주:유재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 체 국 700435-02-005878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정원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7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 법당: 20평 ● 요사: 35평 ● 부지: 760평 ● 가액: 21억
● 위치: 강원 (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000
● 위치: 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 주변
● 부지 180평
● 임법당, 주지실 1동, 방 6개 요사 및 공양간, 산신각 1동
● 자연경관 멋진 도심 속 토굴
● 가액 : 1억 7천만원 (융자 5천 포함)
011-803-696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장호원 ● 부지: 500평 ● 법당: 27평 ● 요사: 2동 45평 ● 전세: 3억 6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 대지: 170평, 법당: 25평
● 요사 2동, 산신각 주차시설 약 10대
● 사용평수: 약 1천평 부전스님 모심
● 가액: 4억원
010-8529-086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에서 30분거리
● 대지 402평, 임야 40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사용평수 : 600평 경내 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 삼존불, 후불괘불, 관음보살 50분 , 신중산신각, 나한존자 16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군 ● 부지: 1500평(대지,전,답) ● 법당: 20평 ● 요사: 2동 40평 ● 기타: 산신각, 연못 등 ● 가액: 9천만원 ● 특징: 청정지역의 영명한 도량임
● 위치: 경북(포항) ● 부지: 200평 ● 법당: 40평(3포,7포, 목조,단청) ● 요사: 40평 ● 산신각: 7평(목조,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전세가) ● 특징: 신도시에 위치한 도심정통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순창 아미산 아래 절, (구)중학교 터
● 대지: 6000평, 건평: 900평
● 약 200명 스님들 교육장으로 사용가능 복지관 허가중
● 산수, 공기 좋고 산세 수려. 명당터, 최적지
● 법당: 청자 천불전 모셔져 있고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양도코져 함 포교당으로도 최적지. 계율있는 스님이 찾아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011-603-8450

포 교 원 안 내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요지
● 법당, 주지실, 사무실, 공양간
● 평수: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5만원
● 시설집기 일체 포함 3,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9-293-9369

사찰(급)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사찰역사 320년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20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42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평(방5)
● 가액: 9천5백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토 굴 〉
● 위치:부산시내바닷가
● 20평,30평,40평
● 1500만원~1억까지
● 아주다양함
● 바다전망 특별 빼어남
〈 사 찰 〉
● 부지: 3만3천평
● 위치: 삼랑진 정남향(양명) 산세 계곡물 철철 주변경관 특별 빼어남
● 가액: 4억
〈 포 교 선 원 〉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경 기 사 찰 과 교 환 원 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타사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건물을 적당한 경기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사찰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및교육센터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624-0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온천시장 뒷길
● 2층건물 중 2층 , 60평
●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조성비): 3천만원
051) 554-2406
011-843-2403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내
● 대지: 98평
● 건물: 약 200평
● 주차공간 충분함
● 가액: 10억
● 엘리베이터 있는 4층 현대식건물임 포교 · 불교대학 최적지임
010-9550-8793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의신 (의신골 금혈자리)
● 전 8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양택지, 수양터 최적
010-4746-548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상계동 소재
● 아담하고 수려한 경관 (계곡 옆) 사찰 팝니다
● 국유지 53평(밭도 있음)
● 가액: 3억
02)951-9393
016-222-3505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웅촌 별장 360평-2억 3천
● 경남 울주 별장 170평-1억
● 경남 김해 주촌 사찰 203평-2억5천
● 부산시내 황령산밑 사찰 350평-5억2천
● 부산 사하 사찰 250평- 7억 5천
● 부산 시내 사찰 400평-12억
011-855-6699(남문)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지 리 산 토 굴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 입구
● 법당목조 20평
● 요사: 20평, 공양간 7평
● 대지 : 430평
● 가액: 9천 5백만원
010-7179-3699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강 릉 쪽 대 지 교 환
가액: 약 6억원 가량
전통 사찰과
교환 원합니다
018-260-789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10만원 시설비 없음
019-656-2766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 1, 주방
●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 건물포함
● 가액: 63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010-8828-3002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장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 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모시지 두달 됨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임금산 밑 엄부혈 명당터
● 평수: 600평
● 가액: 3천 5백만원
010-3189-3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부지: 240평, 법당: 20평
● 언제든지 법회가능
● 요사채: 20평 가전제품일절구비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30만원
011-879-755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절 터 (급) 안 내
● 위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 대지: 660평
● 구가옥 창고 30평
● 가액: 평당 40만원 (절충가능)
011-299-4465
031)674-718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대방면 화룡리
● 대지: 310평
● 요사채50평, 요사채10평 법당 20평
● 가액: 8500만원
010-7271-4020
010-2000-58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2동 진시장 자성대 파출소 중간
● 3층건물 3층
● 평수: 20평
● 기름보일러 임법당, 상담실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000만원 월 27만원
010-9720-99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사상구
● 평수 : 45평, 4층건물 4층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 8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700만원
051)313-5589
010-6416-558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동상동
● 3층 건물 50평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
● 권리금 6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7-586-4364

10여년된포교당
● 공찰 주지 취임 관계로 양도함
●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5000만원
● 전체평수: 30평
010-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근교 대 도심속 아늑한 산사
● 부지: 약 900평
● 가액: 23억 자세한 사항은 전화요망 중개인은 사양합니다
016-338-096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 평수: 2층 34평, 3층 20평
● 2층: 법당, 종무소, 접견실
● 3층: 방 3
● 가액: 보증금 1천 1백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888-013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시
● 대지: 130평, 건평: 100평
● 지하 20평 ,1층 40평(요사채), 2층 법당 (산신각) 아파트밀집지역
● 가액: 2억 3천(대출 1억 2천)포함
011-9503-3442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 와룡산 임도에서 도보 10분거리
● 산세수려한 산중기도처
● 평수: 187평
● 사용부지 가능 500평
● 가액: 5000만원
011-9323-447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주 월산동
● 1층 법당
● 2층 슬라브 리모델링
● 3층 법당 건축가능
● 가액: 2억(조정가능) 몸만 들어오실분
011-643-6162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77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2채, 창고
● 가액: 2억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공원옆
● 건물: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64평
● 인테리어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031)938-1954
017-304-2260

사 찰 안 내
● 위치: 경산시 유곡동 원효대사 공부하신 곳, 설총선생비석 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 있음
● 산세수려, 사찰터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용왕당
● 평수: 총 576평
● 가액: 1억 9000만원
053)818-422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화순 광주에서 30분
● 부지: 1,000평
● 조립식 임법당, 차고, 창고
● 아미타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토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4천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 특징: 법당터를 중심으로 양쪽 계곡 흐르고 합수지점에 큰 호수 있음
010-5255-0171

옛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현재 유실수 경영 주말농장, 농장 사택 앞 대형저수지있음, 대형버스진입 주차장완비
● 실제평수: 약 1300평정도
● 산세수려하고 지하수완비
● 가액: 11억. 가격절충
011-9323-4979/010-9903-808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주공아파트 맞은편 주공시장 입구 건물 4층
● 평수: 53평 (삼존불, 산신나한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 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로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500여평(무상임대)
● 법당: 20여평(건물만등기) 기타 : 방3개
● 특징: 물이 좋은 아담한 숲속 차진입, 약 70여년의 연혁
● 참고:납골당 또는 실버타운 최적지
● 5,000여평 불하 가능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포 교 당 안 내
● 위치:서울시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3층건물중 3층, 약 53평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존불과 탱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621-9216
02)2645-4200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죽음명상’ 으로 삶의 완성 추구

김재성 교수 바른 인식으로 괴로움 극복 가능 정각 스님 마음챙김 통한 부단한 단속 중요

불교학연구회 ‘한국의 죽음문화와 불교’ 추계 학술대회

‘죽음(死)’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실존적인 문제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와 동서고금을 막론한 철학사상 또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의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 한계상황(생로병사)의 극복을 추구하는 불교에서는 실존적 괴로움의 근원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을까.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11월 10일 중앙승가대에서 ‘한국의 죽음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2006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재성 교수는 논문 ‘초기불교에서 죽음의 명상’을 통해 초기불교의 죽음을 주제로 한 수행법 △부정관(不淨觀) △사념법(死念法) △죽음에 대한 상(想) 등에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죽음에 대한 실존적 인식과 감각적 욕망을 끊는 방편으로 <대념처경>에 소개된 부정관에 대해 설명했다.

부정관은 사자(死者)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후 육신의 허망함을 깨달아 감각적 욕망을 끊는 수행법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부정관에 대해 “비구들이여,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썩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의 이 육신도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 마땅히 비구들은 생사에 대한 마음챙김의 한 방법으로 부정관을 닦을지니라”고 말하고 있다.

죽음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수행법인 사념법(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해 김교수는 <앙구따라 니까야>를 인용해 ‘인간의 목숨은 하루가 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는 순간에도 죽음에 대해 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념을 닦으면 모든 번뇌가 소멸하고 죽음이 없는 불사(不死)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를 자각하면서 수행에 임하면 죽음도 초월하게 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재성 교수



정각 스님

김 교수는 또 “죽음에 대한 명상은 죽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죽음으로 초래되는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며 “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을 완성하는 명상이며 죽음을 극복하는 명상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한 동국대 겸임교수 정각 스님도 논문 ‘대승불교에 있어 출생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기술’에서 윤회전생과 사유설(四有說)을 근거로 폭넓은 생명관을 전개했다.

정각 스님은 “불교는 죽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이전에 자아(Atman)의 존재규명을 통한 업(業)과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전제로 하는 종교다”며 “이는 불교사상사를 이끌어 온 핵심으로 선과 명상, 즉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꾸준히 탐구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이 설한 사유설의 요지는 각자의 업력(業力)과 아뢰야식을 통해 현재의 존재와 죽음을 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유는 생유와 본유, 사유, 중유를 뜻하고 모태에 의탁해 태어나는 찰나, 이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기간, 죽는 찰나,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각각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생과 죽음은 불연속과 단절의 의미가 아닌 무한의 연장선상에서의 찰나적 현상으로 인식해야하며 매순간마다의 마음챙김(사띠)으로 이를 부단히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종교 본질 교육에 초점 맞춰야”

고진호 교수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서 주장

“종교교육은 종교의 지적 이해가 아닌 종교적 체험(종교적 지혜의 습득과 수행)을 강조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동국대 고진호 교수(사진)는 11월 1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탐색’을 통해 체험과 변용이 강조되는 과정중심의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행 종교교육의 당면 과제에 대해 고 교수는 “특정종(교)파의 교리체계와 의례 보다는 종교적 본질체험에 기초한 인간의 영적능력의 계발, 성장, 초월적 존재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이외에도 과학, 문화,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 하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같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래의 비젼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종교교육은 새로운 변환을 추구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교과 중심적 지식전달이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에 학생을 참여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파의 교리적 지식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는 있지만, 종교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종교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종교성(영성) 계발 저하 △종교교육의 내용적 체계화 결여 △종교교육과 생활활용의 변용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교교육의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고 교수는



“수행은 초월적 존재와 인간을 결합시켜는 체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us)’ 육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며 “묵상(默想), 정관(貞觀), 참선(參禪)등과 같은 수행을 통해 고차원적인 영계인식(靈界認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종교교육의 과정은 종교 교과목이나 교과서적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험되고 실천되어야 할 ‘초월의 과정(transcendent process)’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생활을 종교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실천적 삶의 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불교와 상담’ 학술연찬회

18일, 밝은사람들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꾸는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은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제2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불교와 상담-불교와 심리학적 방법론의 만남’을 주제로 불교와 심리학, 불교와 상담심리학의 상관성 연구와 접목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강사의 ‘마음챙김 척도 개발 과정과 활용법’ 가톨릭대 김은희 강사의 ‘집착 척도 개발 과정과 활용법’ 등 2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8>

애완동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 그리고 애완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급성장했다. 또 이구아나, 뱀 등 혐오(?)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 애완동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옛날도 아닌 우리의 보릿고개 시절에는 서양 사람들이 애완동물 치장에 돈 쓰는 것을 TV로 접하고는 분개했던 추억이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웬만한 시골 읍내 거리에는 동물 병원이 있고, 관련 상점도 있다.

동물과 인간과의 인연은 매우 오래되었다. 아마 가축이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것은 수 만 년 전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야생 상태에서 가축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가축화된 동물들과의 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애완동물 숫자가 급격히 늘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인간과 함께 동물들도 진화해 왔다. 가축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이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발전된 병원균인 바이러스 또한 그러하다. 인간처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인간 주위에 독특한 생물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와 맞물려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습성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또한 소를 키우는 인간의 업보에 대한 자연의 경고일 것이다.

인간의 사회화 따라 동물도 진화, 상호 영향 관계

“동물에게도 불성 있다” 생명체에 구원의 화두

계 또한 지방마다 독특한 특색이 있다. 중동 지방과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의 유적에서 개(犬)들의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서는 소에 대한 숭배가 남다르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인 소가 귀해서인지 아니면 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신령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선불교의 핵심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십우도에서도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소치는 아이, 그리고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자리를 소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인도에서는 이러한 소가 천덕꾸러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 불현듯 도로에 나타나서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다든가 배설물을 아무데나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오래된 불가의 물음이다. 부처님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중세 중국의 선의 황금시대 수퍼스타 조주 스님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조주무자’ 화두다. 부처님은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는 왜 없다고 했을까. 조주의 이 화두는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들에게 일침을 가한 방편일 뿐이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동물을 인간의 애완용으로만 치부한 서양의 전통에 비해 불가의 전통은 동물들의 세계에까지도 철저하다. 불가의 철저한 성찰과 참회가 인간을 비롯한 지구촌 모든 생명체에게 구원의 화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매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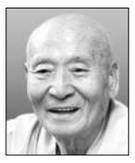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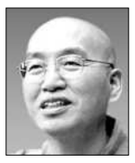
정토사 낙성법회

서울 정토사 회주 설산 스님은 11월 11일 경내에서 정토사 1차 불사 회향을 기념해 前 합천 해인사 주지 연공 스님 등을 초청해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평화포럼 개최

한국종교연합 공동대표 진월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6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달개비(옛 느티나무)에서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02)2264-8260



'북핵 핵실험…' 주제 토론회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1월 15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생명나눔 광주·전남 본부장 취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은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신양파크 연회장에서 제4대 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다.



원각사서 청정운동 순회법회

대한불교진흥원 송석구 이사는 11월 21일 오전 11시 광주 원각사에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주제로 청정운동 광주전남 순회법회를 개최한다.



수험생 건강관리 강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의무원장은 11월 18일 오후 3시 일산불교병원 5층 대강당에서 수험생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동산반야회 창립 24주년 법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1월 11일 동산불교회관에서 무진장 스님을 초청해 창립 24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상담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불교신문 사장에

작가인 차길진 법사가 11월 9일 한국불교 태고종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 및 자매지인 '월간불교' 사장에 취임했다.

인사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 △부주지 겸 총무국장 의연 △교무 재연 △재무 원광 △기획 만당 △호법 본묵 △사회 법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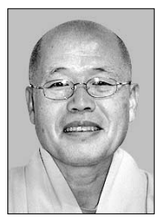
화촉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장녀 소연씨(홍익대 겸임교수·본지에 '불화속의 명장면' 연재중)가 11월 17일 오후 6시 서울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에서 이은우씨와 화촉을 밝힌다.

유응오 주간불교신문 기자는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혼인의 집 명륜당에서 우승미씨와 화촉을 밝힌다.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목표"

조계종 미주승가회 상임회장 도현 스님



"조계종을 대표하는 미주승가기구로서 해외특별교구 출범의 모태를 만들겠습니다."

10월 16일 미국 LA 관음사에서 열린 조계종 미주승가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상임회장에 취임한 도현 스님(하와이 무량사 주지·사진)은 "앞으로 현지 포교를 이끌 '종단 대표기구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주 50개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사찰들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계종 현지 비영리법인체'를 구성하려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고, 52개 사찰이 참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도현 스님은 첫 사업으로 '미주사암주지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봉축 행사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승려재교육을 통한 승가위상 강화에도 진력할 예정이다. 조직도 캐나다까지 포함해 북미지역 사찰의 참여를 유도해낼 방침이다.

"미주승가회의 궁극 목표는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사구비조건을 갖추면, 총무원과 협의과정을 거쳐 곧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내실 다지기에 지혜 모아야"

'파라미타' 회장직 물러난 원택 스님



"밖에서 바라본 파라미타와 회장직을 맡으며 안에서 본 파라미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조직규모, 사업내용 등 무엇 하나 전국조직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간 밖으로 키워놨으니, 앞으로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3대 회장 원택 스님(사진)은 2003년 회장직을 맡은 이후 전국에 흩어진 파라미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업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비롯해 한·중·일 청소년문화교류, 백두산 탐방 등 굵직한 해외교류 사업도 실시했다. 원택 스님은 10월 31일자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3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원택 스님은 얼마 전 출범한 조계종 어린이·청소년포교팀와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지적도 잊지 않았다.

"개별 단체로서 파라미타가 접근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연구·수행 바탕으로 통불교적 이론 세울 터"

퇴임강연 가진 동국대 서윤길 교수



"밀교학 연구는 물론 수행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통불교적인 불교학 연구에 더욱 매진해 이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리하며 남은 시간을 회향하겠습니다."

한국의 밀교학 연구의 선구자 동국대 서윤길 교수(사진)는 11월 13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퇴임강연을 열었다.

퇴임강연에서 서 교수는 후배 불교학자들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교육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통한 자비의 실천을 몸소 보여 주는 것"이라며 "지식과 인격이 조화를 이룬 참 불자교수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교수는 또 "모교인 동국대에서 제자들과 함께 불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싶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 더 없이 아쉽고, 그 동안 부진한 실력으로 학생들과 수업에 임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회고했다.

덧붙여 "퇴임 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참선과 기도 정진에 매진하고 싶다"며 "체험과 실천을 통한 '통불교적인 수행법'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퇴임을 앞두고 중관, 유식, 보살사상 등 대승불교의 사상적 전통에 입각한 밀교학 연구의 결정판 <한국밀교사상사>와 선, 천태, 미륵, 정토 등 다양한 한국불교사상을 개괄한 <한국불교사상>을 펴냈다.

밀교학 분야에서 서 교수의 연구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연구를 통해 밀교학의 영역을 심화시키는 한편 한국 밀교가 화엄, 천태, 정토 등과 융합하는 모습을 규명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서 교수의 신라의 사리탑 신앙을 비롯해 도선의 비보사상, 고려와 조선의 제석신앙, 인왕신앙, 구요신앙, 능엄도량 등의 연구는 불교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형성에 밀교가 끼친 영향과 위상이 얼마나 폭넓고 깊은 것인가를 잘 보여줬다.

서윤길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장, 불교대학장, 중앙도서관장,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고려밀교사상사연구>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밀교사상사개론> <고려의 건국과 밀교적 이념> <신라 의림선사의 밀교사상> <밀교학적 위상과 그 특성> <도선비보사상의 심원> <불교학 개론> 등이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관문사 제 5대 주지 정산 스님 취임식



관문사 제5대 주지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취임했다. 11월 5일 4층 옥불보전에서 열린 '제4·5대 주지 이·취임식'에는 서주석 청와대 불자회장, 성윤갑 공무원불자회장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신뢰받는 사찰, 수행과 계행이 청정한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본부 '생명나눔의 날' 음악회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진각종 회정통리원장,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생명나눔의 날' 자선음악회를 열었다. 행사는 故 법장 스님의 뜻을 기려 난치성 혈액암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태고보우국사…' 출판기념법회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오른쪽)는 11월 9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태고보우국사 종지종풍과 수행법>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3백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무공 스님은 "불자들이 보우국사의 본원종지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인도박물관 개원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11월 3일 광주 운림동에 인도박물관, 인도문화원을 개설하고 개원식 및 기념 공연을 펼쳤다. 인도 대사관과 아시아 문화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공연에는 인도국립무용단 록찬다 그룹이 초청돼 인도전통무용이 소개됐다.

제11회 운주문화축제 열려



'제11회 운주문화축제'가 10월 28~29일 양일간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 일원에서 펼쳐졌다. '신호·인연·만남-인간을 향한 순백의 어우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1번째 석불세우기, 운주마당극 '천불천탑', 탁본·단청 체험,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육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함경(장아함·중아함·증일아함·잡아함)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빨리어로 된 5부 니까야 (디카니까야·맛지마니까야·쌍윳따니까야·앙굿따라니까야·쿳다카니까야)가 진정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사를 갖고저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06년 12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 법 사 : 전재성, 이미령 교수
- 교 재 : 5부 니까야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회 비 : 동창회비 월 5만원 (교재제공)
- 특 전 : 청년회원은 월 3만원
- 문 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강 좌 일

- 2006년 11월 30일 ~ 12월 2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혈기 및 필수 부항·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성직자들도 국적과 시민권을 가진 국민인 이상 개인적으로 어떤 정파(政派)나 뉴라이트운동 같은 시민단체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할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불교 성직자들의 위치와 성직자 제도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점들이 있다. 스님들의 경우 사바세계인 세속의 시비를 초월해서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고자 출가라고 하는 혁명적 결단을 행동으로 보인 분들이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는 차원이 다른, 지성인 중의 지성인이 되고자 한 분들이다. 아니 지성인의 차원도 넘어서서 일체의 시비곡직과 분별을 떠나 깨침의 도리를 행동으로 보이시려 정진하시는 분들이다.

물론 출가하신 분들이 단번에 완전히 일체의 이해관계와 시비곡직을 초월하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꼬집어서 지적하거나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출가 초발심의 서원이 바람직하며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출가자가 세속의 시비와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경우에도 편가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김 규 칠
언론인

스님, '중도'를 지키세요

하물며 이해관계와 시비곡직의 그물 한 복판에 놓여 있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 정치와 관련되는 집단의 조직에 관여하여, 한 편을 들고 공개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우를 싫어하고 좌를 좋아 한다거나, 무조건 뉴라이트의 취지를 반대한다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여도, 우리 불교의 이상과 지고한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참으로 애석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란 어떤 것인가? 혹자는 임진왜란 때의 호국승병의 경우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의 살생유택(殺生有擇)도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한다. 계율에도 개차(開遮)가 있다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살생의 계율을 깨뜨려도 무방하다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도망가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에게 사슴이 간 방향을 일러주지 않고 거꾸로 일러주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불망어계(不妄語戒)를 깨뜨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편법을 방편이란 이름하에 쉽게 열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불교 뉴라이트'에서 발표한 취지문을 보면 '현재 극단적인 좌우로 대립, 갈등, 국론분열이 전개되고 있고, 선동정치나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갈등조장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배격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인 행위에 스님들의 참여 그 자체가 벌써부터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일반에 찬반을 비롯해 의견이 분분하게 만들고, 어진 불교도들 마음에 내상을 내면서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스님들의 공개적 조직적 정치 관련행위, 그것은 어떤 분들의 의견은 될 수 있고 그 의견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지도자로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삼계의 도사와 인천의 스승이 되겠다고 출가한 수행자들이라면 좌우를 막론하고 포용하고, 좌우의 편가르기를 넘어서서 좌우를 지양하고 발전시켜 보다 나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정진하게 인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 불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 이농의 가속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초고령화, 쌀개방 등으로 심각한 농촌해체현상을 보이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는 그대로 지역 사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들어 사찰의 존립자체를 염려하고 있는 농촌사찰들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같은 포교사각지대의 하나인 농촌포교 활성화를 위해 며칠전 조계종에서는 농촌포교의 해법을 찾는 종책연찬회가 열렸다.

불교가 농촌이라는 특수지역에 이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농활(농촌봉사활동)이나 두레조직 등을 통해 선교를 추진해온 타종교에 비해 만시지탄조차 포기할 정도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농촌포교의 성공사례 가운데는 '연꽃대량재배' '동식물 천도재' '효도와 문화포교' 등이 들어 있다.

숙제 많은 '농촌 포교'

이는 포교와 지역농촌의 분위기 쇄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으로 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관심과 특기가 잘 어우러져 거둔 성과일 것이다.

농촌포교에는 종단의 제도적 보완, 본사 및 도심지역 부유사찰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개성과 사찰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해당지역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법찾기와 노력이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유실수나 버섯재배 등 사찰여건에 맞는 생산적 체제 확립 둘째, 모심기,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등 농촌봉사활동 전개 셋째, 우리 먹을거리 먹기와 직거래운동 전개 넷째, 문화휴식공간으로서의 사찰환경개선 다섯째, 지역민과의 신뢰구축 모색과 지역사회 관심사 적극 참여 등이다.

농촌사찰들이 예전처럼 앉아서 신도를 기다리지 않고 깊은 신심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새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면 아직 미래는 어둡지 않다. 앞으로 농촌지역 포교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프로그램 등이 많이 연구 개진되고 해당사찰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기대한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식탁 위의 생선

너는 인간일 때에 아이들이 살생하고 고기 먹는 것을 돕거나 기뻐하였으니, 살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목숨이 괴로우리라. 이제 똑같은 과보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리라. 〈구문목련경〉

어느 날 바다에서 생선이 사라진다면? SF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생태계 파괴와 남획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불과 40년 뒤인 2048년에는 해양 생태계 내 모든 어류가 멸종해 식탁에서 생선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11월 3일 BBC방송과 AP · 로이터 연합 등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비관론자의 우울한 전망에 불과할 뿐'이라고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이 우울한 미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이 11월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의 갈치와 참조기 열 마리 가운데 아홉 마리 이상이 한 번도 알을 낳아보지 못한 미성숙어일만큼 재생산 능력이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버려둔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뒤에 연근해 어획량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어업기반이 상실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저인망 어선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갈퀴로 긁듯이 샅샅이 훑어 치어들을 잡고, 무분별하게 어종을 포획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와 공해 문제가 겹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살생이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 무한한 것은 없다. 부처님 말씀대로, 무한한 것은 인간의 욕심뿐이다. 비구들에게 '필요할 때가 아니면 풀이나 나무조차도 잡아 뜯지 말라(잡아함 마니주계경)'고 당부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시기다.

■ 이은비(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16일 수능시험…수험생과 부모에게



긴장말고 꼼꼼히 복습… 익숙한 음식 섭취가 '보약'

결전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흔히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 선수단이 결전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본받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에서 결전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감독이나 선수들은 이 결전의 날에 맞추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해 판을 짠다.

요즈음은 이런 관리도 과학적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팀의 컨디션을 최상의 정점에 오르도록 준비를 한다. 수능 시험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긴 여정 동안 준비해 온 결전이다. 내가 익히고 준비한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만 남은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준비를 했건 모자라게 준비를 했건 간에 이젠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체험할 시간은 이미 없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가 남는다. 두 가지만 충고를 해 본다.

첫째는 남은 며칠간의 시간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연습할 시간은 아니다. 공격이 아니라 수비다. 이미 내가 공부해 둔 내용을 잘 지키는 일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할 것을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겐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 이 아쉬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아쉬움에 매어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익혀 둔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 보는 수준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과감히 포기를 하고 내가 익혀 둔 내용부터 찬찬히 적어 나가는 것도 요령일 것이다. 흔히 문제를 풀다 보면 될 것 같아서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푼다. 그 다음에는 조금 생각하면 풀릴 문제 세 번째로는 남는 시간을 생소하지만 매달려 풀어보는 그런 문제 순으로 정리를 해 가면 좋을 것이다. 긴장한 나머지 잘 풀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당황하고 집착을 보임으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남은 시간은 익혀 둔 공부를 잘 지키는 요령으로 임해 보자.

두번째는 건강이다. 건강도 리듬을 탄다. 수능 준비 때문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일을 생각하면 리듬이 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건강은 집중하는 능력과 상관관계가 많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수능시험을 망치게 된다.

수능 시험에서 많이 보는 현상은 문제는 아는 문제인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로 수능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다. 모든 에너지는 건강에서부터 나온다. 남은 시간 동안 이 건강도 수비개념이어야 한다. 대중 매체에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약을 쓰면 좋다는 등의 말에 쉽게 그렇게 빠지기도 한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음식이외엔 아무리 좋은 음식이 들어가도 우리 신체가 그를 감당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남은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건강법을 추구하기보다 수비개념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한다. 수비에서 다른 하나는 자신의 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 못지않게 수험생의 부모들도 애간장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불안하기도 마찬가지다. 수험생을 어떻게 도울까? 우선 부모들의 불안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신경이 예민할 대로 예민해 있는 수험생들에게 똑같은 말로 습관적인 자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믿는다. 네가 공부한 내용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 정도의 따뜻한 격려만 하면 될 것 같다. 지나친 관심이나 무관심은 수험생을 불안하게 만든다. 수험생이나 보호자가 담담할 수 있다면 수능시험은 떼어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이근후(이근후 열린마음의원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육조사

간화선 실참 체험을 위한 집중수련

육조사 看話禪 實參 체험을 위한 집중수련,
매월 첫째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가을 감 나무에 빨간 감이 달려있지만 따서 먹어야 감이 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看話禪은 어렵다!
스님네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상근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등등의 이유들어 물러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경험자의 지도를 받아 하게 되면 가장 쉽고 간단 하면서 석가 부처님과 조사님, 그리고 역대 선지식네 님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직접 체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못 시작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곳에 병통이 있는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집중수련은 門을 열어 놓고 재가 출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음알이 선문답식 방법을 철저히 멀리하고 실참,경험 위주의 수련으로 지도 합니다.
왜 좌선을 할 때 앉아있는 것을 권하는가?
호흡과 좌선은 무슨관계가 있는가?
상기병은 왜 생기는가?
왜 공부인들이 의리선으로 떨어지는가?
화두에 있어서 바른의심은 어떻게 짓어가는가?
현금의 이뭣고 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맥혀 있는가?
모든화두의 병폐는 어디에 있는가?
또 남방불교, 일반 명상과 간화선은 어떻게 다른가?
敎設과 禪은 왜 다르지 않는가 등등의 의문점을 풀어 주어 묻고 질문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몸을 다루는 좌선을 위한 체조법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tea time 도 갖습니다.

참 가 비 : 5 만원
예금구좌 : 국민은행 016701-04-017439
※저녁 공양시간 : 5시30분

참가자는 각자 손수 만든 음식을 한가지씩 가져오셔서 서로 나눠드신 저녁시간을 갖습니다. tea와 보리 콩 섞인밥을 절에서 준비 하겠습니다.
일종의 pot luck입니다. 〈pot는 음식을 담아 둔 접시 이고 luck는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어떤음식을 가져오는줄 모르니 운이 좋으면 맛이 있고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돌아 올 수 있겠다는 의미로 영어에서 온 말입니다. 서로 각자가 한접시씩 가지고오신 음식을 열어놓고 나눠 먹는다는 뜻이랍니다.〉
정원제이므로 조기에 入房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신분은 하룻밤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옷은 헐렁한 것을 입고오심이 좋습니다. 더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물어 주십시요.
이 프로그램은, 現代사회에서 生存속에 있는 분들이 항상 禪房에만 앉아 있을 수 없는고로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바른 修行法을 익혀 놓으시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看話禪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창하는 것입니다.

문의 : 02-953-5291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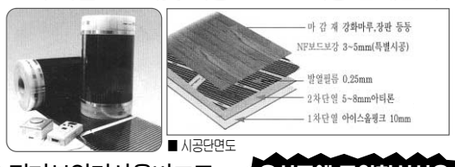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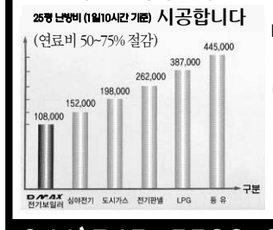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www.bexpo.org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KOREAN BUDHISM EXPO 2007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BBS 대구BBS 개국 10주년

10년의 디딤돌 100년의 희망! 대구불교방송

1996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첫 法音을 울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대구불교방송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불교방송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온
1등 정신에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꿈 그리고
희망을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동화사, 불국사, 직지사, 은해사, 고운사, 해인사,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태고종 관암사, 진각종 대구교구와
지역 불교계가 결집하여 1996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첫 법음을 울린 대구불교방송!
매일 새벽 첫 도량석을 울리는 마음으로 순간
또 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 종교FM 방송사중 청취율 1위 기록
(2006년 라디오방송 청취율 조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 전국 불교방송 중 최초로 지역 중계소 개국(안동, 포항 중계소)
◆ 불교방송 지방사 중 최다의 연중 문화행사 및 공연 개최
◆ 대구BBS 개국 10주년 기념작 창작 뮤지컬 갓바위 →
불교소재 뮤지컬 최초의 대공연장 순회공연
(서울KBS홀, 부산시민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 불교소재 뮤지컬 공연 중 최대의 흥행 및 관객동원 기록
(뮤지컬 갓바위 대구 2회 공연 매진)
◆ 문화공연 중 최대 인원의 스님 관람(해인사 · 동화사 · 운문사 · 청암사 강원,
동국대 석림회 학인스님, 지역 본말사 주지스님 등 약 700여명,
뮤지컬 갓바위 대구공연)
◆ 불교소재 뮤지컬 공연 중 최대 단체관람 기록(안국선원 500명 서울공연)

2006년 11월 11일 개국 10주년 기념일

BBS 대구불교방송 임직원 일동 합장



경주 기림사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불교의 세계관과 함께 문화재를 소개하는 월성 원자력 윤재황 부장(사진 맨오른쪽).

“역사 알리고 포교하니 信납니다”

‘걸어다니는 문화재 교과서’

24년간 문화유적 해설가로 활동

향기 도반의

월성원자력본부 윤재황 방재환경부장

마이크 달고 인연 닿는대로

“불교의 우주관으로 보면 우주 중앙에는 부처님이 사는 거대한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남쪽 끝 염부주라는 곳에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의 경계가 바로 일주문이랍니다. 우리는 아직 사바세계에 있지만 좋은 산사에 오셨으니 저 안에 들어가 모든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11월 3일 경주 기림사 일주문 앞. 불교의 세계관을 펼쳐놓으며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고 부추기는 이는 바로 (주)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윤재황(52) 방재환경부장이다.

원전 주변지역 해안관련 민원과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지만 1982년부터 24년간, 휴일이면 경주의 산과 들을 다니며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적을 만나고 그에 얽힌 유래와 사연을 공부하며 방문객들에게 알려오고 있다. 그런 탓에 회사 안팎에서 ‘걸어다니는 문화재 교과서’로 통하는 그가 오늘도 짬을 내 기림사 안내에 나선 것이다.

목에 미니마이크까지 착용한 채 단체 손님들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경주 곳곳을 휘적휘적 다니다가 인연이 닿는 대로 다가가 해설을 한다.

다음날인 4일, 윤 부장은 안압지에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교육차 경주관광을 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대릉과 첨성대, 안압지를 둘러봤다며 다음날 아이들과 수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의 역사문화유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판단한 윤 부장 특유의 질문공세와 설명이 이어진다.

“분당엔 수영장이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럼 불국사는 있습니까?” “없는데요”

“감은사지는요? 사천왕사지는 있습니까? 멀리 경주까지 왔으면 분당에 없는 것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주머니가 수긍을 하자, 윤 부장은 지도에 예쁜 그림까지 그려주며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향가 14수중 도솔가와 제망매가를 지은 월명 스님이 주지로 있었던 사천왕사지를 소개했다. 비록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월명 스님이 피리를 불면 달조차 쉬어갔다는 곳이라고 부연설명하면서. 우리의 우수한 역사문화를 전하는 동시에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도 띄어 주는 윤 부장의 무애행은 늘 이런 식이다.

불교설화 곁들인 구수한 입담

윤 부장이 문화재 해설을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따라붙는다. 불교설화를 더한 윤 부장의 구수한 입담에 낡고 오래된 붙박이 문화유적들이 되살아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전문 가이드를 대동하고 온 단체여행객이 자신의 가이드는 제쳐두고 따라다니며 설명을 들은 후 어느 여행사에서 온 가이드인지를 묻는 통에 난감했던 적도 있다.

이렇게 윤 부장의 안내는 어딜 가든 인기가 최고다.

동료직원들은 역사문화해설과 어울리지 않는 원자력발전소 직원이 설명하기 때문일거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와함께 유적지 소개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뚝배기같은 풍성한 윤 부장의 외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윤 부장이 물리학과를 전공한 이공학도 출신이라는 것이다. 수식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이론들을 증명을 통해 체계화 구조화시키는 것에 익숙한 윤 부장이 우리의 역사문화도 같은 방법으로 체계화 구조화시킨 탓에 일반 정보들을 무조건 받아들인 여느 문화유적해설사와는 다른 독특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윤 부장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수없이 읽으며 공부를 했고, 다양한 관련 서적을 살피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궁금증을 풀어갔다. 기초교리와 불교설화까지 공부하며 나름의 체계를 세워나갔다. 2004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박물관대학을 수료하고 영구회원이 됐다. 지난 4월에는 박물관대학을 나온 이들과 신라옛길답사회를 만들어 월1회 옛 신라의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부인 최팔옥(52)씨도 윤 부장보다 앞서 박물관대학을 수료한 후 문화재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

신라옛길답사회 · 반야회 창립

“저는 집사람때문에 먹고 삽니다”

부인이야기를 묻자 대뜸 이렇게 답하는 윤 부장은 언제나 부인의 지혜를 높이 산다. 윤 부장의 모든 활동이 최팔옥씨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신심 돈독한 최팔옥씨는 1988년 월성원자력본부에 마야부인회를 창립한 장본인이다. 지금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당시 마야부인회는 300여 직원 중 45명의 부인들이 활동하는 대단한 신행단체였단다.

활약 또한 대단했는데, 정기새벽기도를 갖고 기림사 신도회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은 물론 바자회 수익금으로 2박3일의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도 열었다. 평소 자상하던 윤 부장은 부인의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불자가 저절로 됐다.

그러나 무늬만 불자인 여느 불자와는 활동이 달랐다. 1994년 9월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슬픔을 딛고 불교에 귀의하려는 발전소장의 제안을 받아 18명의 정예회원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불자회인 반야회를 창립했던 것.

‘삼귀의’ ‘반야심경’도 할 줄 몰랐지만 총무로 법회를 이끌어야했기에 부인의 도움으로 법회 식순과 반야심경을 배우고, 찬불가 테이프도 구해 듣고 또 들었다. 회원들에게도 가르쳤다. 불교기초교리며 천수경 등 불교서적과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참으로 무모했지만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했다.

지금 반야회는 회사의 배려로 법당까지 여법히 갖춘 불자신행회의모습을 갖추고 윤 부장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재황 부장이 역사문화유산에 특별한 열정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이라고 밝혔다. 어린시절부터 유독 국사를 좋아했고, 경주에 온 이후 주말마다 문화유적을 찾아다녔지만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러다 1994년 정토법당의 경수 법사로부터 경주 동남산 감실부처 부처바위에 대한 해설을 듣고 역사문화유적에 매료됐다. 윤 부장은 지금도 동남산 감실부처와 부처바위 망덕사지, 사천왕사지 등 경주 동남산 지역을 가장 즐겨 찾는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전하려고 늘 노력한다.

직장내 민원해결사 역할도 ‘톡톡’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살아온 윤 부장. 요즘 직장내에서 탁월한 민원해결사로서도 유명하다.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누구를 만나든 분별하지 않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무슨 일이든 잘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윤재황 부장은 퇴직 후엔 부인과 함께 전업 문화유산해설사로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라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윤재황 부장은 목에 마이크를 달고 문화유산 해설을 할때 가장 행복하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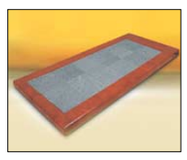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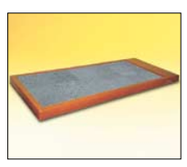
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합장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보료 (싱글)
4,000,000 → 3,20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700mm×1800mm×30mm) · 보료 사이즈 (1000mm×2200mm×100mm)

▣ 제품설명 :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수면시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제작한 명품입니다. 대부분 돌침대 원석의 두께가 1cm ~ 2cm 정도임에 비해, 희담석 돌침대는 영구 사용을 위하여 3cm 두께의 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징은 에너지 방사능력으로,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 사용하셔도 에너지 투과력이 높아 수면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보료 (보급형)
2,800,000 → 2,24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600mm×1500mm×30mm) · 보료 사이즈 (900mm×1900mm ×100mm)

▣ 제품설명 :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보급형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할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과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과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 희담석 허리팩

※ 수도권 배송비 무료, 지방 배송비 별도

보이차
해발 3,000M 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 (고엽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3
2004-8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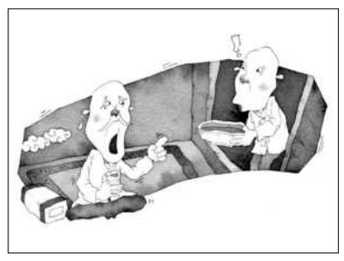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5>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흔적없이 그리고 얽매임없이 살아가고자하는 것이 선사들이 원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 이것을 몰종적(沒蹤迹)이라고 표현하였다.

급기야 이 몰종적은 더욱 승화되어 깨달았다는 의식마저도 전혀없는 참으로 제대로 깨달은 경지를 말할 때 사용되는 선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눈곱만큼이라도 아상(我相)을 드러내거나 행동거지를 남들이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은 뭔가 좀 덜떨어진 행위로 치부되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짐승이나 귀신의 눈에 띄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우두법융 선사에게 새가 꽃을 물어다 주는 것조차 사조 도신 스님이 탐탁지않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납자가 '꽃을 물어다 주지



흔적조차 없이 자유로이 살고 싶었던 선사들
귀신(?)에게 마음 들켜버리고는 스스로 탄식

않는' 서운한(?) 이유를 물으니 동산(洞山) 선사는 '온몸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의 눈에 더 이상 우두선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제대로 닦은 선사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대선사인 백장 스님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을 깼다. 갑자기 더운 물이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시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몇 번 나직이 불러도 기척이 없었다. 결제를 하고있는 대중스님들에게 심야에 혹여 누(累)가 될까봐 더 이상 큰소리로 부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누군가가 시자의 방을 두드리며 깨웠다. 그가 부스스한 표정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나 게슴츠레 앉으니 말했다.

"큰스님께서 더운 물을 찾으시오."

시자가 놀라 벌떡 일어나 재빨리 물을 끓여 큰스님 방으로 냉큼 달려갔다. 백장스님이 도리어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이 한 밤중에 누가 물을 끓여오라고 시키던가?"

시자가 이제까지 비몽사몽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선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결국 수행하는 법을 제대로 몰랐구나.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귀신도 알지 못해야 하거늘 오늘 나는 토지신에게 내 마음을 들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언짢은 마음을 낸 그것이 결국 호법신장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남전선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그는 농사짓고 소를 치면서 수행하는 것을 가풍으로 삼았다. 어느 날 선사가 농막을 들르게 되었다. 도착하니 장주(莊主)가 미리 점심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거였다. 이에 선사가 물었다. "내가 평소에 농장 출입시 남에게 말하지 않고 다니는데 어떻게 올줄 알고서 미리 공양을 준비했는가?"

"지난 밤에 토지신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수행의 힘이 모자라 내 마음을 귀신에게 들켰구나."

토지신을 모셔놓은 해인사 국사단(局司壇)은 예로부터 영험있다고 소문이 나서 인근마을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인기있는 전각이다.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도 명절에 고향에 오면 국사단을 참배하곤 한다.

어쨌거나 수행자는 '신독(愼獨)'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대중과 함께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삼가하고 또 삼갈 일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몰종적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당나라 야보(冶父)선사는 흔적없는 삶을 이렇게 시어(詩語)로 묘사하였다.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 달빛이 호수바닥을 뚫어도 수면에는 흔적이 없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수행 동호회 적극 활용하자

생활 속 수행, 지도자들에게 묻다 (下)



교리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 교리에 대한 이해없이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수행 지도자들은 조언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경전 한줄이라도 매일 읽자

스승과 도반의 중요성은 새삼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전공부다. 수행지도자 대부분은 "이론적인 토대없는 수행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경전이며, 교리공부는 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견을 세우는 것이 수행의 기초임을 감안할 때 경전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필수적이다.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는 교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교리이해 없이 정견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전공부는 불교대학에서 하는 것도 좋고, 일상에서는 약간의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해나가는 것이 부담이 없다.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경전을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전이 손에 익으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 하루 설계하고 돌아보자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은 "수행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생활을 리드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벽이나 아침, 또는 저녁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차분히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새벽정근은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새벽정근은 게으름을 쫓을 수 있고 신심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는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참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됨을 의미한다.

경전은 자기 공부 점검하는 확실한 방법
새벽이나 잠자기 전 마음 모으는 시간 갖고
자기단련 항목 만들어 실천하면 큰 도움

대효 스님(원명선원장)은 "이렇게 훈련된 불자들은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 흥분하는 경향이 현저히 적다"며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정해서 집중수행을

아무리 결심이 굳건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일상에서의 수행은 나태해지기 쉽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수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시생 자녀가 있는 불자의 경우 입시 100일 전에 입재해 입시 당일날 회향하는 방식이나, 또는 안거에 맞춰 일정기간 집중수행을 하거나, 관음 · 지장재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다.

휴가 때나 매월, 또는 매주 일정한 날(기간)을 정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통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이렇게 특정한 계기를 만들어 일정을 정해놓고 하면 분위기도 새롭게 하고 수행하는 재미도 맛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생활에서의 집중수행은 평소 때보다 수행시간을 다소 늘린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기 쉽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정목 스님(정토원장)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도반들과 함께 탁마하자

학창시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 기억을 떠올려보자. 집에서 먼 곳이라도 새벽같이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옆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도 받고, 시험 정보도 얻고….

'도반이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수행을 혼자 해나가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때 도반은 훌륭한 스승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요즘에는 사찰이나 인터넷에서 각종 수행 동호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모임에 참여해 수행하면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활력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반들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고 발심을 되새기는 계기도 된다.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도 알게 되고, 자기가 하지 못한 도반의 체험을 공유하면 좋은 공부도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자기 '금지선'을 정하자

"수행은 자기단련과정입니다. 나는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하는 항목을 한 두 가지 정해 실천하는 것이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혜거 스님은 스스로 직접 해보고, 또 불자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방편이라며 '자기금지선'을 정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이틀 이상 경전을 보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한다'거나 '좌선할 때 졸지 않는다'거나 '하루 6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반드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지선을 정해놓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우선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출발해 차츰 금지선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자신에게 냉정해야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인 스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며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도움말씀 주신 분들

대효 스님(제주 원명선원장) 법현 스님(임제선원장) 혜거 스님(금강선원장) 효란 스님(오봉사 주지) 정목 스님(정토원장)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 덕산 스님(혜은사 주지)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 김열권(위빠사나 지도법사) 김경호(전통사경연구회장)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게임하며 불교공부… "정말 즐거워요"

교법사단 '新성불도놀이' 개발 학습효과 성공적 … 퍼즐·보드게임 등 인기 상승

11월 6일 서울 동국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종교수업 시간. 권진영 교법사는 지루한 법문을 하는 대신에 놀이도구를 집어 들었다. 전국교법사단이 최근 보드게임 형식으로 개발한 '新성불도 놀이'.

"얘들아,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모둠 짜라. 오늘은 이걸 갖고 노는 걸로 수업을 대신한다!" "와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삼삼오오 처음 하는 놀이에 빠져들었다. "앗! 나 성범죄자에 걸렸어!"라고 외치자 다른 아이들이 데굴데굴 구르며 웃는다. "웃지 마, 넌 축생이잖아." "어서 나처럼 반야용선타고 성불하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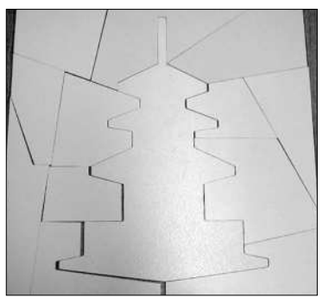
저마다 주사위를 굴리며 왁자지껄하게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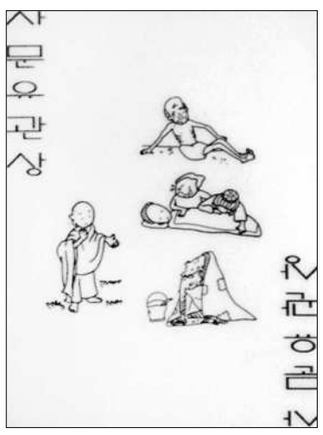
게임은 육도윤회 수레바퀴가 그려진 커다란 종이판 위에 각자 말을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리며 진행한다. 인간계 1번에서 시작해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천상계로 가기도 하고 축생계나 지옥계로 떨어지기도 한다. 각 세계마다 연꽃칸이 몇 개씩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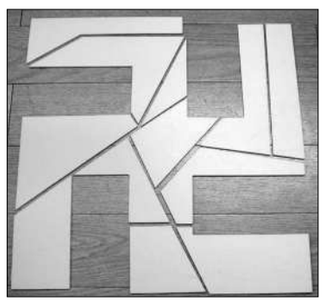
이 칸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면 수행점검에서 통과, 곧바로 성불에 이를 수 있다. 간단한 게임이지만 교육효과도 만만치 않다. '오계를 말하시오' '삼보를 말하시오' 등의 쉬운 과제도 있지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기 쉽지 않다.

반년 넘게 종교수업을 들으면서도 '성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이들이 게임을 한번 하고서 '불교교리에 재미를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지옥은 케케묵은 얘기'라고 믿던 나경이(14)는 "육도윤회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부여중 1학년 4반 학생들이 11월 6일 종교수업시간에 주사위를 굴리며 新성불도 놀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된 '탑 퍼즐'. 퍼즐을 완성하면 석가탑이 나타난다.


서울 영화사가 자체 제작해 불교교구로 활용하고 있는 '팔상성도 카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맞춰지는 만(卍)자 퍼즐. 수학적으로 길이가 같은 면이 한 곳도 없다.



(사)동련이 만들어 지난해 연꽃문화제에서 배포한 3~6세용 어린이 불교교구 '반야심경 퍼즐'.

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직접 불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놀이도구 제작에 나선 사찰도 있다. 서울 영화사 어린이법회는 자체 제작한 '팔상성도 카드'를 놀이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팔상도(부처님의 인생을 여덟 장면으로 압축한 그림)를 새롭게 해석, 카드에 만화로 그려 넣었다.

'팔상성도 카드'는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내 이 카드가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하거나, 여러 벌의 카드로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성불했나'를 맞추는 '불교응용 클루(Clue)' 보드게임도 있다. 어느날 한 사미가 홀연히 성불했다. 게임 참가자들은 이 사건을 맡게 된 탐정이다. 대웅전, 비로전, 산신각 등의 사찰 전각이 그려진 종이판과 성불에 이르게 된 과정이 담긴 카드를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보드게임 열풍이 한창 불던 2000년대 초, 당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였던 김종훈 씨가 '클루(Clue)'라는 보드게임에서 착안해 이 같은 응용게임을 개발했다.

어린이포교단체인 (사)동련(회장 지현)은 3~6세 아동들을 위한 '반야심경 퍼즐'을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유치원(원장 황옥자)의 경우 매년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재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불교교구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들이 저마다 불교교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포교효과' 때문이다.

권진영 교법사는 "현장 지도자들은 교리중심의 강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라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고 보고 느끼며 갖고 놀 수 있는 놀이도구와,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구입문의:전국교법사단 (02)454-1758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탐방

광명 금강정사 마애불학생회

문화활동으로 친목·신심 다져요

매월 한차례 봉사법회·삼천배 정진 … 실천하는 믿음 '전통'

창립한 지 15년째인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원명) 마애불학생회. 1991년 9월 금강정사 법당 한쪽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마애불학생회는 현재 재적인원이 40여명 에 이른다. 15~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은 매주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2시 1부, 2부로 나눠 법회를 운영한다. 1부 행사는 지도법사 스님의 법문, 예불집전 등 법회 위주로 꾸며진다. 반면 2부에서는 청소년 불자들이 친목을 다지고 취미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명 금강정사 마애불학생회는 한달에 한 차례씩 윤좌법회 등을 갖고 신행점검을 철저히 한다.

마애불학생회에서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풍물수업이다. 91년부터 꾸준히 학생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이어져 내려온 풍물수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풍물수업을 통해 사물놀이를 익힌 청소년 불자들은 매년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의 선두에 서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찰학생회 풍물패는 금강정사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그 밖에 생일법회, 야외법회,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형식의 법회도 개최한다.

마애불학생회는 특히 신행활동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편이다. 지도법사 원융 스님은 아예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쉬고 근처에 있는 혜명양로원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봉사에 나선다. "학원을 다니고 수능을 준비하느라 바쁜 아이들이지만 시간을 쪼개 봉사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회"라고 스님은 말한다. 개인 신행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번씩 금강정사 신도들이 하는 3천배 기도정진에 청소년 불자들도 참여한다.

자기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법사스님의 지도 하에 포살법회를 개최하거나 학생회 회원들이 모두 둥글게 둘러 앉아 자신의 고민을 돌아가며 터놓고 이야기하는 윤좌법회를 매달 한 차례씩 갖곤 한다.

원융 스님은 청소년 불자 지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불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꼽는다. 청소년들이 학생회를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생각이 밑바탕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스님은 "'신행활동을 통한 믿음의 확인'이 평소 청소년 불자들을 지도할 때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비단 신행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혈기 왕성한 청소년들의 모임답게 자체적으로 다양한 모임을 결성, 사찰 밖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금강축구팀이 대표적인 예다. 사찰학생회가 끝난 후에도 축구를 하는 법우들끼리 모이고, 청년회와 틈틈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5년만에 부활한 수도권지역 사찰학생회 연합 체육대회에도 참석해 기량을 발휘했다.

이은비 기자

11월 11일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존의 청운동 사옥은 **연수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신문 제작 등 제반업무는 종로구 안국동 새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 새 주소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 **편집국·광고국 6층, 관리부 10층**

● 전화와 팩스번호는 기존 그대로이며
대표전화는 (02)2004-8200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귀의삼보하옵고,
배달편자요법은 불자인 문광 이홍재박사가 발명한 획기적인 새로운 의술로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아무런 통증도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나며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산사에서는 도시의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전문인에게 치료받기도 쉽지 않아 아파도 참거나 방치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 보살님들은 늘 몸 여기 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스님이나 법사님 보살님 들이 편자요법을 배우신다면 통증이 전혀 없이 동료 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신도들부터 아기들 까지 모든 환자의 고통을 보살펴 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자요법을 발명한 문광 이홍재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강좌와 본 강좌를 마련하오니
환자시술과 의술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전 10 - 12시, 오후 1시 - 3시(2차례)**
■본 강좌일시 :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
◎**오전반** :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오후반** : 매일 오전 1시부터 3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1개월 전 과정 : 30만원(교재 10만원상당제공) ※ 본 강좌 수료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 의 전 화 : 011-9765-6999
■편자요법으로 치료 잘되는 증상 :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감기기침, 콧물, 코피, 경항통, 어깨결림, 담결림, 등줄기결림, 견통(오십견), 팔뚝아픔, 손목아픔, 손가락관절통, 요통, 환도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발목염좌, 눈 피로, 갑상선염, 심통, 협심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숙취, 간장질환, 생리통, 생리불순, 멀미,**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도보 5분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6> 형편 따라 베풀지어다

앞서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의 근간이 되는 계정혜 삼학을 설명했다. 이 장부터는 보시, 성 안 내는 것, 인욕, 정진, 주력 공부, 예배, 염불 등 수행에 도움을 주는 방편에 대해 설명해 나간다. <선가귀감> 46장에서는 보시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 해탈에 이른다고 이야기 한다.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眞布施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형편따라 베풀지어다. 그들을 나와 한몸처럼 알고 베푸는 큰 자비로운 마음이 참 보시니라.

원래 '보시(布施)'는 부처님 시대부터 있었던 수행방법으로서 범어 dāna의 의역인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덕과 이익을 남에게 베푼다는 뜻을 갖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재물 같은 것을 무소유로 살아가는 수행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시주자로 하여금 공덕을 쌓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뒷날 이 '재보시(財布施)'는 보살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여기에 다시 중생의 거친 마음을 어머니처럼 편안하게 감싸주는 '무외시(無畏施)' 불법에 인연을 맺게 하여 성불할 씨앗을 심어주는 '법보시(法布施)'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수행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다. 재물과 부처님의 법을 따뜻한 마음으로 중생들과 나누는 이 공덕은 뒷날 수행에 커다란 힘이 되어 해탈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보시를 할 때는 찾아와서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힘이 닿는 대로 재물을 베풀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또한 세상의 삶이 덧없는 줄 알고 갖고 있는 재물로 삼보를 공양하고 수행자의 공부 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 공덕으로 갠지스 강 모래알보다 많은 복덕을 지을 것이니, 이것이 재물을 베풀어서 세간의 헛된 집착을 없애 성불할 수 있는 '재보시'이다. 또 중생들이 재난을 만나 두려워하면 편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써 주변을 어머니처럼 감싸 주어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중생들 한 몸처럼 알고 베풀어야 '참 보시'

주고 받는 이 모두 空이니 인연에 집착 말아야

이것이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으로써 두려운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무외시'다. 또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고 있는 대로 온갖 방편을 써서 법을 말하지만 명예나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삶은 물론 법을 듣는 사람의 이익까지 같이 생각하고 그 공덕을 깨달음에 회향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법을 설함으로써 이 공덕으로 뒷날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법보시'라고 한다. 법보시의 공덕은 다른 보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보시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니 보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점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첫째 보시 받을 사람의 덕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평등한 마음으로 두루 보시를 하되 원수나 친한 이를 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행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아하고 받드는 마음을 내고,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둘째는 보시 받을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저마다 바라는 바를 따라 널리 잘 살펴서 넉넉하게 재물과 법으로써 이익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신분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귀하고 천한 사람을 제멋대로 나누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이나 부처님의 법을 두루 다 정성껏 보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보시를 원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구걸을 보더라도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업신여기는 마음 없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거칠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칠고 추한 말로 그들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할 때 모든 중생들을 똑같은 한 몸처럼 알고 베푸는 큰 자비로운 마음이 되니, 이것이 '참 보시'이다. 그 베푸는 힘으로써 선과 악의 성품을 없애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을 없애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성품,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곧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의 성품이 공(空)인 줄 알게 된다.

베푸는 사람도 공성(空性)이요, 받는 사람도 공성이며 오가는 재물이나 법도 공성이다. 이 모든 것이 공(空)일 때 또한 공이라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 보시하여 베푸는 힘으로 없앴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곧 참다운 보시이며 온갖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를 여의니 <사익경>에서는 "보살이 마음에서 모든 번뇌를 버리는 것이 보시"라고 하였다. 이런 보시에 대하여 <심지관경(心地觀經)> 게송에서도 말한다.

能施所施及施物 於三世中無所得 我等安住最勝心 供養一切十方佛

베푼 사람 받는 사람 오고가는 모든 시물 / 과거 현재 미래 삶에 취할 것이 전혀 없어 / 텅 빈 충만 광명 속에 우리들이 안주하니 /시방세계 부처님께 참된 공양 올립니다.

이 게송의 뜻은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오가는 시주물품, 이 세 가지는 공성이어서 조금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온갖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시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시주물의 참 존재는 모두 알고 보면 본디 실체가 없는 공이므로 베푸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으며 오가는 물품 그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나'라는 번뇌로써 보시에 집착할 공덕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주는 사람[自]이 없고 받는 사람[他]이 없어 부처님 마음으로써 하나가 되니 이 세상에 오면서 가져 올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져 갈 것도 없는 부처님의 참살림살이가 된다.

텅 빈 충만, 이렇게 참공덕인 부처님 광명 속을 오가는 참된 삶만 있을 뿐이므로 시방세계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自他爲一 日 同體 空手來空手去 吾家活計

나와 남이 하나로서 둘이 아닌 것 / 이를 일러 똑같은 한 몸이라 하고 /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것 / 이것이 우리의 살림살이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합장(合掌)

TV에서 유명인들이 합장한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불자였구나' 하고 생각하곤 하지요? 아마도 불교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중의 하나가 고개 숙여 합장하는 모습일 겁니다. 만천하에 항복하고 겸양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칼산지옥같은 같은 마음바탕을 비단자락으로 까는 낮춤입니다.

합장은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형식과 법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룰은 있습니다. 우선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지요. 벼의 아름다움이 익어서 숙임에 있듯이 숙임은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몸가짐이지요. 손바닥의 합침은 음과 양의 합침이요, 나와 다른 세상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미 합장하는 순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오래 합장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떨어지곤 합니다.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런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입니다.

대개 합장한 손과 가슴과의 사이에는 주먹하나 들어갈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팔목은 명치끝에 오면 편하지요. 하다보면 손이 처지게 됩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낮추어 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대주면 한결 힘이 덜 듭니다. 보통 합장은 반배와 어우러질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장반배(合掌半拜)입니다. 절집에선 어딜 가나 합장반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수행은 단순한 것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2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7강 혜능의 실천적 충고

13장은 지금까지의 독특한 설파에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 명명이 혹 오해를 부를까 싶어, 몇 가지 다짐을 잊지 않았다. 혜능은 이 피날레에 대고 무슨 노파심을 언설했을까. 그는 다음에 보듯이 <금강경>의 불이(不二) 법문을 실천적 권유로 연금술화해 놓았다. 이로써 자칫 머리로 이동하려는 에너지가 우리네 가슴으로, 다시 두 팔과 다리로 착실히 내려온다. 그것이 혜능 언설의 매력이고 존재이유다. 그 실용주의적 오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통적 <오가해>의 판본에 따라 장을 다섯 단락으로 나누었다.

(본문 13-1절)

爾時, 須菩提白佛言, 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名爲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 卽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이때,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리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고 지키리이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리밀'이라고 할지니,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받들고 지키라. (이 명명은 다만 임시적이니 썼다가 너는 지워야 한다.) 왜냐. 수보리야, 부처(인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라 하지만, 이는 기실 (실체로서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전제로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육조 13-1)

"佛說般若波羅蜜, 令諸學人用智慧, 除卻愚心生滅. 生滅滅盡卽到彼岸. 若心有所得卽不到彼岸, 心無一法可得卽是到彼岸. 口說心行乃是到彼岸也."

"부처가 이렇고럼 반야바라밀을 설한 것은 여러 학인들로 하여금 지혜를 발휘해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生滅)'을 제거토록 하고자 함이다. 생멸이 다한 곳, 거기가 피안이다. 여기 만일 '얻은 바 있다(有所得)'는 마음이 들면 피안에 이르지 못한다. 마음에 그 무엇(法)도 얻을 수 없다는 진실에 투철하면 그는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치를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실천해야 피안에 이를 수 있다."

(부연 13-1)

불교는 가정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가 오랜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하여 불교의 '지혜'가 실제 작용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이다. 혜능 또한 반야바라밀의 타겟이 '우심생멸(愚心生滅)의 제거'라고 분명히 적었다.

'우심생멸(愚心生滅)'은 '어리석은 마음에 오가는 생멸'이다. 아니 '어리석은 심생멸(心生滅)'로 읽을 수도 있다. 짐짓 <대승기신론>의 어법을 차용해서 이 구절을 읽어보기로 하자.

두 가지 마음, 체용(體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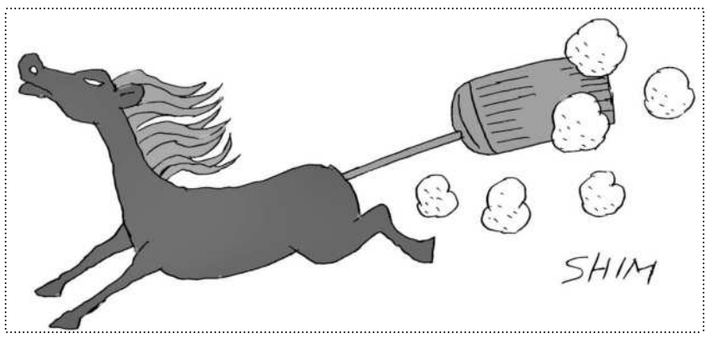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은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썼다. '마음의 바탕'과 '마음의 파장'이 그것이다. 전자를 심진여(心眞如)라 하고, 후자를 심생멸(心生滅)이라고 한다. 당연히 우리네 마음의 수많은 작용들은 바다에 이는 파도처럼 망망 거대한 바다의 그 고요로부터 온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교가, 그리고 <대승기신론>이 마음의 근원을 프로이트나 처럼, 의식의 불건전한 잡동사니 창고라고 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은 고요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하다. 그 속에 고래나 자라, 수많은 고기떼와 수초가 있는 생명의 활발할한 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그 고요하고 무한하고 풍요롭다는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다 하는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나는 한심하고 하찮고 위태롭다. 시시각각 작은 걱정 큰 근심에 잠자리 땀 흥건한 나를 발견할 뿐이지 않은가. <대승기신론>은 이 퇴전(退轉)의 비관에 '희망의 바가지물을 들이붓는다. "너는 부처다. 잊지 마라."

내 마음을 오가는 흔적들, 크고 작은 파도들을 심생멸(心生滅)이라고 한다. <기신론>은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우선 오해 하나를 적어두고 가야겠다. 간혹 심진여는 좋은 것, 그리고 심생멸은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의 바탕(體)을 적절히 운용(用)하는데 있다. 고목사회(枯木死灰)를 어디다 쓰겠느냐. <대승기신론>은 건전한 심생멸(心生滅)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아무 것도 태어나지 않는다"



두 가지 심생멸(心生滅)

<기신론>은 생멸하는 마음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자각적인 마음이고 하나는 부자각의 마음이다. 여기가 중생과 부처의 갈림길이다.

삶이 혼동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삶을 '보는' 자기의식의 불투명성, 불철저함에 기인한다. 삶의 추함과 아름다움, 선과 악은 '있는 그대로,' 그 의식의 빛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 불교는 우리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거나, 즐거움만이 가득차 있다고 사기치지 않는다. 다만 고통을 구성하는 연쇄고리를 보다 분명히 알고, 그 뿌리가 인간의 원초적 무지와 맹목적 욕망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고, 사물의 실상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그 자각이, 그 반야바라밀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재에 위안을 주며, 궁극적 평안의 언덕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깨어있는 자각적 주시는 우리네 고통을 '1차원'으로 묶어놓고, 의식으로 하여, 오해로 하여 증폭되거나 파생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고통은 환경이나 상황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심리적 정서적 개입과 증폭'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주어진 재난을 더 든든히 견디고, 어떤 사람은 작은 금전적 손실이나 자존심의 상처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 "오로지 밖을 향해 탓을 하지 마라. 고통은 대부분 그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18계(界) 이론을 통해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18계에 세 가지 영역이 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는 '감각기관'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이다. 둘은 '감각자료', 즉 대상과 환경이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 이들을 연관짓고 인식과 판단을 구성하는 '입법적 작용'이다. 여기 환경과 대상, 여건은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오직 하나를 구성할 뿐이다.

뿌연 먼지에 덮인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生滅)'이란 부자각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활동들을 가리킨다. 이들 '소외된 심생멸'은 작은 일에 쉽게 자극받고, 심리적 정서적 자아의식이 강하다. 자기만의 독단을 객관적이라 자부하며 과거의 기억에 현재를 묶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장밋빛 환상을 걸기 쉽다. <대부>에서 기억나는 명대사가 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을 흐린다." 조바심과 원한, 편견이 작동하면 현재의 실상을 여여하게 인식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금강경>이 적고 있듯, 세상은 너와 내가 평지풍파(平地風波)로 일으킨 먼지로 뿌우옇다. 흡사 여름날 빗자루를 꽁지에 단 말이 한바탕 히힝거리며 춤을 춘 것같다.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이 마음의 풍경이 그저 속상하고 안타까왔던 사람들이다. 무의식에서라도 신호가 왔기에 독자들은 이 글을 보고 있다. 그 발심(發心)만으로 이미 절반은 이루어졌다. 그 신호를 따라 가다보면 적절한 계기와 절차를 거쳐 그리던 평화와 아타락시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뜻을 굳게 가지시기 바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생각이 쑥쑥 자라는 어린이 철학교실



쉽게 지나치는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것들 가운데 조금만 의식하고 찾으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갔지만 부모님과 캠프에 온 몰리. 몰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자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 몰리는 식구들이 '수학여행이나 보내버릴 걸' 하고 후회하도록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다. 아침식사도 않고 캠프장에서 나와버린 것. 나쁜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다보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 커다란 멍까지 생기고. 그냥 될대로 대라는 심정으로 길가의 풀밭에 누워버린다.

잠시후 몰리는 뺨에 뭔가 간질간질한 것을 느낀다. 그것은 샛노랗고 가운데는 약간 짙은 주황이며,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는 뾰쪽한 꽃잎들로 이루어진 흔하디 흔한 민들레이다. 하지만 정말 아름답다. 몰리는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에 민들레가 피어 마치 금빛 카펫이 깔려 있는 듯 했다. 저 너머로 완만한 언덕이 보이고 그밑에는 시냇물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몰리는 이곳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도 이 꽃들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철학교실 <생각이 자라나는 이야기>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동화는 아름다움이 여러 다양한 자극(아름다운 것)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것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예컨대 친구와 다툰뒤 어떻게 화해할까 하고 고민하며 걷다보면 아름다운 공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사방 어디에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고 찾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행복한 삶' '착한 행동' '봉사' '아름다움' '진실' '인내'등의 말은 어린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자주 듣고 말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들의 뜻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았을까?

사실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쉽게 듣고 넘겨 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말들임에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것은 자주 듣는 말이다 보니 다들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도 없고, 주변에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니…,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본 어린이는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한 다음이므로 좀 더 창조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려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처럼 스스로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이 책은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준다. 또 어린이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때 행복의 길을 스스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러준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거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준다.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바꿔말하면 행복은 자기성찰이나 자기중심적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장소들, 사건들에 마음을 엶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얻으려면 지금 이순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해준다.

책 속의 이야기 중에는 유명한 고전도 있지만, 창작동화도 많이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쓰여진 이들 창작동화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어 주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때 어린이의 연령이나 관심, 사고의 수준에 맞게 각 주제별로 있는 다섯 개의 이야기 중에서 골라서 읽도록 하면 좋다. 저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이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구성했다고 하지만, 특히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에게 더욱 적합할 것 같다.

또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싶지만 무엇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어떻게 질문하고 생각을 이끌어낼지를 고민하는 어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저자인 폴 크레그혼(Paul Cleghorn)은 영국 스코틀랜드 중부의 클라크마난셔 주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주(州)교육위원회에서 사고의 기술 프로그램 담당 위원이기도 하다.

공동저자인 스테파니 보데트(Stephanie Baudet)는 1986년에 동화 <눈사태>를 처음으로 출판한 이후 어린이를 위한 책을 계속 집필해 오고 있으며, 이 책의 공동저자인 폴 크레그혼과 함께 여러 권의 어린이 철학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생각이 자라나는 이야기 1, 2
스테파니보데트, 폴 크레그혼 지음
닥터필로스 | 9500원

네티즌 강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된 고문



야만시대의 기록 박원순 지음, 역사비평사

고문이란 무엇일까? 이 책을 읽어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교차하게 만든 단어 이다.

우리가 흔히 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폭력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 하는 행위 라고 나는 생각 한다. 지적인간이기를 포기 하고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을 추구하는 즉 짐승 같은 행위를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직도 폭력이 분명이 존재 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끼리의 폭력 이것은 폭력의 세습을 의미 한다.

하물며 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의 폭력도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회 공권력의 집단적인 폭력인 고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말살 하는 행위라고 생각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지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다. 그리고 사회적이나 군사적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오랜만에 좋은책을 만나서인지 기분까지 좋아진다.

(paulkim69k, lifelog.blog.naver.com/paulkim69)

책속의 밑줄긋기

달라이 라마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 지난 50년동안 망명생활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티베트인들 전부는 달라이라마를 자신들 삶의 중심인물로 보아왔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가 티베트가 분리되고 고립돼서 문화,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과거와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가 떠난다면 게임의 판세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있기나 할까 걱정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떠나고 없다면 중국이 티베트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태를 진정시킬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달라이 라마> 본문 490~491쪽 중에서, 데브라 하트 스트로버, 제럴드 S. 스트로버 지음, 즐거운텍스트

일곱 개 컬러 에너지를 조화롭게 쓰는 법



○…빛은 에너지다. 컬러는 빛에서 나온다. 그 결과 컬러들에서 나오는 에너지 혹은 컬러 에너지가 된다. 몸의 에너지 발전소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생각하고 전인적인 치료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에너지 발전소를 전인적인 전체로서 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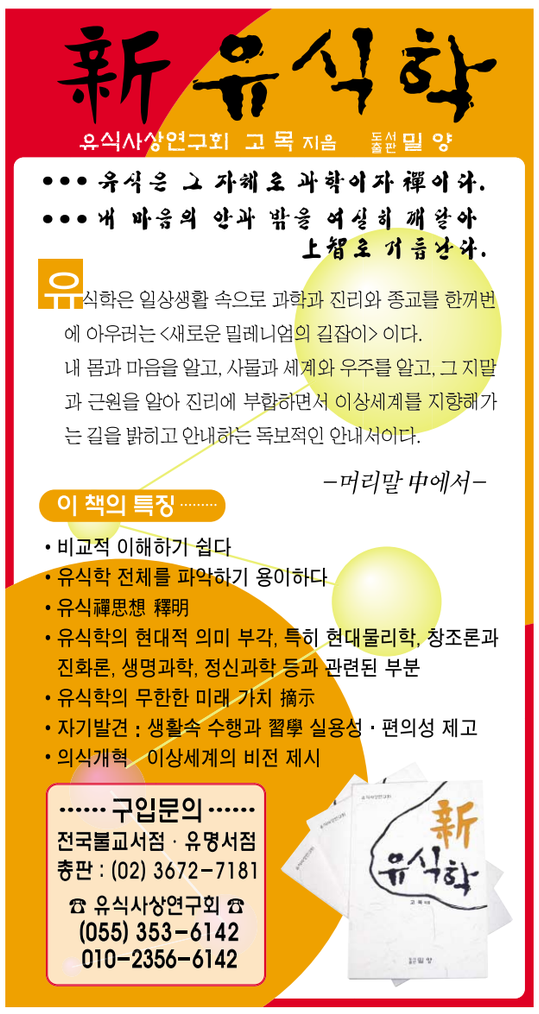
우리는 일곱 개의 컬러 에너지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작동해야 한다. 비록 유전되었거나 타고난 긍정적인 소질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소질만을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못하다. 그것은 7기통 자동차를 하나의 기통으로만 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곱 개의 기통을 모두 사용하도록 창조되었다. 컬러 에너지 센터들은 모두 회전해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컬러 에너지> 본문 57쪽 중에서, 잉거 네스지음,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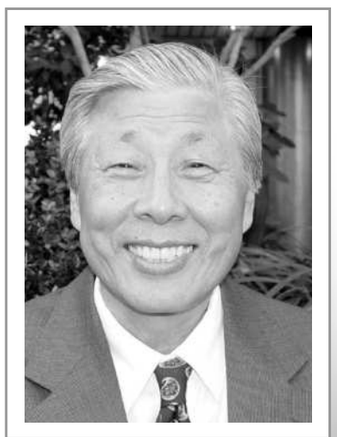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숨가쁘게 사는 사람들 삶 돌아보는 계기됐으면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낸 황명찬 건국대 명예교수

"30년동안 공부해온 부처님 법을 이제야 조금 알게되니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30대 후반부터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즐겁게 사는 길이 '마음 다스리는데 있다'고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왔다는 황명찬 건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70 · 前 건국대 부총장 · 사진)가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를 펴냈다.

황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바를 정리하게 돼 기쁘지만 잘못알고 있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숨가쁘게 살아가는 생활인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많은 선지식으로부터 배우고 눈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처음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한 의도가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주려고 한 작업인 만큼 불교를 수필식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그 분주한 마음을 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장 전깃불의 화두와 2장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에는 '한마음' '적멸보궁' '마음의 참성품' '물의 일생' '전깃불의 화두' 등의 주제를 담담한 필치로 조용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려 '천천히'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3장 네가지 진리와 사물의 참모습과 4장 빠르고 손쉬운 길은 그동안 저자가 해온 손쉬운 수행법은 물론이고, <법화경> 및 '중관'과 '유식사상' 등 불교의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다. 또 종교에 상관없이 마음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도 좋은 길동무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티베트가 선교를 겸하고, 중국 선승들도 경전을 꿰고 있는데 한국만 교를 터부시하는 풍조가 안타깝다"는 황 교수는 "많은 분들이 이책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자인 황명찬 교수는 1936년 강원도 간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태평양지역 지역학회 회장을 지냈다.

김원우 기자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황명찬 지음
지혜의나무 | 9800원

스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

일상 속 고민에 대한 법륜 스님의 해법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 9000원

주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법륜 스님: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떠나세요. 상대는 내가 필요 없다는데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하니까 못떠나는 것이지요. 다 가지려고 하면 감정만 상하지요. 남편의 외도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조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해요. 마음을 비운다느니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하다고 마음을 비우기는 비워요. 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괴로운 일을 겪는다. 부부사이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길게는 인생의 대부분이, 짧게는 잠시 잠깐, 순간에도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한눈 파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주부, 며느리가 못마땅한 시어머니, 결혼한 자녀가 잘 살지 못해 불안한 어머니, 상대가 미워죽겠는 사람, 혼자 주눅 들어 의기소침한 사람 ….

우리가 묻고 싶었던 일상의 질문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이 해답을 내놨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2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는 '잘 사는' 것에 대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일상의 불편한 일을 겪는 우리들이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답변이 생생하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질문하고 싶었을 구체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법륜 스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하게 안내한다. 말하자면 '마음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법륜 스님은 명쾌하게 일상의 고통과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법륜 스님은 '잘 사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스님은 '마음'이라고 해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현실을 먼저 보고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권유한다.

법륜 스님은 1988년 설립한 정토회에서 정토 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금강경 이야기> <반야심경 이야기> <일과 수행, 그 아름다운 조화>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 <즉문즉설 1-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 <붓다, 나를 흔들다>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노래하는 도신 스님의 '사부곡'

입적한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의 애틋한 인연



"우리 스님은 보살이셨습니다. 스님은 참으로 혜안을 가지신 자비보살이셨습니다. 밧줄에 묶인채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재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출가승 최초로 국악가요 음반을 냈으며, 전국의 사찰과 양로원 교도소등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보시하는 도신 스님(서산 서광사 주지 · 사진)이 <나의 스승 법장 스님>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해 원적에 든 은사인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를 그리는 '사부곡'이다.

여덟살의 어린나이에 동자로 수덕사에 입산해 17세에 법장 스님에게 수계를 받고 출가한 도신 스님은 "은사스님은 나에게 스승이자 아버님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한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상좌에게 종아리를 때리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던 20대 중반의 은사스님.

도신 스님은 "초등학교시절 '까까중'이라 놀리던 아이들과 싸운 상좌를 학교에서 수덕사까지 업어주었던 일과 몰래 숨어 노래를 부르던 나의 기타를 세 번이나 박살내던 은사스님이 너무 그립다"며 "몇십대의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곁에 은사스님이 있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스님의 책에는 입산출가에서 수계, 노래하는 스님이 될 때까지의 법장 스님과 얽힌 추억을 회상한다. 마지막으로 수덕사를 중창한 은사스님의 업적과 총무원장 재직중의 업적, 공덕, 다시듣는 법문, 스님께 보내는 편지 등을 실었다.

김원우 기자



나의 스승 법장 스님
도신 스님 지음
혜민기획
1만2000원

부처님 생애를 한눈에



논픽션 붓다
(초보자의 불교 읽기)
유홍종 지음
해누리기획 | 9000원

부처님의 생애를 한눈에 읽고 싶다면 <논픽션 붓다>를 권한다.

이 책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무엇이며, 붓다의 깨우침이 무엇인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부처님께서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설법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돋보인다.

우리 세계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계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바로 거기에 있다.

저자 유홍종씨는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문예지 <월간문학> 시 부문 신인상과 <현대문학> 소설 추천을 거쳐 문단에 데뷔, 장편소설 <불의 회상>으로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받았고, 중편소설 <서울에서의 외로운 몽상>으로 소설문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법구경



진리의 꽃다발
장철문 지음
아이세움 | 9800원

청소년과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붓다의 드넓은 자비의 세계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어줄 책이 나왔다.

<진리의 꽃다발 법구경>은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법구경> 423편의 경전 중에서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31편을 골라 번역하고, 그에 관한 배경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덧붙였다. 가능한한 쉽고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며, 현대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배경이야기를 가진 것들을 골라 싣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지혜' '생활' '평화'라는 세묶음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 사이에는 국내 저명화가들의 그림을 실었고, 불교용어찾기 코너도 쉽게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처님 열반 당시를 서술한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추가했다.

저자 장철문씨는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94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시 <마른 풀잎의 노래>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바람의 서쪽>과 동화 <노루 삼촌>을 펴냈다. 현재 어린이책 기획 및 집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무엇이 보이는고(산중방담1)	강병호, 8000원, 온누리
· 보리도차제약론	쫑카빠, 3만5000원, 시륜
·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전재성, 3만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사진으로보는 중국차	박홍관, 2만5000원, 형설출판사
· 옥추경 연구	구중회, 1만9000원, 동문선

도서주문 (02)2004-8219

당신을 살리는 내면의 울림!

바 이 로 차 나

맑은소리 맑은나라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교전문 출판사
(051)244-0263

출판사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던 문제의 원고, 그 어떤 스님도 쉽게 서문 써주기를 꺼려하며 손사래를 쳤던 그 화제의 원고가 百思千議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생세계의 혁명가라 불리어지는 공파스님의 거침없는 필치와 파격적인 叱正은 어정쩡하게 세간과 출세간의 名相만을 즐기는 당신을 전율에 떨게 하고 소름을 돋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심이 얕고 의지가 박약해 불교의 표면만을 겉돌고 있는 당신을 강직하면서 순박한 불자로 확실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언과 **극락세계 1 · 2 · 3** 그리고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내 놓을 때 마다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파스님의 새로운 역작 **바이로차나**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펴시고자 하셨던 원초적인 말씀과 현재의 이 불교가 얼마나 그것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아울러 그 나아갈 바의 길을 상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파 스님 역해 | 350쪽 | 값 10,000원

삼보불교음악협회 창작 뮤지컬

'오세암' 무대에

엄마가 그리워 관세음보살을 엄마로 삼고 살아가는 다섯 살 세암이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관객들과 만난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가 창작 뮤지컬 '오세암'을 준비했다.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11월 16~17일 공연하는 뮤지컬 '오세암'은 삼보불교음악협회 소속 합장단의 전임 단장들이 모여 결성한 관음회 합창단의 창단공연이기도 하다.

100여명의 인원이 출연하는 뮤지컬 '오세암'은 '장님이 된 감이와 첩부지 세암이' '마음의 문을 열고' '관음암에 꽃비 내리고'의 3막으로 구성됐다.

해안 포구가 보이는 작은 마을, 감이네가 살고 있다. 앞 못 보는 첫째 감이를 두고, 둘째 세암이가 태어나던 해 아버지는 병으로 죽었다. 세 가족이 힘겹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나고 엄마마저 세상을 등진다. 감이와 세암이는 집도 없이 떠돌기 시작한다. 거

정부기 교수 지휘, 세암이役 최현진

16~1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서

지꼴이 된 남매를 만난 설정 스님은 두 아이를 거두고, 마등령 고개턱에 있는 관음암에 개구쟁이 세암이와 함께 오른다.

관음암에서 관세음보살 탱화를 발견한 세암이. 세암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엄마다. 설정 스님이 먹을거리를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간 사이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고…. 죽었으리라 생각한 세암이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부처가 된다.

마을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를 지내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뮤지컬 '오세암'은 주인공 감이 세암이 설정 스님 외에도 동네 사람들과 스님 및 공양주 보살, 신도들, 관음암 인근에 사는 토끼 다람쥐 너구리 노루 등 동물들 등의 다채로운 인물들이 출연한다.

정부기 교수(중앙대 작곡과)가 지휘를 맡고 이화자 회장(관음회 합창단)이 기획했다. 세암이 역은 최현진(중앙승가대 지휘)씨가 맡아 변성기 전 목소리를 연기한다. 소프라노 박정희(경희대 음대 출강)씨는 감이를, 바리톤 이경호씨는 설정 스님을, 테너 이준형씨는 주지스님을 맡아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창단한 바라오페라단이 초연한 작품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11월 18일 오후 7시에 앙코르 공연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활성화 사후 지원대상 작품으로 선정돼 재공연하는 것이다. (02)723-0440

강지연 기자



영상과 춤이 만나 되살려낸

신라 천재 화가 솔거

리뷰 '솔거의 화첩 線 善 禪의 길'

눈에 보이는 사물 닥치는 대로 세묘해 내던 그림 신동이 線의 세계에서 禪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예술세계 추구했던 꿈과 강한 의지 형상화

불이 꺼지고 막이 오르자 무대 위 영상 속에 펼쳐진 백색 도화지에는 한 그루의 소나무 스케치가 완성된다. 순간 영상은 시공을 거슬러 어느 숲에 누운 '솔거'에게 집중된다.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조차 진짜 소나무인줄 알고 앉았다는 황룡사의 벽화 '노송도(老松圖)'를 그린 신라 진흥왕 때의 화가 '솔거'. 그의 생애가 11월 6일 경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비디오 영상과 춤으로 되살아났다.

육정학 비디오&댄스 콤퍼니가 '솔거의 화첩 선(線)선(善)선(禪)의 길'을 비디오와 춤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영상예술로 무대에 올렸다.

신라 법흥왕 때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솔거. 그림을 좋아해 무엇을 보아도 세묘해 내는 그림의 신동이었던 그가 꿈속에서 단군으로부터 신필을 선사받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신필을 얻은 솔거가 꿈에서 본 단군화상을 1000여점 그려낸다. 선(禪)의 이미지로 새로운 세상을 그리려는 과정을 선(線)·선(善)·선(禪)의 길로 짜임새있게 묘사했다.

2막 선(線)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이 세상을 이루는 가운데 신필을 얻은 솔거가 사랑과 그리움 희망과 절망을 아우르며 자신의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렸고, 3막 선(善)에서는 그림을 그리지만 다시 휴지가 되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선행의 탑을 쌓으며 강한 의지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솔거를 표현했다.

그리고 마침내 솔거는 4막 선(禪)에서 술에 취한 듯 들판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황룡사의 노송도를 그려나간다. 솔거는 완성된 노송도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완성을 깨닫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백현순 교수(한국체육대 생활무용학과)는 "솔거라는 예술가를 생각하며 線과 善, 그리고 또 하나의 禪을 묶어 마침내 완성에 다다르는 경지를 향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며 "멀티미디어시대에 춤을 낯설어하는 관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비트 있는 타악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흐르고, 비디오영상이 무대를 산과 강·계곡으로 순간 이동시킨다. 비디오영상과 무용수들의 현란한 몸짓은 60분간 경산시민회관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공연은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비디오&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영상예술을 부각시켰다.

비디오&댄스란 무용이라는 공연예술이 갖는 한계 즉 제한되고 한정된 무대에서 제한된 관객에게만 보여준다는 불만을 초월하기위해 시도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무용'이다. 일종의 영화제작과 같은 작업처럼 보이지만 주제를 설명하지 않고 영상 이미지로 표현한다. 관객들 스스로 보고 느끼며 줄거리를 상상하게 해서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로 볼 수 있다.

연출과 촬영을 맡은 육정학 교수(영남외국어대학 방송영화디자인과)는 "지난 여름 시원한 솔밭을 기억하며 솔거라는 예술가의 화첩을 꺼내보았다"며 "한 예술가의 삶을 단편적인 조각들로 표현한다는 게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재현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육정학 교수는 제34회 한국영상제 최우수작품상과 제66회 UNICA국제영화제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무대의 독무는 영상 속 무용수들과 어울려 환상의 군무로 변신한다.



자연과 무용수를 비추는 영상은 다양한 공간을 무대위에 연출한다.



솔거의 그림(線)이 점차 정신의 경지(禪)로 올라가는 모습을 무용수들이 표현한다.

글·사진/경산=배지선 기자

문화재 보존처리

前 後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립대구박물관이 '문화재 보존처리'를 주제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문화재, 문화재 보존처리'전을 11월 7일 시작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국립대구박물관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 보존처리 전 후 사진과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을 전시한다.

과학적 분석 장비(XRF)를 이용한 금동유물의 성분 분석, 철제 유물의 엑스레이 내부 구조 조사, 목제유물의 수종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유물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들은 금동 불상(사진), 철제 재갈, 목제 두레박 등이다. (053)768-6051~2

강지연 기자

'불교미술 本然 문도전'

11월 23일~12월 3일 대구시민회관

불모 전연호씨 문하생들이 결성한 본연문도회가 11월 23일~12월 3일 대구시민회관 2 전시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연호 선생의 후학들인 '본연문도회'가 그동안의 작업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불화는 그림이기 이전에 종교'라는 사상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본연문도회원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화와 전통문양, 현대미술을 조화롭게 엮어냈다.

불교미술대전 금상 수상경력의 김성희씨등 16명의 문하생이 이번 전시회에 동참했다.

본연문도회는 '불화이야기'라는 이름의 화실을 열어 불화 보급에 나서고 있다. 다음 카페(cafe.daum.net/bulhwa)도 개설해 불화의 기초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011-526-1086

강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황토 원적외선 좌훈기

(좌훈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측면

◐ 100% 황토와 세라믹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여자분의 냉대하증, 요실금, 산후조리, 치질, 습진 등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취향에 따라 건식 및 한약재(티백)를 이용하여 습식으로도 가능하며 온도조절이 용이하여 내부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윗면

◐ 질좋은 황토를 사용하였기에 원적외선이 많이 방사되고 은은한 열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 우리의 선조는 황토흙 벽돌로 집을 짓고 생활하였으며 현대도 찜질방, 황토굴 등 자연의 황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내부 용기 세척이 용이하여 위생적입니다.
◐ 좌훈은 혈액 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 약제 티백 공급합니다.

특허·실용 출원중임

전 원	220V
규 격	380×380×420
소비전력	650W
중 량	12kg
식약청 제조허가 1687호	

두영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43-17
TEL : 053)985-6939,6940 FAX : 053)985-6930 H.P : 011-810-3301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7

백운 스님(前 범어사 강주) / 법화경(11월 4일)



"<법화경>은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이 무엇인지 빈틈없이 담고 있는 경전"이라며 늘 수지 봉독할 것을 강조하는 백운 스님.

바로 마음 밝히면 이것이 '일승'

다섯 살에 출가한 나는 노스님의 무릎 위에서 역대 고승들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팔만장경만 다 섭렵하면 도인은 자연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지요. 크면서 조사어록도 배웠습니다. 그 때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서장>에서 화두를 타파해 깨쳐야 도인이 된다는 말이었지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팔만장경이 부처님 말씀으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는 견성하기 어렵고 참선해서 화두를 타파해야 견성할 수 있다'고 하니,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된 겁니다. '팔만장경보다도 조사어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늘 머릿속에는 '조사어록이 경전보다 공부에 요긴한가, 더 높단 말인가' 하는 궁금증 속에서 참선과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법화경>은 예산 수덕사 선방 시절부터 읽었습니다. 당시 방선만 하면 <법화경>을 꺼내 읽었는데, 선방 대중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혼자 읽었지요. 그때 <법화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일승이다'고 하는 것보다 '전생에 이렇게 닦아서 지금에 와서 성불했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법화경>을 똑바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틈틈이 읽으며 그 대의를 알게 됐습니다. <법화경>이 좋은 까닭은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법문때문입니다. 그럼, 일대사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중생에게 불지견(佛知見)을 열어(開) 보이고(示), 깨달아(悟) 거기에 들게 하기(入)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지견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일불승(一佛乘), 또는 일승(一乘)입니다. 여기에는 트집 잡을 만한 것도, 또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다른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 가르침 전체가 '일승'
> 높고 낮음과 선과 교
> 따로 구별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처의 지견을 이룬다?' '부처의 지견이 무엇인데, 이것을 열고 보이며 깨달아 들게 한다는 것인가' '부처의 지견이면 그만인데, 왜 중생들에게 개시오입하게 한단 말인가' 등의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느 스님이 '<화엄경>과 선(禪)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스승은 '무진성해합일미(無盡性海合一味 : 다함이 없는 성품 바다가 한 맛에 합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한 맛', 즉 일미(一味), 이것은 <화엄경>입니다. 또 '일미상침시아선(一味相沈是我禪 : 한 맛까지도 다 쓸어 없애는 것이 나의 선이다)'이라 했습니다. '무진성해'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일미'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맛'이란 말은 결국, 일승을 의미합니다. 모두 일승에서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승이란 말까지도 치워 없애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과 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승(小乘), 중승(中乘), 대승(大乘) 일승(一乘) 등으로 말입니다. 가령 화엄 학자들은 <화엄경>을 일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일승원교(一乘圓敎)라 하지요. 법화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대승종교(大乘終敎)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승의 관문에 들어가는 것을 법화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태지자 스님은 반대입니다. <화엄경>을 설할 때는 아직 부처님의 제자들이 없이, 깨친 경지를 시방세계 대중들에게 설했기에 대승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 40년째를 맞아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천태지자 스님은 <법화경>이야 말로 일승사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교학자 대부분은 <화엄경>을 일승(一乘)이라 하고, <법화경>을 대승종교라 하지만, 천태 지자 스님은 <법화경>이 일승이고, <화엄경>은 대승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천태지자 선사의 천태종 계통에서는 <법화경>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는 "부처님은 항상 일승만을 설했다. 그러나 사부대중이 일승을 못 알아들으니, 사부대중의 근기에 맞게 소승, 중승, 대승 등으로 일승을 설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소승부 경전이라 보는 아함부 경전도 일승만을 설했고, 방등부 경전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의 말에 따르면,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 전체가 오직 일승만을 설한 셈입니다. 일승을 사부대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기에 따라 이것저것 설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함부 경전이라고 법문이 낮고,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라고 법문이 더 수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일승을 설했기 때문입니다.

원효 대사의 이 같은 교상판석은 중국, 일본에도 없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일승만 설했고, 대중들의 근기에 맞게 소승 중승 대승 등 여러 가지로 설했을 뿐'이란 원효 대사의 사상은 선과 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전부 일승이란 시각에서는 '선이다, 교이다'라고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가 되는 셈입니다.

<법화경>에는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란 부처님이 나옵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즉 54억만년 동안 도량에 앉아 좌선을 했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이루지 못한 부처님입니다. 이를 교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 상불경 보살처럼
> 상대방 공경하는 삶
> 성불의 인연 심는 것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10겁은,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이라 하고, 다른 교학자들은 10악이라고 합니다. 먼저 10악이라고 보는 것은, 10겁을 도량에 앉아도 10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불도를 이루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선(禪)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지승불'이 부처님이라면, 부처의 눈에는 우주법계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엄경>에서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면, 이 우주법계가 전부 부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두두물물이 모두 불법이듯이, 대통지승불이 부처인데 10겁이든 100겁이든 부처 앞에 무슨 불법이 현전하겠습니까. 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교학적으로 문자에만 얽매여서 해석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안목을 높여서 보면,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10겁이든 100겁이든 한 찰나동안 앉아있든지, '불법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이미 부처님 세계에 있는데, 불법의 현전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 · 문자에만 집착해서 보면, <법화경>은 아함부 경전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언어 · 문자에서 벗어나서 보면, <법화경>은 '일승원교' 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승만을 설했다'는 원효 대사의 말처럼, 부처님은 <법화경>이든 <아함경>이든 일승만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법화경>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경전입니다. 물론 다른 경전이 못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하나하나가 요긴한 말씀들입니다. 나는 늘 '과연 일승이란 무엇일까?'하고 의심했습니다. 물론 교학적으로 해석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해석보다도 조용히 아침 · 저녁으로 참선하면서, 그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두는 어디로 가버리고, '일승이란 무엇인가'란 이 말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에 가장 가까운 화두가 '만법귀일 귀일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인고?' 입니다. 만법은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고, 귀일(하나로 돌아간다)은 일불승, 일승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하나는 <법화경>의 일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 문자로 이해하면, 이미 일승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군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함허득통 선사(1376~1433)가 얻은 두 번의 견성체험도 바로 <법화경> '방편품' 게송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합허 선사가 달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정수병을 똑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깨지는 소리를 듣고, 머리 속에 몰록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차일사실(唯此一事實) 여이즉비진(餘二卽非眞)이니라.' 즉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왕복 1만원)

海印寺 高麗刻板「사간판 인경본」보급 불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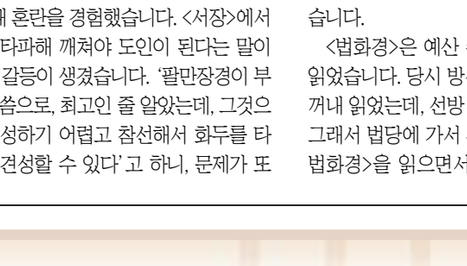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께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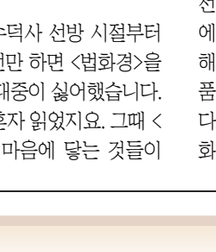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왔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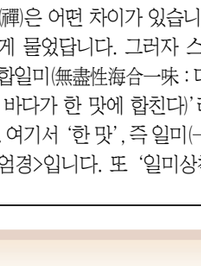
각 「사간판 인경본」 10질 한정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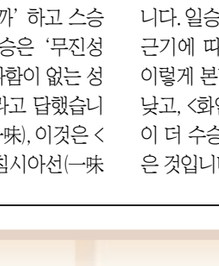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칠경



대문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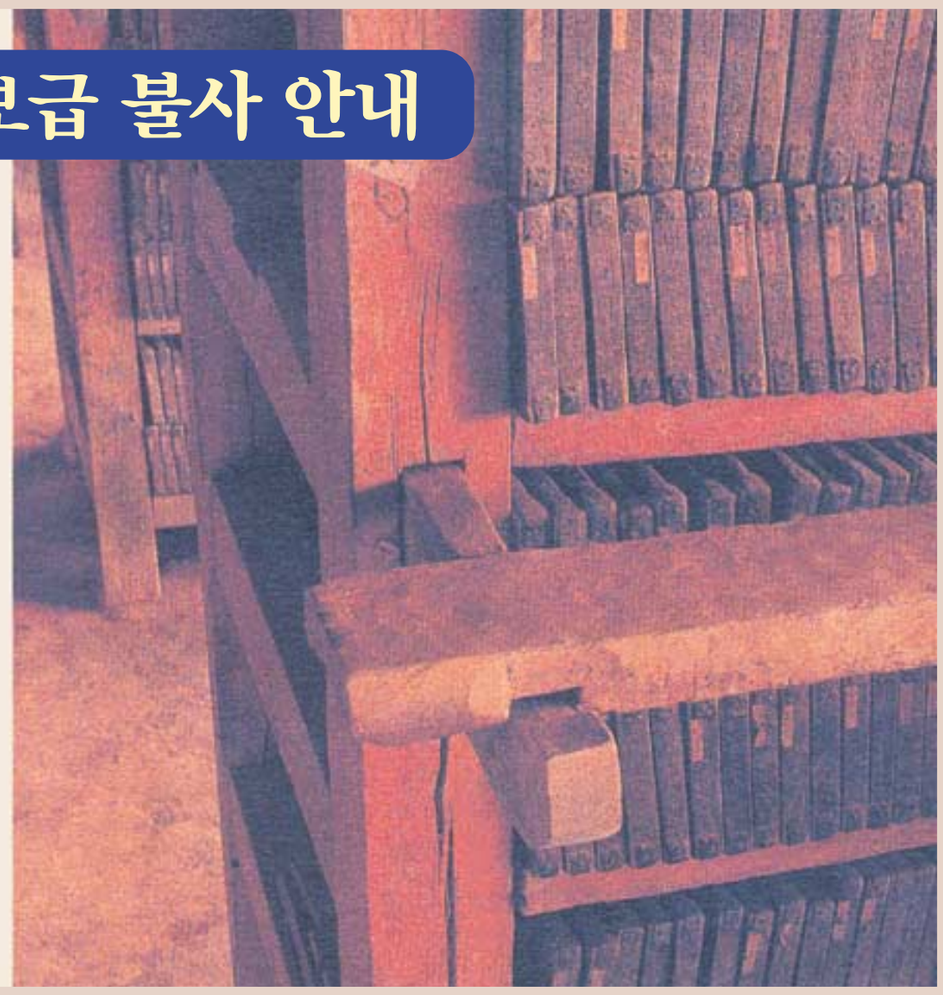


인천보감

경 이 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 이 름	총권	판매가	경 이 름	총권	판매가	비 고	경 이 름	총권	판매가	비 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고봉화상 선요	1권	50만원		大文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인 천 보 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 왕 생 칠 경	2권	200만원 100만원	1권 국보 206-10 1권 보물 734-3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7

백운 스님(前 범어사 강주) / 법화경(11월 4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요, 나머지가 둘이면 이미 참됨(진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법화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오가해>를 쓰신 다섯 분의 고승 가운데 유일한 한국 선지식인 함허 스님의 초견성입니다.

여기서 '한 사실'은 일승을 말합니다. 이를 한 차원 높여보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선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번은 함허 선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다가, 문득 안개 낀 회암산에 봉우리만 불쑥 튀어나온 풍경을 보고 깨침을 경험합니다. '행행홀회수(行行忽回首), 산골입운중(山骨立雲中)'이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고개를 돌이키니, 산 뼈가 그 구름 속에 서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산 밑에서는 안개가 하얗게 끼었는데, 산봉우리만 우뚝 서있다는 것입니다. 함허 선사는 두 번에 깨침의 기쁜 맛을 보고는 일대사인연을 해결했습니다. 이 두 번의 내용 모두가 <법화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때문에 <법화경>을 보고서 못 깨친다는 것은 헛소리가 됩니다.



<법화경>과 선수행을 접목한 스님의 법문은 특히 간화선 수행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했다.



백운 스님의 법문은 시종일관 불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했다.

<법화경>이든 <능엄경>이든 깨치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함허 스님의 깨침은 선과 교, 경전과 참선이 '둘이 아님'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치는 사람에게는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최고의 진리만을 설했다'는 원효 대사의 말씀이 너무도 지당합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에 상불경보살이 나옵니다. 항상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보살입니다. 상불경보살이 얼마나 상대방을 공경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불경보살은 늘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묻기를, "왜 보살님은 땅만 바라보고 다닙니까?" 하니, "내 발 밑에서 밟혀죽는 저 미물 중생이 나보다 먼저 성불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 미물 중생이 혹시 내 발에 밟혀죽을까 봐 그것을 피하려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 공경은 물론이고 미물 중생까지도 해치지 않으려는 공경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상불경'이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상불경보살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곧 "내가 전생에 상불경보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처가 된 것은 그때 상대방을 공경했기에 성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상불경보살. 그 분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선양하는 대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닦아 나가 성불할 것인가를 비유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불경보살 같은 선지식들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굽니다.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래 선지식 가운데 하심으로 유명한 지월 스님이 계신데, 바로 이 분이 상불경보살 같은 선지식입니다. 지월 스님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습니다" 하고 하심을 했습니다.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할 줄 알았던 지월 스님이야말로 상불경보살이었습니다.

상불경보살 이외에도 <법화경>에는 환희심 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승이다. 이것이 불지견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앞부분에서만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일승인지'에 대한 말씀은 정작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승의 가르침을 언어 · 문자로 말해버리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경전을 언어 · 문자로 이야기하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전부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행자들은 경전 밖에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줄거리로 볼 때, 부처님이 성불해 처음 설한 <화엄경>과 40년 후에 설한 <법화경>은 불교 골수를 다 담아낸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화경>은 일승사상을 말하기 위해 소승, 중승, 대승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킨 경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면 일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뜻을 얻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이지만, 마음에 뜻을 잃고 보면 팔만대장경도 모두다 마군의 설법이 됩니다. 팔만경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마음을 밝히면 이것이 일승인 겁니다. 내가 깨쳐야 합니다. 이전에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떠나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함허 스님은 "이 일은 한 말씀으로도 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많은 말씀으로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에는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중생이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뿐임을 알면, 일승뿐임을 알게 됩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질의

'불난 집' 벗어 나려면 '허망함' 도리 알아야

[질문1]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일불승' 사상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백운 스님] 함허 스님의 초견성 처럼 일상생활에서 구도에 대한 절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홀연히 정견을 보면 깨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절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익어져야 계기가 오는 것입니다. 깨침은 꼭 이런 경우에서만 있고,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대혜 종고 스님도 발심은 선후가 있지만, 깨침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익어야 깨치고 말로써 깨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2] <법화경>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화택(火宅)' 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생들의 눈에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삼계 우주를 왜 불난 집에 비유했는지, 그 과정과 이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혜조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백운 스님] 목전에 보이는 걸 보고, 불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4대 독자를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세상에 아무 것도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불 난 정도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무수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택'이란 말이 비유 중의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불난 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 일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그 허망을 알면, 거기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망을 알지 못하면, 가슴을 조이게 됩니다. 사실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더 발심을 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믿고 정진 하길

[질문1] <법화경>에서 바라보는 불신관(佛身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백운 스님] <법화경>의 '구원성불(久遠成佛)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어제 오늘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 즉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부처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겁 전에 우리 중생은 모두는 이미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번뇌 · 망상에 찌들어서 중생이 된 것이지, 우리는 본래 부처였습니다. 또 미래의 마지막 부처님 누지(樓至)불은 아침에 태어나 사시에 성불해, 유시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세상과 우주 안의 온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고 해질녘에 열반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사를 하건 대통령을 하건 농부를 하건 중노릇을 하건 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누지불 시대에 이르면 다 같이 성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끝은 성불이란 말입니다. 구원성불론에서는 원래부터 모두가 부처였다는 말이고, 누지불 시대에 오면 다 제도가 돼서 성불해 열반에 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성불론과 필경성불론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줍니다.



김호귀(동국대 선학과 강사)

[질문2] 앞서 스님께서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 10겁 동안 앉아 있었지만, 불법이 현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 속에 사니까 불법이 현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직 불법 속에 살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 도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백운 스님] 도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장자가 어느 날, 제자와 개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위 돌 징검다리였습니다. 건너가다가 보니 물고기가 맑은 물에 재밌게 헤엄치고 있어, 제자가 "선생님, 저 고기들이 아주 활발하게 헤엄쳐있는 걸 보니 행복해보입니다"라고 하니, 장자가 "네가 고기가 아니거늘, 어찌 고기의 마음을 안단 말인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는 것에 눈 뜨면 안 됩니다.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찾는 것 등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이라 여기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용케 만났습니다. 이 때 부지런히 경전을 독송하고, 틈틈이 또 앉아서 '내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를 참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금생에 이 몸뚱이로 성불을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 깨침이 올 수 있습니다. '나는 중생인데' '나는 늙었는데' '나는 여자인데' 등하고 낮춰서 자포자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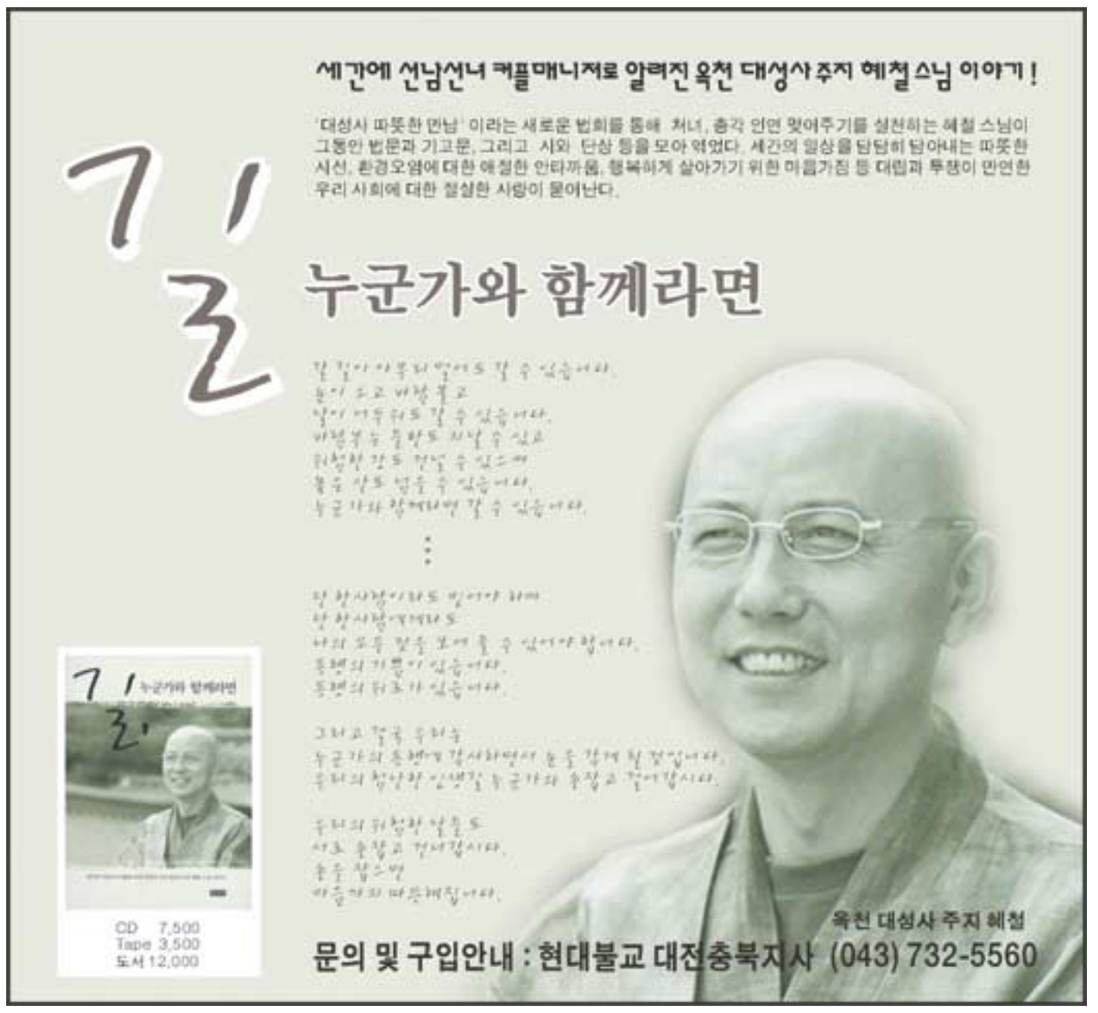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대한불교 선총림 오봉산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茶 사료 추가 기쁜 일 … 원문 공개 되길”

<동다기>로 추정되는 <기다(記茶)> 필사본 발견

최근 학계와 차계는 우리나라 고전 다서(茶書)인 <동다기(東茶記)>의 발견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초의 스님의 <동다송>에 인용되어 있는 <동다기>는 그간 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원저자와 실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발굴한 한양대 정민 교수(국어국문학과)는 ‘발굴한 자료가 <동다기>이며, 정약용이 아닌 이덕리의 저술이다’ 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동다기>로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문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어떤 자료가 발견됐고, 이를 <동다기>로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11월 2일 한양대 정민 교수가 공개한 <동다기> 추정 자료(왼쪽 사진). 제목에 ‘기다(記茶)’라고 적혀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오른쪽은 91년 용운 스님이 공개한 자료. <다기(茶記)>라는 제목과 ‘전의이(全義李)’라는 저자 이름이 보인다.

▷ 어떤 자료가 발견됐나?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 스님(1786~1866)은 자신이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제10송에서 “<동다기>에 ‘어떤 이는 우리나라 차의 효능을 의심해 중국차만 못하다’ 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빛깔이나 향, 그 맛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인용해, <동다기>가 <동다송> 보다 앞서는 다서로 지목되어 왔다.

정민 교수는 11월 2일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다산 정약용으로 알려졌던 <동다기>의 저자는 조선시대 무신이자 작가인 이덕리(李德履, 1728~?)”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전남 강진군 성전면 백운동 이효천씨 집안에서 발견한 <강심(江心)>이란 제목의 각종 시문 필사본 묶음집에 <기다(記茶)> 제목의 글이 실려 있으며, 이는 정약용의 강진 유배 시절 막내 제자인 이시헌(1803~1860)이 필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이시헌이 필사한 <기다>의 원저자는 이덕리이며, 1785년 전후 진도 유배 시절에 완성한 저술로, <동다송>에서 인용한 <동다기>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덕리는 본관이 전의(全義)이며 자는 수지(綏之)를 쓴 무관이다. 1763년(영조 39) 조선통신사 신분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창덕궁 수비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이덕리는 시가에도 뛰어나 윤광심(1751~1817)이 펴낸 시문집 <병세집(幷世集)>에도 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 사도세자 복권과 관련한 상소 사건에 연루돼 진도로 유배되어 18년 이상을 보냈다.

▷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강진도 유배시절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강심>은 가로 19.6㎝×세로 15.3㎝며 행서와 초서를 절반가량 섞은 세련된 서체로 쓴 필사본으로 모두 55장(110쪽) 분량이다. 이 중 <기다>는 10쪽 분량이며 서설(序說) · 본문(本文) · 다조(茶條)의 세 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설에서는 차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자원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차 산지가 호남과 영남 지방에 산재해 있으나 작설차를 약용에 쓸 뿐 마실 줄은 모르며, 1760년 차 파는 중국 배가 표류해 와 비로소 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후 10년간 그 차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차를 따는 시기는 동지에서 곡우 전, 곡우 후에서 망종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차는 잠을 적게 하므로 스님 등에게 필요하며, 대숲 사이에서 나는 차가 좋다고 했다. 특히 ‘황차(黃茶)’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당시 어떤 차를 황차라 불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다조에서는 차 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그 차를 중국에 수출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이를 국방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용운 스님은 “‘다조’는 앞의 서설, 본문과 달리 <동다기>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동다기’ 연구 진행 경과

<동다송>에 대한 초기 기록으로는 이능화(1869~1943)의 <조선불교통사>와 문일평(1888~1939)의 <호암전집>에 각각 ‘정약용이 귀양 시 <동다기>를 지었다’는 내용이 전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로써 그간 <동다기>의 저자는 정약용으로 알려져 왔다.

<동다기> 연구에 전기를 맞은 것은 1991년 용운 스님이 <동다기>로 추정되는 자료를 발굴해 차 잡지 <다담>에 공개한 뒤부터다. 용운 스님은 당시 법진 스님이 1891년 대흥사에서 필사한 <다경(茶經)합(合)>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전의리(全義李)’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를 <동다기>라 주장했다. 이 자료는 1992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담>에 그 내용이 공개됐다.

용운 스님은 “초의 스님이 <동다송>에서 인용한 <동다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고, <동다송> 역시 당시 <다송>이라는 이름으로 인용되기도 했던 만큼 <다기>가 곧 <동다기>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용운 스님의 발표를 토대로 차 연구가들은 <다기>의 저자가 ‘전의’를 본관으로 하는 이씨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정민 교수가 발굴한 <기다>의 저자가 전의 이씨인 이덕리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명배씨는 논문 ‘다산 정약용의 다도에 관한 연구’(한국다학회지, 1996년)에서 “근래 <다경(합)>에 수록된 ‘다기’를 다산의 <동다기>라고 발표한 잡지가 있으나 객관성이 없다”고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 역시 “아직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용운 스님이 발굴한 <다기>와 정민 교수가 발굴한 <기다> 모두 <동다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매우 적다”고 말한다. 박 소장은 “책 제목을 <동다기>로 기록한 구절이 없을 뿐 아니라 정민 교수의 경우 <기다>가 저술된 것이 1785년 전후라고 하는데, 이 역시 18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동다기>의 저술연대와는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는 “이덕리의 <기다>는 <동다기>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 사료가 부족한 우리 차계에 깊이 있는 다서 한 권이 추가됐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뜻 깊다”며 “원문이 공개되어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정민 교수 “이덕리가 저술한 것이 틀림없다”
차 산지 · 따는 시기 · 사업에 관한 내용 등 담아
박동춘 소장 “ ‘동다기’ 구절 없고 연대 차이나”
용운 스님 “‘다조’ 부분은 별도 기록물로 봐야”

보이차 전문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15. 정신의 음료

③ 음용(飮用)의 발달

인류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생수(生水)를 마셨으나 끊임없는 호기심과 더 나은 맛에 대한 갈망으로 물에 식물을 첨가해 마시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 문화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과 다양성을 가져왔다. 차의 음용 · 발달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파, 촉 지역은 차를 처음 음용했던 곳으로 차를 만드는 기술이 차의 생산지역인 양자강 하류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차가 생산되지 않았던 회수이북 등에서는 차를 마시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 특히 대운하의 개통은 남북의 물자 교류뿐만 아니라 생활풍속에

교통의 발달로 차 · 음다법 저변확대 큰 영향
제다기술 발전은 차를 문화적 요소로 상승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병차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있는 그림. 차도도(茶道圖, 하북선화요묘 벽화).

음다법(飮茶法)의 확대는 차의 약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교역품으로서 중요한 상거래의 발달을 가져 왔다. 한편 소수민족들은 서로 다른 음다 풍속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차를 만드는 방법에서 마시는 방법과 의상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찻잎을 가공하는 제다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고 그 제다법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변했다.

제다기술, 탐구, 음다 풍속의 기원과 발전은 지방의 풍토와 문화라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었다. 제다(製茶)기술은 바로 ‘차(茶)’라는 식물자원을 취하여 문화적인 바탕 속에서 사람들의 미감과 생각이 포함된 것이다. 이처럼 차는 중국문화 속에서 탄생하여 그들의 풍속과 역사 속에서 유행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차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으며, 죽이나 탕의 형태인 음식의 일종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즉 초기에 찻잎은 병차(餠茶, 떡처럼 둥글게 만든 것으로 덩어리 차의 형태)로 만들어 그것을 불에 구운 후 연(硏)에 갈아서 가루를 솥에 넣고 걸쭉하게 끓여 먹었다. 당대에 이르러 병차를 굽고 가루 내어 탕 속에 넣어 끓여 다완(茶椀)에 말발(차위에 뜨는 거품)과 차즙을 골고루 떠서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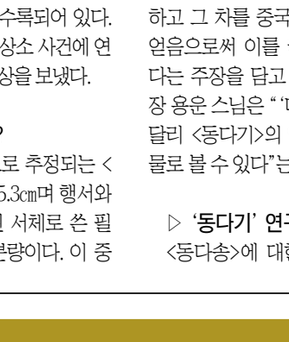
송대에는 솥에 찻가루를 넣고 끓이는 방법에서 가루를 다완에 넣고 탕수(끓인 물)를 부어 다선(茶筅)으로 잘 저어 거품을 내어 마시는 형태로 발전됐다. 지금의 가루차를 음용하는 방법은 바로 송대의 음용법이 이어져 온 것이다. 명대에 이르러 송대의 음다법이 소멸되고 산차(散茶) 위주의 음다법으로 전환된다. 이는 천연적인 맛을 즐기려는 음다법의 변용으로,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단차 제조를 폐지하는 조서가 내려지면서 단차의 점다법(點茶法)이 사라지고 포다법(泡茶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포다법은 찻잎을 직접 다관에 넣고 우려 마시는 형태로 오늘날의 음다법과 비슷하다.

차가 약용에서 식용을 거쳐 음용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행위는 문화적 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차를 만들어 마시는 행위는 인간의 인지와 정서가 풍속에 따라 발전되었으므로 충분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다법의 발달은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질 좋은 차를 만들며, 마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차는 본래 쓰고 떫어서 초기의 차가 달콤한 맛의 음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맛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하며 제다법을 발전시켰다. 처음 물에 찻잎을 넣어 입에 맞는 맛을 추구하기 시작해 여러 번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쓴맛과 떫은맛에 적응하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다. 차가 맛있는 음료라고 보는 것은 현대적인의 관점이며 맑고 감미로운 맛의 일상음료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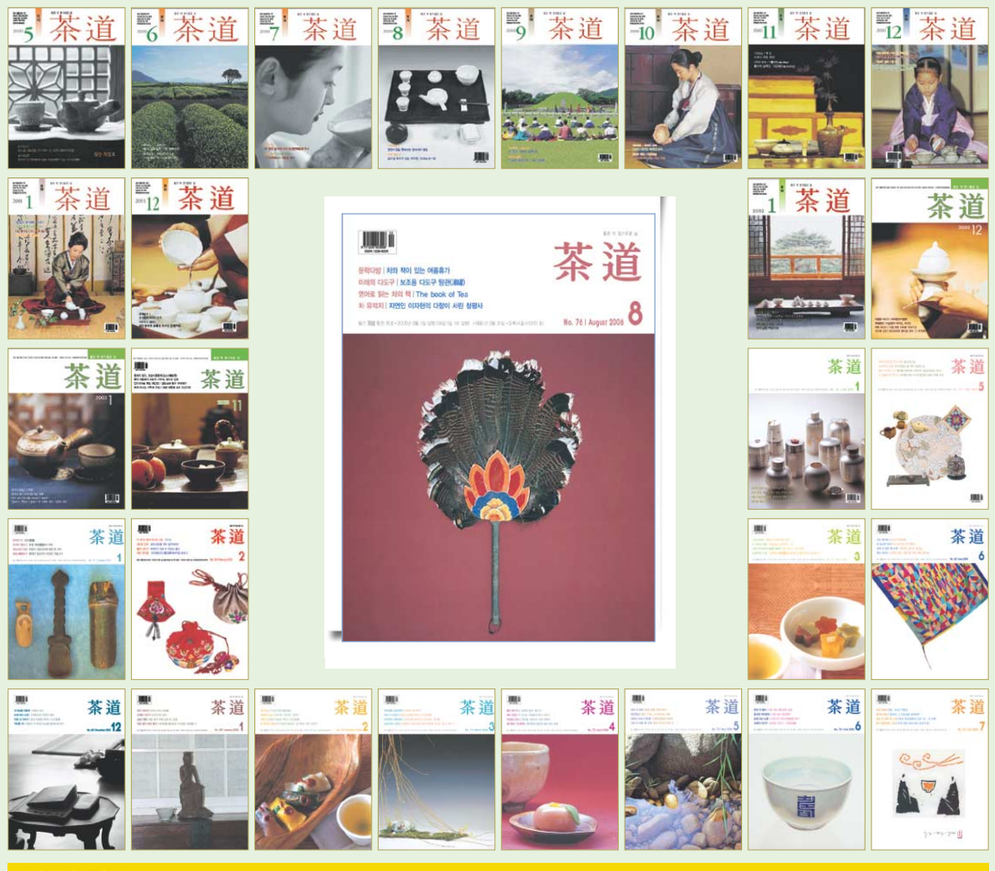
당신을 명의로 만들어 주는
보석 같은 침술서 즉효요법!
어느 스승도 속 시원히 가르쳐주지 못하는 비법을 이 한권의 책에서 찾으십시오.
특 징
1. 비슷하게 흉내만 내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즉효에 중점을 두었다.
2. 맥진을 기본으로 대다수 환자에게 적용 할 수 있고 부위별로 질병을 모아 놓았다.
3. 임상을 토대로 410가지 질병을 총 망라했으며 순수한 사암 침법을 고집했다.
4. 휴대가 용이하고 훼손방지를 위해서 화일로 제작했다.
5.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최대화 했다.

가 격 : 8만원 (행림서원, 현대한방사)
계 좌 : 국민은행 408801-01-108100
구입문의 : 02)747-9136

어르신을 모시는 사회
편안한 노후생활 - 천혜의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는 곳
거 북 마 을
실버노인요양시설
(경기도 파주 소재)

태봉산에 위치한 약수암이 운영하는 거북마을은
어르신을 내 집 내 부모처럼 편안히 모시며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마을입니다
[입소비용] 저렴한 비용, 안락한 시설. 최상의 서비스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4,000,000 (상담 후 결정)	568,000	치매,중풍 등 중증어르신 모심

[입소상담 및 문의] 안경주 부원장 010-4874-4732
“자비의 마음으로 어르신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거북마을 원장 신 선 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46-1
TEL 031)953-4805, FAX 031)953-4806
WWW.YOUNGTOP.OR.KR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암



좋은 책, 향기로운 삶
茶道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문의전화 | 02)722-7777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입동(立冬) 추위가 매섭게 지나고, 겨울채비를 해야 할 때가 됐다. 겨울채비라고 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김장이다. 우리네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김치지만, 요즘 김치가 겪는 시련도 만만치 않다. 입맛의 서구화와 외식문화 발달로 김치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파동으로 김치 전체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졌다. 하지만 김치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 더구나 올해는 무와 배추 가격도 예년에 비해 저렴해졌다고 하니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것은 어떨까? 건강에 좋은 사찰김치 담는 방법을 알아본다.

시원·담백한 맛 일품

사찰식 김장 담그세요



마늘과 젓갈 대신 찹쌀풀과 과일즙 등을 이용해 만드는 사찰김치는 한겨울 든든한 영양공급원이 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재료 고르기

배추 속잎 노랗고 고소한 맛 나야
국산 소금 손으로 비비면 잘 부서져

● **배추-** 배추는 겉잎이 무성하고 속잎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잎이 서로 잘 밀착되어 있고 흰 줄기 부분을 눌렀을 때 단단해야 한다. 또 같은 크기라도 들어보았을 때 속이 꽉 차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을 고른다. 반으로 갈랐을 때는 속이 연한 미색을 띠고, 속잎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맛있는 배추다.

● **무-** 무는 묵직하고 굴곡 없이 일정하고 매끈한 것이 맛있다. 무청이 싱싱하고 무에 흠이 많지 않은 것이 좋다. 또 수분이 많고 단단하며 비교적 매운맛이 강해야 시간이 지나도 김치가 잘 시지 않는다. 김장용 무나 깍두기, 석박지를 담글 때는 희고 단단하며 위아래 굵기가 비슷한 것을 고른다.

● **총각무-** 흙이 그대로 묻어 있고 무청이 싱싱한 것이 맛도 좋다. 총각무김치는 다른 김치에 비해 양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기가 너무 많은 총각무로 김치를 담그면 쉽게 물러진다. 무와 무청 사이 부분이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므로 꼭 확인한다.

● **마른 고추-** 마른 고추는 햇볕에 널어서 말린 태양초와 불을 때서 열기로 말린 화건초로 나뉜다. 태양초는 과피(果皮)가 두껍고 색이 선명하며 매운맛이 강하다. 화건초는 검붉은 색을 띠며 태양초보다 매운맛이 덜하고 껍질도 얇다.

● **굵은 소금-** 최근 중국산 소금이 많이 수입되어 좋은 소금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다. 중국산 소금보다 국내산 소금이 손으로 비볐을 때 잘 부서진다. 또한 색깔은 흰색을 띠며 물기가 없고 손으로 만졌을 때 보슬보슬한 감촉이 느껴질 정도로 입자가 거친 것이 좋다. 소금은 사용하기 전에 재빨리 물에 한 번 넣었다가 물기를 빼 사용하면 불순물이 제거되어 깨끗한 소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믿을 수 있는 재료, 여기서 사자

친환경 재료 인드라망생협서 판매
절임배추 10통 20kg에 3만원선

최근 주부들이 김장재료를 고를 때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은 재료의 '안전성'이다. 농약 등의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로 비싼 재료만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재료 구입이 고민이라면 사찰 생협으로 눈을 돌려보자.

11월 5일 봉은사에서 귀농장터를 열기도 한 인드라망생협(www.budcoop.com)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생산자는 연두농장으로, 경기도 시흥 지역 주부들이 직접 농사지은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것이다. 유기농 배추는 1포기에 2000원, 유기농 고춧가루를 1만3천~1만5천원 선에 구입할 수 있다. 무농약 절임배추는 20kg에 3만4천원으로, 약 배추 10통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배추 외에도 무(1kg 1천원)와 알타리 무(2kg 3천원), 찹쌀(1kg 5천원), 왕소금(3kg 2천8백원) 등의 부재료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02)576-188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박상혜씨에게 배우는 사찰김치 4選

사찰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젓갈 등의 양념들이 생략됩니다. 대신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등을 이용해 맛을 내므로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치 양념에 풀을 섞어주면 양념이 김치에 잘 버무려질 뿐만 아니라 풀의 녹말이 당화작용을 일으켜 김치 맛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열무김치나 깍두기, 총각김치 등 무김치에 풀을 넣으면 무의 단맛이 향상되고 매운맛이 줄어듭니다. 풀은 되직한 것보다는 묽은 것이 좋습니다. 보통 찹쌀가루나 밀가루 1큰술에 물 3컵 정도면 적당한 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마늘과 젓갈을 넣지 않은 사찰식 김치를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입맛이 사찰음식의 담백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은 탓입니다. 이럴 땐 몇 가지 재료만 응용해도 더 맛깔나는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젓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건새우·다시마·멸치 등을 넣어 만든 팩을 끓는 물에 담갔다가 젓갈 대신 사용하면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깍두기나 석박지, 총각김치, 무생채 등에 설탕을 넣으면 개운한 맛이 없고 국물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 놓았다가 해동시켜 즙을 내 넣어주면 단맛을 내되 강하지 않으며, 무를 연화시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김장김치가 아닌 즉석김치를 담글 때는 호박즙을 젓갈과 섞어 사용하면 김치가 숙성되면서 깊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호박즙을 팩 상태로 얼려 두었다가 김치 담글 때마다 사용하면 풍부한 김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찰요리 전문가

마늘·젓갈 대신 찹쌀풀·홍시·호박즙으로 깊은 맛

배추김치



배추 2포기, 굵은 소금 1컵, 꽃소금 1/2컵, 설탕 1큰술, 양념(무 1개, 미나리 1/3단, 다진 생강 2큰술, 고춧가루 1컵, 찹쌀풀 1/2컵)

1. 배추는 세로로 4등분해 굵은 소금에 담가 절인 후 물기를 뺀다.
2. 무는 깨끗이 씻은 후 채 썰어 꽃소금에 절였다가 씻은 뒤 물기를 빼준다.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잘라둔다.
3.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 후 꽃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4. 절인 배추의 잎사귀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고 겉잎으로 싼 후 용기에 담는다.



갓김치



갓 2단, 양파 1개, 굵은 소금 1/2컵, 양념(고춧가루 1컵, 통깨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찹쌀풀 1/2컵)

1. 갓은 머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굵은 소금에 30분 정도 절여준 후 물기를 짜 놓는다.
2. 양파는 갈아서 즙을 낸다.
3. 고춧가루와 통깨, 다진 생각, 찹쌀풀, 양파즙을 골고루 섞어 김치 양념을 만든다.
3. 절여놓은 갓에 양념이 잘 배도록 골고루 버무려 완성한다.



백김치



배추 2포기, 무 1/2개, 깐 밤 5개, 배 1/2개, 대추 5개, 표고버섯 2개, 미나리 1/4단, 잣 2큰술, 소금(절임용 2컵, 소 버무림용 1/2컵), 생강즙 2큰술, 김칫국물(채수 4컵, 배즙 1개분, 찹쌀풀 1/2컵)

1. 배추는 4등분해 소금물에 절인 후 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2. 무는 채 썰고 미나리는 5cm 길이로 자른다. 표고버섯과 대추, 밤, 배는 가늘게 채 썰어 물에 담갔다 꺼낸다.
3. 분량의 재료로 김칫국물을 만들고 나머지 재료로 소를 만들어 절인 배추에 붓는다.



동치미



무 10개, 배 2개, 갓 1/2단, 홍고추 5개, 삭힌 청고추 10개, 소금물(물 30컵, 굵은 소금 2컵), 굵은 소금 2컵

1. 무는 깨끗이 씻어 소금물에 담가 하룻밤 숙성시킨다.
2. 배는 깨끗이 씻어 4등분해 가른다.
3. 갓은 푸르고 어린잎을 골라 소금에 절였다가 한 줄기씩 돌돌 싸놓는다.
4. 소금물을 고운체에 밭쳐 깨끗한 국물을 만든다.
5. 용기에 무와 실파, 배, 홍고추, 삭힌 청고추, 갓 등을 켜켜이 놓고 돌로 눌러놓은 다음 소금물을 붓는다.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실습위주!!!

사암침술 강좌
▶ 과 정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과 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 강
* 부산 : 2006. 12. 3 (매주 일요일)
* 서울 : 2006. 12. 4 (월 · 화 · 반)

책임지도!!! 저자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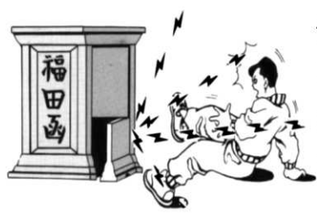
맥진 전문가 과정
① 경락진단법
② 황제내경 맥진법
* 음양 맥진법 * 3부 맥진법
* 복진과 배진법 * 암진단 방법
③ 장부허실증 판단 ④ 맥 조절법

명리 전문가 과정
매화 역수 전문가 과정

자연의학센타 051)862-7579, 011-865-5093
부산진구 양정2동 지하철1호선 양정역 8번 출구 인제B/D 501호
사암침술학회 02)747-9136, 011-307-2975
서울특별시 종로3가 국민은행 4층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5분이면 나도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중에서 작명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엄선하였습니다.
● 320여 가지의 성을 한자의 획수별로 분류하여 2획으로된 성부터 22획 성까지, 상생의 원리와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까지 조화를 이루어 성씨별로 2000개에서 3000여개의 이름들을 엄선하여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 이름, 법명, 법호, 상호, 기타 작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작명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작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이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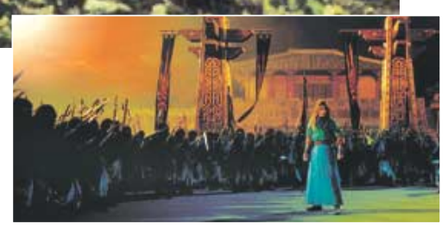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이름을 원하십니까? 작명, 개명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이름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재물을 풍요롭게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작명하는 것은 작명가의 능력입니다.

역학 개인지도
◆ 모집인원 : 3명(선착순) ◆ 자 격 : 남 · 여, 학력, 나이 제한없음
◆ 기 간 : 2006년 12월 1일 부터 3개월(주당 8시간)
◆ 사 주 및 작명의 대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정가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중간 단계' 에선…



영화 '중천'. 천인 '소화'와 퇴마무사 '이곽'이 원귀를 피해 숨어있다(위). 원귀들과 일전을 벌이는 '이곽'(아래).

환생 준비하는 공간 '중천'서 벌어지는 대결 다뤄

영화와 미술 그리고 의상이 만났다. 영화 '중천'이 개봉에 앞서 남산 N서울타워 파빌리온에서 열리고 있는 테마 전시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중천 테마 전시:art in the restless'는 '영화를 전시한다'는 컨셉으로 준비됐다.

이번 전시에서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의 정상급 작가인 양만기 교수(덕성여대), 이용백 작가가 '중천'을 테마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양만기 교수의 비디오 아트는 영혼세계를 다룬 영화 주제에 맞춰 관람객들의 손금 운명을 읽어주고 있어 독특함을 자랑한다. '중천'에 참가한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 에미 와다의 영화 의상과 일본 뮤지션 사기스 시로의 음악도 공개돼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영화 '중천'의 기본 컨셉 정해

영화 '중천' 의상 · 비디오아트
12월 27일까지 테마 전시회
에미 와다의 불교 의상 눈길

개막날인 10월 16일 내한한 에미 와다 의상감독은 불교적인 이미지를 차용한 의상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했다.

에미 와다 감독은 <필름 2.0>과의 인터뷰에서 "'중천'이라는 공간 개념에 대해 맨 처음 들었을 때 불교적 이미지들이 떠올랐고 불상 사찰의 누각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중천'은 49일간 기억을 지우고 환생을 준비하는 죽은 영혼들의 공간을 말한다. '사람은 죽어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 영화 '중천'. 제작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인들에게 익숙한 '49재'에 주목했다. 칠칠재라고도 불리는 불교의 의식에서 착안해 영혼들이 7일씩 7단계의 공간을 거쳐 이승의 기억을 정리하고 환생을 준비하는 판타지 공간 '중천'의 기본 컨셉을 정했다.

'중천'은 영혼들이 이승에서 지은 죄의 냄새를 씻기 위해 7일간 몸을 담그는 '탄취탕', 가장 잘못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야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참선의 마을'과 도화잎을 태우는 거대한 향로가 있어 영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도화 향기를 중천 전역에 퍼뜨리는 '참선관', 이승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이 천인들 몰래 이승의 시장과 똑같이 형형색색의 등불로 화려하게 만들어놓은 '이승의 거리' 등 현실 세계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참신한 상상력의 공간들을 만들어 냈다.

'중천'에는 중천을 지키는 천인 '소화'역의 김태희, '소화'의 생전 연인 퇴마무사 '이곽'역의 정우성, 중천을 장악하고자 반란을 일으킨 원귀들의 대장이자 생전 '이곽'을 키워낸 처용대의 수장 '반추'역의 허준호 등이 출연한다.

원귀들의 반란 속에 중천은 위기에 처하고, 중천을 구할 수 있는 영체 목걸이를 지닌 소화는 그들의 표적이 된다. 반란을 일으킨 원귀들이 이승에서 형제같이 지냈던 퇴마무사 동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곽은 사랑하는 소화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막강한 원귀가 되어버린 이승의 퇴마무사 동료들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영화 '중천'에 대한 궁금증을 테마 전시 '중천'을 통해 해소해보자.

중천 홈페이지(www.joongchun.com)에 공개된 티저 동영상 예고편에서 중천의 판타지를 잠시나마 즐길 수 있다.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새단장 마치고 활력 충전

불교방송 가을 개편 … 새 진행자들 '주목'


최정희


조순용


전현아


이희구 · 염경환

불교방송이 가을 새단장을 마치고 11월 6일부터 새 모습으로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은 'BBS 정보매거진' '염경환 이희구의 활력충전 2시 4시' 'BBS 초대석' 'BBS 기획토론' '뉴스 파노라마-주간 포커스' '책 읽어주는 라디오' 등이다.

'BBS 정보매거진'(월~금 8:30)은 한방의학 · 법률 · 재테크 상담 등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실적인 도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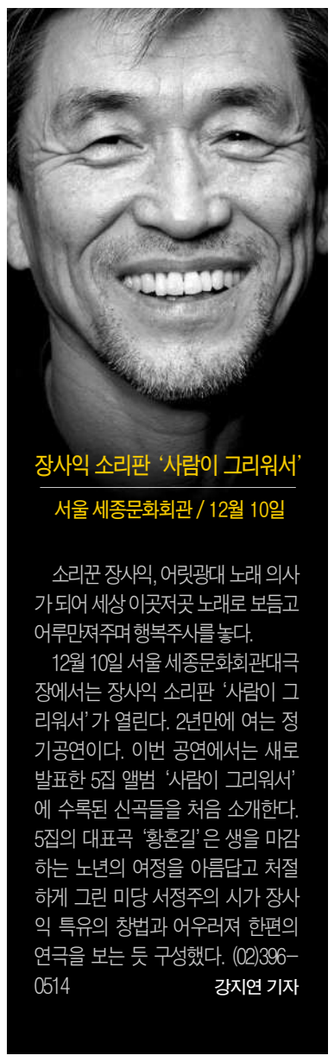
'염경환 이희구의 활력충전 2시 4시'는 매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활기차게 전달한다.

매주 토~일 저녁 9시에는 연극배우 전현아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진행한다. 주중 저녁 9시는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BBS 초대석'을 이끈다.

'BBS 기획토론'(토 17:05) '뉴스 파노라마-주간포커스'(토 18:00)는 불교계 소식과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문제들을 전한다.

'아침저널'은 조순용씨가 진행을 맡았다. 조순용씨는 지상파DMB U1미디어 사장. KBS 기자 출신으로 '뉴스 파노라마' '사건 25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조순용씨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으로 또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돼 부담이 되지만, 평생을 방송기자로 살아왔다는 전문성이 용기를 줘 마이크를 다시 잡게 됐다"고 밝혔다.



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그리워서'

서울 세종문화회관 / 12월 10일

소리꾼 장사익, 어릿광대 노래 의사가 되어 세상 이곳저곳 노래로 보듬고 어루만져주며 행복주사를 놓다.

12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는 장사익 소리판 '사람이 그리워서'가 열린다. 2년만에 여는 정기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로 발표한 5집 앨범 '사람이 그리워서'에 수록된 신곡들을 처음 소개한다. 5집의 대표곡 '황혼길'은 생을 마감하는 노년의 여정을 아름답고 처절하게 그린 미당 서정주의 시가 장사익 특유의 창법과 어우러져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 구성했다. (02)396-0514 강지연 기자

'거룩한 만남' 800회 방송에 권양숙 여사 출연 눈길


권양숙 여사(사진)

11월 6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거룩한 만남' 800회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사진)는 "'거룩한 만남'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공생의 참뜻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이상벽씨와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언 스님이 사회를 맡은 이날 공개방송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강지연 기자

불교TV 눈길 끄는 다큐 두편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불교TV가 야심차게 내놓은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무문관(無門關)'이 첫 전파를 탄다.

중국 송대의 선승 무문혜개 선사의 화두집 <무문관>에서 따온 무문관 수행은 1956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6년 수행으로 처음 시작됐다.

'무문관'에서는 우리나라 무문관 수행의 역사를 소개하고, 무문관 수행을 해본 중진 스님들의 증언을 통해 무문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

천축사에서부터 3년 결사도량 갑사 대자암, 20년 이상 중진 수좌들의 수행처 백담사 무금선원, 3년 결사중인 제주 남국선원,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하고 있는 강진 백련사 백련선원, 감포 관음사 무문관까지 전국의 무문관을 전부 순례해 영상으로 담았다.

스스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을 고립과 고통 속에서 수행하는 이유를 듣고 깨달음으로 충만한 희열의 세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4일 오후 2시 30분 첫 전파를 탄 '우주를 품에 안다, 탄허'도 불교TV가 심혈을 기울인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다.

17일 저녁 11시 30분, 19일 오후 5시 30분에도 방송될 '탄허'는 한암대선사의 제자이며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이었던 탄허 대종사의 일생과 업적, 스님이 설파한 사상을 영상언어로 담는다.

한암 선사가 제자가 아닌 도반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학문의 경지가 높았던 탄허 스님. 스님이 번역한 불경은 <화엄경> <육조법보단경> <보조법어> <영가집> <대혜어록 서장> <고봉선요> <주역선해> <초발심자경문> 사서, 사집 등 만년필로 정서한 육필 원고지 20만 매 분량이다.

다큐멘터리 '탄허'는 탄허 스님이 정리한 불교 사상을 소개하고 동양사상을 불교적으로 조명했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강지연 기자


무문관의 한 장면.

'무문관'
수행 경험 스님들 통해 의미 살펴

'우주를 품에 안다, 탄허'
생애와 사상, 업적 영상으로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전화 02)737-0695/02)2004-8219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걱정없이 활달하고 자유스럽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또 하나는 자기 조상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던 조상,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 근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본은 첫째, 불성을 말하지만, 영혼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던 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천도를 시키면 활짝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죠. 스님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천지를 다 간파하고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다 간파해서, 정말 콧구멍 없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또 콧구멍 있는 소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작용의 에너지가 광력을 이루듯이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모두 이렇게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도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산 사람 영혼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천도를 하면 좀더 마음이 완화되고 자기가 지금 모든 걸 맡기고 돌아가니까 조상들의 마음도 한마음으로 맡기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그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영가들도 마음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가 없이 탁 거기에 안치가 되니까 전부 알겠거든요. 아니까 그때서야 편안한 감을 가지고, 거기서 굴려 나가서 천도가 돼도 거기서 미리 알고 나갔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말 '무(無)'와 '유(有)'의 세상을 잘 알고 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염불할 때도 영가들은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압니다,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왜냐? 스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사다가 차려 놨다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것만 알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천도를 시키는 스님이, 이 우주 전체를 섭렵하고 타파할 줄 아는 그런 스님이 탁 열고 할 때는 전부 이 세상의 모둠이 떡을 하나로 먹고선 천도가 되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든가, 마음으로서 수천수만을 거느리고서 회사를 경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는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상대성 원리의 작용이라는 것이 인연줄에 따라서 나쁘게 악으로 가느냐, 인연줄에 따라서 선으로 가느냐,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도시키는 스님네들도 이 도리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이 도리를 알고 해야만 삼천대천세계에 이르기까지 공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천도를 하신다면 세상에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햇빛을 쬘 수 있고, 너무나 자기를 밝게 볼 수 있고 밝게 뛸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공덕입니까?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저도 아직 그 도리를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전생에서 지금 온 것이라고 볼 때 저도 두 집 살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모르면서 제 조상을, 지금 내 먼저 자손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르니 하루속히 이 도리를 알아야지….

▲큰스님: 생각을 말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좁다랗게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를 좀더 넓게 놓고 가져야죠.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없어요. 업도 붙을 자리가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액난도 붙을 자리가 없고 세균도 붙을 자리가 없고, 유전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 내 마음은 체가 없이 둥글고 쉴 사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큰스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걸 맡겨 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경계마다 모든 걸 주인공한테 맡겨 가면서 맡긴다는 사이 없이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의정이 나는 것은 그 동안 건건이 나타나는 경계를 주인공에 맡겨 가면서 그것이 또 관(觀)한다는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 생활 속에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니까 저의 힘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속에 큰 응어리가 져서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낱낱이 오는 그런 경계인 줄은 압니다마는,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그 낱낱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다가 보면, 몰아서 닥치는 것도 댁이 공부하는 데에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작은 거나 큰 거나 엄청 많은 거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댁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타나든, 용도에 따라서 그냥 쫙 오든, 하나가 오든 쬐그만 게 오든 그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어이구,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이러는구나. 팥죽 속에서 팥죽이 끓어서 팥죽 방울이 온갖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자3(남): 하나죠?

▲큰스님: 네, 하나죠. 그러니까 다 끓었으면 불만 끄면 금방 아닙니까? 허허허…. 그런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까? 짐승 몸을 가졌을 때는 모두가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습이 있겠지만, 인간으로 돼 가지고는 정신을 뺏기느냐 뺏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신을요. 지금은 정신을 뺏어 먹는 시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아야 안 뺏기고, 알아야 모두 굴리죠.

엊그저께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찻길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습디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양면이 다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생각 없고, 가서 죽는 것도 생각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가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서 오는 것도 생각해야 이것이 핀트가 맞아지죠. 그래서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니다, 정신계와 육신이 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이 둘이 아니다. 넓게 본다면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아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 아닌 나'와 지금 '현상의 나'가 바로 같이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법을 굴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들이고 낼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 못한다면…, 그래서 '나 아닌 나'는 부(父)라고 하고 지금 현상의 '나'는 자(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작용을 하고 이끌어 간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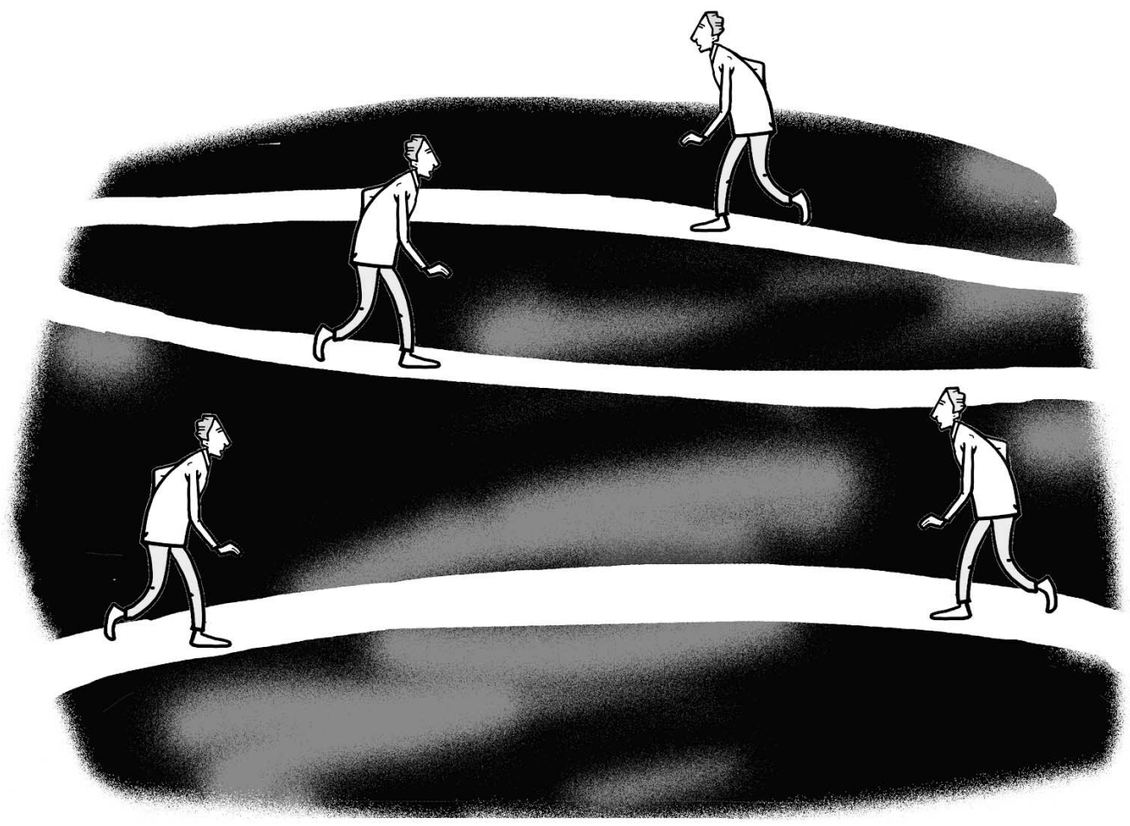
몇 달 됐지마는 L.A.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있는 박사나 그 외에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받으려고 논문을 쓰고 있는 생물학자니 철학자니 과학자니 뭐,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해 주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아래 위가 딱 맞게 그냥 그 논문이 잘 써지더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이다, 저녁과 아침이, 24시간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났다 이러더라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맞붙어 버린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삼천 년 전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화(化)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찰나찰나 나오는 대로 작용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을 하러 나갔습니다. 탁발을 하면서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가 생전 그러지 않더니 아주 슬픈 내색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프게 말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여직껏 은사 스님을 모셔왔어도 우시는 일이 없고 슬퍼하시는 일이 없었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여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이따가 얘기하마." 그러고 가시거든요.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서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릴 듣고선 아니, 화창하게 웃으시더라 이겁니다. 아주 화창하게 웃으시니까 "아니, 또 웃으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생전 울고 웃는 것을 못 봤는데 아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래, 가서 얘기하마." 그러면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 아까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여쭤 봤습니다. 여쭤 보니까 글쎄, 성문 바깥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말라 빼들어진 귀신이, 즉 말하자면 아귀가 앉아서 있다가 그 스님을 보더니 달려들어선 매달리며 살려 달라고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은 체가 없이 둥글고
쉴 사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에
과거도 없고 업도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보는 게 없이 보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그냥 애원을 하거든요. 애원을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아, 성 안으로 밥 얻으러 간 어머니가 오백 년이 되도록 안 나온다는 겁니다. 허허허…. (대중 웃음)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내 어떤 땐 웃음이 나옵니다. "스님께선 꼭 그럭하실 수 있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걸랑은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성 바깥에서 이렇게 빼들어져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으니 그렇게 일러 달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오백 년이 되도록 밥 한 술 얻질 못해서 빼들어져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어 나가지 못했노라고 일러 달라."고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래서 그 스님께서 탁발한 밥을 좀 나눠 줘서 먹이고 나니까 아, 싱싱해져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만 상봉을 했죠. "아들과 어머니가 천지가 상봉을 하듯이 상봉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단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아까 왜 우셨습니까?" 하니까 "하도 애원을 하는데 불쌍해서 그랬느니라." 이러고, "웃음은 왜 웃으셨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글쎄 이것 좀 들어 봐라. 내가 전자에 입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 내 자식놈이 발목을 쥐고선 그냥 못 가게 해 가지고, 나 죽이고 떠나라고 하도 그렇기에 그냥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서 사대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입산을 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아, 가다 보니까 그 참새가 바로 과거의 내 아들 녀석이 아니더냐?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웃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모두가 비유해서 말해 놓은 것이지만,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반을 못 보니까, 못 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반 얘기만 한 거죠. 그래 몸은 성 밖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했다니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하고 웃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신다면 마음으로 빛보다 더 빠르게 달나라에 가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들을 수 있고, 또는 시시각각으로 화해서 나투기도 할 수 있고, 진드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면 한마음이 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발이다! 지렁이가 발이 없지만 지렁이 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서 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았다 한다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만 옳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귀신이 됩니다. 허허허…. (대중 웃음) 그리고 또, 모자라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하다못해 맷돌을 하나 돌리려 해도 심봉을 꽂아야만 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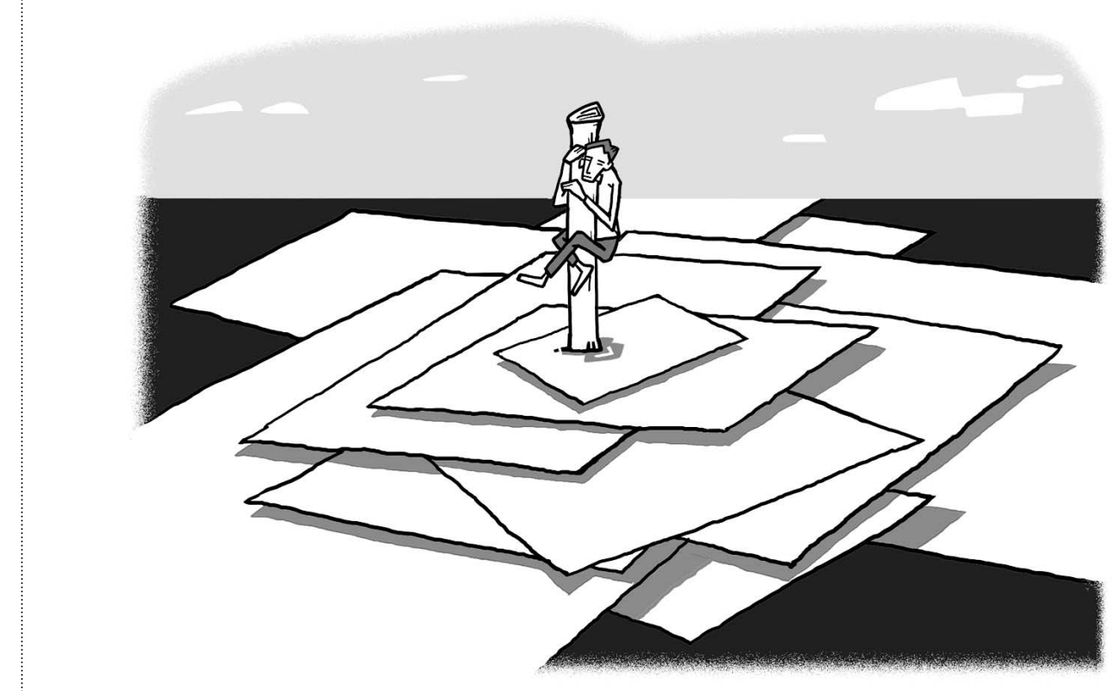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함이 없이 여러분의 그 괴로움을 덜어 주고 같이 해 주고, 아픔도 내 아픔과 같이 해 주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 공부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학술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해 봐도 공덕이 안됩니다. 과학도 지금 물질과학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되고 정신의학이 돼야 하고, 정신과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맷돌을 하나 돌리려고 해도 심봉을 꽂아야 맷돌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맷돌에 넣고 가는 것도 심봉을 꽂아야만 갈립니다. 그런데 심봉도 안 꽂고선 "갈려 나와라, 갈려 나와라." 하고 바깥으로 쳐들고 빌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게 어떻게 공덕이 돼서 갈려 나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모두가 실상의 그 실천을 그대로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또 팔수레공법으로…, 허허허, 모두가 이렇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죠. 그러면 다 살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게 있어야 살아 나오는 게 있고, 또 죽는 게 있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의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온통 그 끈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엊그저께도 내가 그랬지만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빼지 못해서 애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미줄이 뭡니까? 그것도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 잘못 가면 뭐가 잘못된다고 해서 날짜를 생각을 안 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질 않은가.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궁합이 따로 있습니까? 만날 그렇게 요만한 거 하나서부터 큰 거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간 데 없이 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먹는 것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탁 터진다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저 남의 거칠은 것만 보지 마세요. 나 가기도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거칠은 걸 보면 거칠은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보는 게 없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듣는 게 없이 듣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듣는 거지. 잘못된 것도 내가 있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시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로 뭉쳐야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죠. 모두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우리가 지금 속은 비고 겉만 꽉 차 가지고, 지금 정치도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거기 있고, 속이 텅텅 빈 나라가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칭찬할 만합니다. 본받을 만하고요. 남의 거 거저먹지 않겠다는 사상 말입니다. 그전에 어려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물건을 접시에다 담아 가면, 그 접시를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는 밥을 먹어도, 물론 불교의 발우공양에서 배워 간 공기밥이지만 그것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이 적고요. 악랄하게 했다 할지라도 악랄하게 하면 했지 탓은 안 한다 이겁니다. 허허허…. (대중 웃음)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어벙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돌아가지 말고 칼이 있으면 칼로 탁 잘라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세에 그 수박씨가 다시 나와도, 수박으로 다시 나와도 여전히 그 맛은 알 겁니다. 지금 한 생에 알아 놓으면 세세생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 놔야 요다음의 생에서도 또 뚜껑만 열면 그냥 모두 술술 나오죠. 그래야 세계가 평등해지고 모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모두 공부들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평등해지려고 합디다. 허허허….

▲사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여러분 정신을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길 바랍니다.

(법회의식을 모두 마친 후) 모두 한마음의 성불을 위해서…, (합장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대중: 일동 고맙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1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만성두통 견항통 오십견 요실금
구완와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풍치 무릎관절통 손 발목관절통 만성체증
비결 침술로 1회~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 수 있다

비 법 강 좌

◆ 일 시 : 11월 25일 오후 5시부터
~ 11월 26일 (숙식가능)
◆ 보시금 : 일백만원 (선입금 미리예약)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오시는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 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552-2159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오체투지 (중)

최현숙(서울 서초구 양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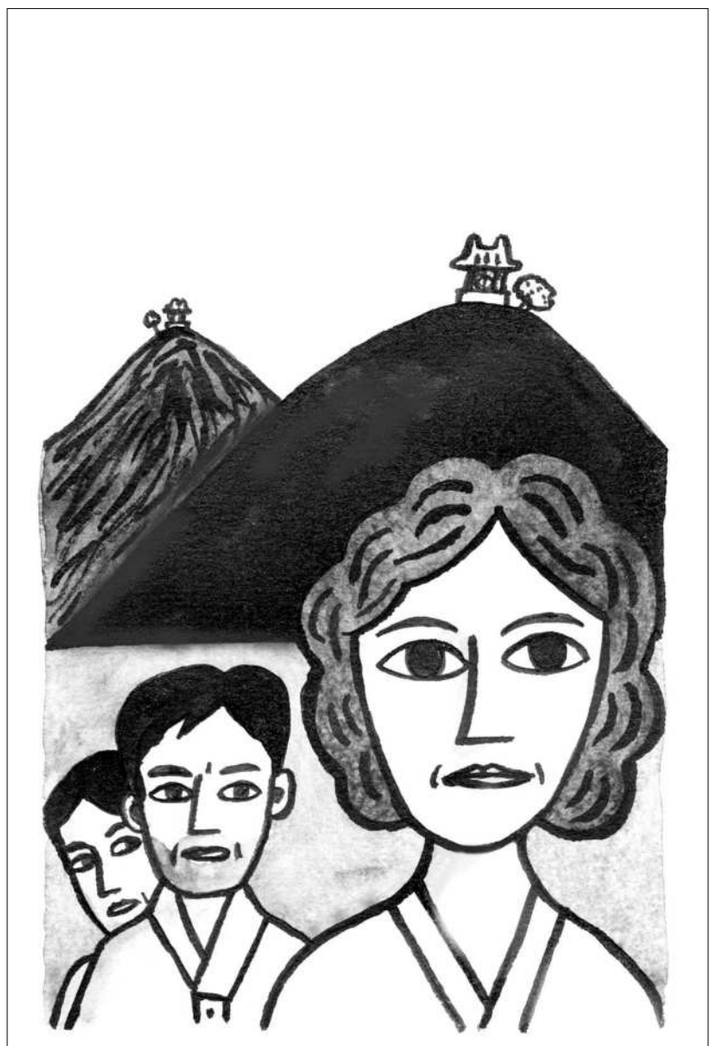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오체투지 십만배 수행은 올 여름 내내 진행되었다. 1000배를 하는데 대략 3시간이라고 계산한다면 그간 나는 무려 300시간을 절을 하며 보내는 것이다.

난 그 시간을 '내부수리'라고 부른다. 내부수리기간 300시간. 그 동안 눈, 귀, 코, 혀, 촉감과 의식의 육근에 집중하여 그 기관에 닿는 여섯 가지 대상의 12경계를 싫다거나 좋다는 편견 없이 받아들여 내면의 깊은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내 육체와 마음의 주인공을 뒤에서 조정해가는 '보이지 않는 뒷자리의 운전자(Back Seat Driver)'가 누구인지를 주목하기로 했다. 내가 수행을 안 하면 뒷자리 운전석에 전생의 업이 들어앉아 업력(業力)대로 살다죽는 삶을 살아갈 테고, 수행을 잘해서 신구의 삼업을 스스로 조절해 간다면 원력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마음으로 되뇌었다.

매일 1000배씩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1만배를 채울 때마다 마음에 둔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감사히 회향했다.

마음에 둔 절은 16년 전 지장기도를 시작할 때 다닌 철원 심원사인데, 그 때의 절박했던 심정을 기억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화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만배 오체투지를 마치는 날까지 다니겠다고 서원했다. 16년 전,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발원대로 심원사 안의 천불전에 한분을 모시게 돼 내게는 더 의미있는 사찰이다.

조용한 빈 밤에 홀로 좌복을 깔고 절을 하면 한편의 필름처럼 지난날이 휘리릭 뇌리를 스쳐간다. 지난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던 것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 아니, 부처님을 만나자 지난 과거생의 악업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불심도 약하고 지혜도 없던 나는 과거업의 급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맥을 못 추며 허우적거렸다. 심원사를 찾아 지장보살 기도를 시작한 것도 그 때였다.

1990년 여름이었다. 작은딸이 4살 때였다. 당시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사업하겠다고 고향인 목포로 혼자 내려갔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다 쓰고도 사업이 일어서지 않자, 남편은 아내인 내게 상의도 없이 친정어머니와 형제들의 돈을 빌려다 썼다.

나는 남편 대신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낮에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살림을 꾸려가며 육아를 담당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한다지만 남편조차도 낯선 목포에는 내가 일자리를 찾을 기반이 없었기에 무작정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갈 순 없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이혼 결정

악몽같은 나날…닥치는대로 일하며 기도

"힘들지만 잘 키우리라" 아이들과 약속

2년을 그렇게 지내는 사이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왔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 3년을 억지로 사업을 이끌면서 한때는 동업자였던 사람들과도 채무를 지게 되자 그 사람들로부터 몰래 회사 관계 서류를 빼돌려 내연녀와 둘이서 이리저리 숨어 다녔다.

결국 남편은 내연녀의 집에서 발각 되었다. 그렇게 사업이 파탄나자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대신에 아내인 나를 원망하고는 아이들까지도 버린채 그 여자를 택했다.

그 와중에 나와 친정동생은 회사채무보증인으로부터 빠져야하는데도 남편은 그 일에마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악운은 계속됐다. 나중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회사가 재부도나자 회사채무보증인에서 빠지지 않았던 나는 그 빚마저도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악운까지 겹쳤다.

한 때는 내연녀를 찾아가 인간적으로 하소연하면 돌아설까 하는 마음에 목포까지 찾아간 적도 있지만 타인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편 역시 똑같이 무모해서 설득이 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악몽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두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비록 혼자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길 뿐이었다.

내가 흔들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마음먹고 가정방문교사, 번역, 가게운영, 유치원 교사 등의 일을 닥치는 대로 맡아서 집안을 꾸려나갔다.

너무나 힘든 날이면 "두 딸이 커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킬 능력을 제게 주세요"라고 간절히 희망하며 멀리 철원의 심원사까지 기도를 다녔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불행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몸도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셨다. 어머니 장례식 때에는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49재를 지내고 난 후에는 내면에서 남편과 나,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그 즈음에 목포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이 날 찾아왔다. 스님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기 마련인지 그 스님의 절로 놀러갔던 나의 재적사찰 스님이 그곳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 스님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알려줘서 찾아왔다 했다. 꼭 한번 와서 남편을 만나보라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그 절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여자까지 만나게 되었다.

'뭐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냐?'며 따지는 남편과 여자에게 "나야 말로 묻고 싶은 질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 여자는 당돌했다. "차라리 감옥에라도 집어넣으려면 넣어라"식의 말을 쏘아댔다.

"아이들에 대해선 아버지로서 부양의 책임이 있으니 형편 되는대로 양육비는 보내달라"는 내 의견에 그 여자는 오히려 "아버지가 능력 없으면 엄마가 맡아 자식을 길러야지"하며 기세가 등등했다.

턱수염까지 도인처럼 기른 남편은 입만 꼭 다물고는 부동자세더니, 그날 밤에 자신들의 거처로 날 끌고 가서 양육비에 대한 담판을 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절의 스님은 날 그대로 내 보내면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이 보살님은 내 손님으로 왔으니 두 사람은 그만 가시오"라며 그 둘을 보냈다.

그 일을 끝으로 서울로 올라온 바로 나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작정하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놓았더니 증오심도 적어졌다. 어린 아이들에겐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가 대신 너희들을 사회인이 될 때까지 학교도 보내고 맡아서 보살필 거야. 생활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힘들다고 너희들을 포기하진 않을거야"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난 16년간 지켜왔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제 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 · 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 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중급반 :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 055)745-8419

사단법인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합장
강 사 원 명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양산천의 최상류지역인 통도골.

‘무풍한송’의 뒤틀림 승천하는 ‘龍’ 형상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9) 영축산 통도사


극락암과 비로암을 잇는 서어나무 숲길.

양산천에 수달 · 은어 서식 아직 생태기대치 높아
경내 지열냉난방공사 한창, 친환경적이나 고비용
‘천창수’ 글귀, 소금단지 등은 화재 막겠다는 의미
관음전 뒤 ‘금와보살’ 유명…절 주변 재선충 비상

낙동정맥은 우리나라 13정맥의 하나로, 백두대간 태백의 구봉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백병산-백암산-주왕산-가지산-금정산-몰운대로 내려와 남해로 침잠하는 산줄기이다. 해발 1,050m인 영취산은 그 가운데 가지산과 금정산 구간에 위치해 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 왕사성의 동쪽에 있던 그라드라산의 한자 지명을 빌어서 영취산(靈鷲山), 취서산(鷲棲山), 영축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 양산시에서 여러 지명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하여 ‘영축산’으로 통일했다.

통도사는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에 의해서 창건되었다. 자장율사가 창건한 적멸보궁들은 모두가 경주에서 먼 변경이거나 오지이다.

그런데, 경주와 인접한 양산에 적멸보궁을 세운 것은, 잦은 왜구의 침략을 막고, 신라 왕실에 버금가는 반신라적 집단을 제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통도사 첫 걸음은 35번 국도변에 있는 국장생(國長生)이다. 고려 선종 때(1085년) 사역(寺域) 표지와 비보(裨補)를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이 유물의 이면에는 천재와 인재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당시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

현재 장생표는 1천년 동안이나 지상에 노출되어 산성비와 도로의 먼지 등으로 훼손된 상태이므로 보호각이 시급하다.

통도사 통도골 들머리는 물길과 숲길이 함께해서 느낌이 좋다. 통도골은 산내암자들이 많다고 일찍이 절골이라고 불려져왔다. 절골 일대는 양산천의 최상류지역이다. 양산 신도시를 비롯해 골프장과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으로 해서 양산천 환경이 많이 나빠졌지만, 몇 곳에 수달이 서식하고, 통도골 아래까지 은어가 올라올 정도로 생태기대치가 아직은 높다.

통도사 생태탐방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매표소-통도사, 통도사-서운암, 통도사-백운암까지 세 구간이다.

통도사 들머리길은 차도와 인도로 나누어져 있다. 인도는 집단시설이 있는 사하촌과 거리를 두고 있어서 번잡스럽지 않아 걷기에 좋다. 다만 포장도로라는 점이 좀 아쉽다. 차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스콘을 걷어내고 흙길로 복원하는 것이 좋다.

통도사는 들머리 소나무 숲길이 그윽해서 좋다. 계곡을 따라 늘어선 ‘무풍한송(無風寒松)’은 위로 올라갈 수록 줄기가 붉은 전형적인 적송이다. 이를 두고 옛 사람들은 적룡(赤龍)이라고 불렀다. 송피(松皮)를 일명 적룡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또한, 꿈틀거리지 않는 것은 용이 아니다. 무풍한송은 하나같이 용틀임하는 자세이다.

경내로 들어서니 지열냉난방공사가 한창이다. 지열냉난방이란 지구 내부에서 표면을 거쳐 외부로 나오는 지열(地熱)을 이용해 냉난방을 하는 것이다. 겨울에는 지하가 지상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지하가 지상보다 시원하다는 점에 착안한 신기술이다.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이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결점이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주변 식생이 아까와는 확 달라진다. 자유분방했던 적송들이 사라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곳곳이 자란 전나무들이 병사들처럼 도열해서 흐트러진 경건을 일깨운다. 길도 천왕문까지 박석이 깔린 직선길이다.

통도사는 불보사찰답게 규모도 크고 전각의 동수도 많다. 가람배치가 자유분방하게 느껴지는 것은 창건 후 끊임없는 증축으로 인해 가람배치의 정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대광명전은 다른 전각에 비해 용 조각이 유난히 많다. 천장 아래도리에 ‘吾家有一客 定是海中人 口吞天漲水 能殺火精神(오가유일객 정시해중인 구탄천창수 능살화정신)’이라는, 수신(水神)을 찬탄하는 글귀가 남아있다. ‘천창수(天漲水)’란 하늘에 넘치는 물을 가리키는데, 곧 비를 말한다. 용이 비를 내려 화재를 막아낸다는 의미다.

금강계단을 비롯해 경내 주요 전각의 보머리에 소금단지가 얹혀져 있다. 소금은 화재를 막기 위한 벽사물로, 바닷물을 상징한다. 통도사에서는 매년 단오에 소금단지를 내리고 새로운 소금을 갈아 넣는다. 종이로 봉한 후에는 바닷물임을 상징하기 위하여 ‘물 수(水)’자를 종이 위에다 쓴다.

경내의 주요 조경수로는 불이문 옆 향나무, 대광명전과 황화각 앞 파초, 영각 앞 동백과 꽃사과, 양산전 옆 오죽, 능견문 굴뚝의 담쟁이 등이 눈에 띈다.

통도사는 산내암자를 무려 20개나 거느리고 있다. 하마비가 있는 삼거리에서 포장도로를 따라가면 그 암자들을 순례할 수 있는 길이 이어져 있다. 함부로 내달리는 차량만 아니면 걸어다녀도 좋을 길이다. 길섶과 산자락에 말불버섯, 광대버섯을 비롯해 몇 종류의 버섯이 관찰되고 있다. 가을이 깊어지면 버섯도 제철이 끝난다.

서운암과 자장암 주변으로 사찰 소유의 논들이 남아있다. 소작을 준 곳도 있지만, 장밭들 논은 통도사 대중이 직접 농사를 짓는 논이다. 봄이면 모를 심고, 가을이면 나락을 거둔다.

서운암은 야생화와 과수원과 도자기와 재래장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매스컴을 탄 곳이다. 삼천불전은 서운암의 큰 법당으로, 도자로 빚은 삼천불도 볼만 하지만, 삼천불전 바닥에 멍석을 깐 것도 독특한 발상이다. 매년 봄이면 서운암에서 들꽃축제가 열린다. 가을엔 벌개미취와 코스모스 세상이다.

안양암은 통도사 계류 건너 맞은 편 안산에 있다. 통도사 산내 암자의 마당들은 자갈마당과 잔디마당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안양암을 비롯해 보타암, 취운암, 극락암 등등 절반 이상이 자갈마당이다.

마당에 자갈을 깔면 잡초 관리가 쉽긴 하지만, 복사열이 만만찮고, 전통조경과도 거리가 멀다. 곳곳에 ‘默言(묵언)’ 팻말이 붙어 있지만, 마당에 깔린 자갈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린다.

통도사와 산내암자 일원에서 관찰되는 국화과 초본으로는 버드쟁이나물, 산국, 구절초, 까실쑥부쟁이, 등골나물, 이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참취 등이 있다. 그 밖에 층꽃나무, 익모초, 야생마, 나도송이풀, 며느리배꼽, 타래난, 산박하, 부처꽃, 거북꼬리 등이 꽃을 피웠다.

여름철새들이 떠난 가을날의 조류상은 어딜 가나 단순하다. 조사 기간 중에 박새류와 딱따구리류를 비롯해 직박구리, 딱새, 어치, 까치, 참새, 꿩 등과 같은 텃새들이 주로 관찰되었다. 개울에서는 쇠백로, 해오라기, 물까마귀, 할미새, 노랑할미새 등이 관찰되었다.

3구간에는 아래쪽부터 자장암, 서축암, 금수암, 반야암, 극락암, 비로암, 백운암 등이 자리하고 있다. 자장암으로 가는 계류에는 넓은 반석들이 깔려 있고, 그 위로 차고 맑은 계류가 유리판처럼 흐르고 있다. 소에는 버들치와 갈겨니들이 한가로이 유영을 하고 있다. 이곳이 통도사 팔경 중의 하나인 자장동천이다.

관음전은 자장암의 법전이다. 다다미 바닥을 뚫고 솟은 칼바위가 법당 안팎에 걸쳐 있다. 바위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절을 건사했던 옛 스님들의 지혜와 자연사랑을 엿보게 한다. 칼바위는 바닥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관음전 뒤 암맥과 이어져 있다. 암자를 짓기 위해 그 바위를 건드리는 것은 곧 영취산 산체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관음전 뒤로 가면 소문난 금와보살(金蛙菩薩)이 살고 있다. 불심이 깊은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금와보살은 고맙게도 조사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밖으로 몸을 나투었다. 금와보살 정체는 생물분류학적으로 청개구리이다.

금와보살이 가끔 다양한 색상을 띠고 나타는 것은 청개구리 본래의 보호색 때문이다. 회색일 때 더욱 많이 나타나는 얼룩 무늬도 보호색의 하나이다. 청개구리는 키 작은 관목이나 초본이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데, 관음암 주변이 바로 그렇다.

반야암 가는 숲길 오른쪽은 습윤한 지역이라 멀리까지 논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따금 멧돼지들이 새끼들까지 데리고 원정을 내려와 논을 작살내놓고 간다. 조사기간 중에 만난 주민들의 성화가 대단했다. 멧돼지들이 내려오는 까닭은 잘 자란 나락(벼)을 먹는 데도 있지만, 물이 칠벅한 논바닥에 뒹굴어서 몸에 붙은 기생충을 없애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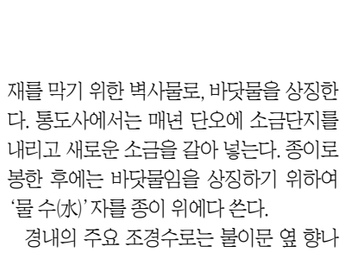
극락암 경내의 산정약수비(山精藥水碑)는 경봉선사가 남긴 유물이다. “사람과 만물을 살려주는 것이 물이다.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 많은 고기와 식물을 살리고….”하는 비문은 그대로가 환경법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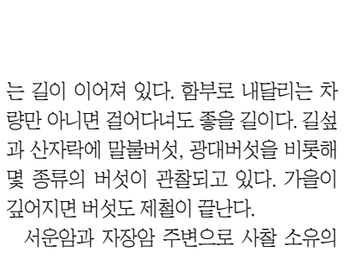
몇 그루의 은목서가 하얀 꽃을 수없이 피워놓고 진한 향기를 날리고 있다. 절집에서는 송광사와 선암사에서 볼 수 있다. 금목서는 봄에 피고, 은목서는 가을에 핀다. 두 종류 모두 향기가 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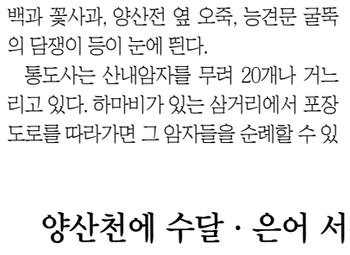
비로암은 물을 살린다는 활수교(活水橋) 건너에 있다. 다리 이름이 독특하다. 물을 살리는 방책으로는 숲을 가꾸는 것이 제일이다. 극락암에서 비로암으로 가는 초입의 서어나무 군락들이 주는 눈맛이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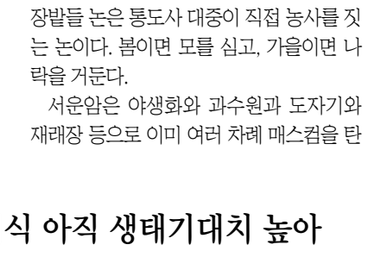
비로암을 나오면 백운암을 지나가는 등산로가 정상까지 나 있다. 정상까지는 암산의 특징이 유감없이 드러나는데, 급한 경사와 험한 지형이 그것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가막살이열매.


통도사 장생표.


남방부전나비.


버드쟁이나물.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꽉 찬 느낌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597-9119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02)325-9080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66-1226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042)242-5240~1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2)286-1548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033)764-7001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821-9117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41)577-1226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813-3953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5)237-9397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76-2600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61)279-1226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47-3273